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 학위 논문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을 위한 혼종어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국어학전공
권정현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을 위한 혼종어 연구

Study on Hybrid word for the Conditioned Terminology Polic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국어학전공
권정현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을 위한 혼종어 연구

Study on Hybrid word for the Conditioned Terminology Policy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국어학전공
권정현

권정현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상혁



심사위원

최경복



심사위원

김일래



심사위원

김윤주



심사위원

권정현



국 문 초 록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을 위한 혼종어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화과

국어학전공

권 정 현

이 연구는 전문 용어 순화 정책에 제언하기 위하여 전문 용어 혼종어를 대상으로 동기화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지식 개방 시대에 들어오면서 순화의 개념은 이제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서 ‘소통’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전문 용어는 공공언어로써 전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두루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 용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전문인들에게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단지 어휘 자체만으로는 외래어의 음역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고유어의 결합으로 인해 그 의미를 해석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에서 급증하고 있는 혼종어의 유형과 이해도 조사를 통해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외래어의 음역 및 문제적인 고유어·한자어들의 조어 과정을 살펴보고 동기화를 위한 조어 방식을 짐검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혼종어의 개념과 전문 분야별 생성 유형 및 어종 유형, 조어 유형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해도 조사에서 가장 선호되는 어종 유형은 ‘고유어+한자어’ 유형이었으며, 조어 유형은 ‘용언의 관형형+명사’ 유형이었다. 4장에서는 순화 정책에 제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선호도와 동기화 요소를 정리하여 조어 방식

을 제언해 보았다. 그리고 전문 용어의 수용 계층을 위한 동의어의 다양화와 순화어의 유통성 점검 방식을 함께 제언하였다.

전문 용어의 순화는 곧 용어의 동기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기화를 위한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을 개발하고 순화어의 정착을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전문 용어, 혼종어, 순화, 동기화, 공공언어, 어휘 이해도, 언어 수용력, 유통성

목차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8
1.3. 연구 방법	15
II. 혼종어의 개념과 유형	17
2.1. 혼종어의 개념	17
2.2. 혼종어의 유형	20
III. 전문 용어 혼종어의 이해도 조사	68
3.1. 어종 구성별 어휘 이해도 조사	69
3.2. 조어 형태별 어휘 이해도 조사	86
3.3. 동의어의 상대적 어휘 이해도 조사	104
IV. 전문 용어 혼종어의 순화 방안	118
4.1. 조어 방식의 제언	118
4.2. 동의어의 형태별 다양화	132
4.3. 유통성의 점검	137
V. 결 론	147
참 고 문 헌	150
부 록	155
ABSTRACT	176

표 목차

<표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	7
<표 2> 김정우 외(2012)의 복합어의 조어법 유형과 비율	10
<표 3>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외래 번역 유형	11
<표 4> 분석 대상 전문 용어의 혼종어 비율	15
<표 5> 7가지 혼종어 어종 구성 유형	19
<표 6> 강현화(2011)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의 번역 유형	20
<표 7> 외래어의 음역	22
<표 8> 외래어의 한자어 번역	25
<표 9> 외래어의 고유어화	29
<표 10> 의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33
<표 11> 의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34
<표 12> 의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35
<표 13> 의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36
<표 14> 환경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38
<표 15> 환경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39
<표 16> 환경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40
<표 17> 환경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40
<표 18> 문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42
<표 19> 문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43
<표 20> 문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44
<표 21> 문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44
<표 22> 건축 전문 용어 어종 유형	47
<표 23> 건축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48
<표 24> 건축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49
<표 25> 건축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50
<표 26> 전문 분야별 명사+명사 합성 어휘 수	51
<표 27> 전문 분야별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명사 합성 어휘 수	55
<표 28> 전문 분야별 용언의 명사형+명사 어휘 수	58
<표 29> 전문 분야별 용언의 관형형+명사 어휘 수	61
<표 30> 전문 분야별 부사+명사 및 의태어 합성 어휘 수	63
<표 31> 국립국어원(2007)에서 제시한 줄임말 유형과 예시	66

<표 32> 조사에 제시한 어종 유형	69
<표 33> 어종 유형 조사 방식	70
<표 34> 어종 유형 고르기 1번 문항 순위 집계표	71
<표 35> 조사 어휘 제시어	71
<표 36>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73
<표 37> 조사에 제시한 조어 형태	86
<표 38> 조사 방식	87
<표 39> 조어 형태 순위 합계	87
<표 40> 조어 형태 제시어	88
<표 41> 형태별 순위 결과	89
<표 42> 동의어 3개 이상 표본 어휘 수	105
<표 43> 조사 방식	105
<표 44> 동의어 제시어	107
<표 45>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09
<표 46> 의학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121
<표 47>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122
<표 48> 조어 유형별 순위 결과	122
<표 49> 환경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124
<표 50> 환경 전문 용어의 ‘외래어+한자어’ 유형 예시	125
<표 51>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125
<표 52> 건축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126
<표 53> 조어 유형별 순위 결과	127
<표 54>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127
<표 55> 문학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129
<표 56>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129
<표 57> 형태별 순위 결과	130
<표 58>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한자어 어종 비교	133
<표 59>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고유어 어종 비교	134
<표 60>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외래어 줄임말 어종 비교	135
<표 61> 표제어와 동의어의 고유어-한자어 어종 비교	136
<표 62> 어종 유형별 전문 용어 구글 검색 빈도수	138
<표 63> 빈도수 10 이하로 나타난 한국어 용어	140
<표 64> 조어 유형별 전문 용어 구글 검색 빈도수	141

<표 65> 빈도수 10 이하로 나타난 한국어 용어	143
<표 66> 동의 관계 구글 검색 빈도수 비교 결과	144



그림 목차

<그림 1> 공공언어의 정책 방향	4
<그림 2> 순화 개념의 변화	5
<그림 3>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말터」	14
<그림 4> 한국어 혼종어가 나타나는 환경	18
<그림 5> 의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32
<그림 6> 환경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37
<그림 7> 문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41
<그림 8> 건축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46
<그림 9> 구글 서베이 어종 유형 고르기	70
<그림 10> [팟종^아치]의 순위 비교 결과	76
<그림 11> [가로^빔]의 순위 비교 결과	76
<그림 12> [가짜^히어로]의 순위 비교 결과	77
<그림 13> [거울^이미지^규칙]의 순위 비교 결과	77
<그림 14> [벼룩-상]의 순위 비교 결과	78
<그림 15> [복근^장방형보]의 순위 비교 결과	79
<그림 16> [협역^스펙트로그램]의 순위 비교 결과	79
<그림 17> [간성^포르피리아]의 순위 비교 결과	80
<그림 18> [승강기^홀]의 순위 비교 결과	81
<그림 19> [핵점^모멘트]의 순위 비교 결과	81
<그림 20> [콘크리트^다지기]의 순위 비교 결과	82
<그림 21> [슬롯^구멍]의 순위 비교 결과	83
<그림 22> [플레미시^쌓기]의 순위 비교 결과	83
<그림 23> [캔틸레버식 가설]의 순위 비교 결과	84
<그림 24> [히아투스^현상]의 순위 비교 결과	85
<그림 25> [슬리브^신축^이음]의 순위 비교 결과	85
<그림 26> 구글 서베이 조어 형태 고르기	87
<그림 27> [뒤통수^결합^쌓동이]의 순위 비교 결과	91
<그림 28> [손등^방향]의 순위 비교 결과	92
<그림 29> [뒤부아^고름집]의 순위 비교 결과	93
<그림 30> [딴곳^빈맥]의 순위 비교 결과	93
<그림 31> [우물-통]의 순위 비교 결과	94

<그림 32> [기중기^운반식^거더^가설법]의 순위 비교 결과	95
<그림 33> [간^원인대^파임]의 순위 비교 결과	96
<그림 34> [다짐^모래^말뚝^공법]의 순위 비교 결과	96
<그림 35> [순간^처짐]의 순위 비교 결과	97
<그림 36> [느린^근]의 순위 비교 결과	98
<그림 37> [신경^근육^탈분극^없는^이완제]의 순위 비교 결과	98
<그림 38> [두통^없는^편두통]의 순위 비교 결과	99
<그림 39> [깊은^부분]의 순위 비교 결과	100
<그림 40> [사마귀^모양^결핵]의 순위 비교 결과	101
<그림 41> [거꿀^난시]의 순위 비교 결과	101
<그림 42> [머리-여]의 순위 비교 결과	102
<그림 43> [접시머리^리벳]의 순위 비교 결과	103
<그림 44>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의 순위 비교 결과	104
<그림 45> 구글 서베이 동의어 비교하기 조사	106
<그림 46> [가슴막^복막^션트]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0
<그림 47> [머리뼈^유리^연골^결합]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1
<그림 48> [고름^공기^심장막증]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2
<그림 49> [가워스-속]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2
<그림 50> [간^쓸개관^빈창자^연결술]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3
<그림 51> [거짓^동맥^자루]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4
<그림 52> [뜬말뚝^기초]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5
<그림 53> [누빔^용접]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5
<그림 54> [방화^댐페]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6
<그림 55> [슬라이딩^이음]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117
<그림 56> 조어 방식 개발의 필요성	120

I. 서 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의 순화 정책을 제언하기 위하여 용어의 이해를 돋는 동기화 요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 용어에서 최근 가장 생산성이 높은 어종 유형인 혼종어(hybrid word)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별 어종 형태와 조어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용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순화 정책에 제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선호도와 동기화 요소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실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여 용어의 이해도와 언중 수용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문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 전문 용어는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제한되고 특수한 언어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무선기기 등의 매체가 많아지면서 일반인도 전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 용어는 더 이상 전문인들의 사용 어휘로 국한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 용어들은 단지 어휘만으로는 그 의미를 해석해내기 어렵다. 전문 용어는 자의성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일반 어와 다르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이다.¹⁾ 다시 말하면 전문 용어는 전문인들에게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식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문 용어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지식 전달력을 갖는 형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지식 전달력을 갖는 형태의 모색은 곧 순화 정책을 위한 모색 방향과 길을 같이한다.

전문 용어에서 언어가 차용될 때, 해당 어휘는 대부분 처음에 음역(transliteration)을 한다.²⁾ 음역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의 음운 체계에서 표현하는 문자 변환(letter shif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현식

1) 고석주 외(2007)에서는 전문 용어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또는 어휘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문 용어가 일반어와 가장 다른 점은 일반 단어가 다의성의 산물임에 반해, 전문 용어는 속해 있는 전문 분야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논의하고 있다.

2) 전문 용어 연구 분야에서는 ‘음역’을 대부분 ‘음차’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번역 방식의 구분을 할 때, 음으로 번역한 것은 ‘음역’을, 의미로 번역한 것은 ‘의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음역과 의역에 대한 연구는 강신항(1983), 김형철(1996), 민현식(1998) 등이 있다.

(1998:105)에서는 외래어를 음역어와 의역어, 혼역어로 나누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음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직접 음역어에 해당한다. 음역은 번역해야 할 대상어가 해당 국가의 고유 명사일 때, 동일 의미의 어휘를 못 찾았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다.³⁾ 게다가 전문화가 진행된 분야일수록 전문 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본래의 어휘와 새로운 어휘가 합성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어휘는 점점 길어진다. 또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은 해당 전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어휘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없는 형태로 굳어진다.

혼종어는 두 가지 이상의 어종이 섞여있는 어종 형태를 말한다. 둘 이상의 어종이 섞여 만들어진 혼종어는 현재 신조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어종 유형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재생산·확산되고 있다.⁴⁾ 국립국어원의 2010년 신어 자료집에서도 단일 원어 표기 신어는 전체 가운데 50.71%이고, 혼종어는 49.29%를 차지한다. 이와 비교해 김종택(1993)에서는 ‘-하다’ 류의 외래어와의 합성 어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의 분석에서 고유어 44.48%, 한자어 45.41%, 외래어 3.03%, 혼종어 7.08%로 혼종어의 비중이 높아진 다른 양상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2000년대 이후 수집한 전문 용어 혼종어를 대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부터 개방형 지식 대사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위키피디아 형식의 사용자 참여형 지식 대사전을 구축 중이다. 이 사전에는 각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새로 수집한 전문 용어 34만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개방형 지식 대사전에서 어원의 어종을 구분할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⁵⁾, 혼종어 4가지로 구분하는데, 한자어와 혼종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의 출처가 외부에서 온 것들이 많고 전문 지식이

-
- 3) 민현식(1998:97)에서는 외래어를 차용 동기에 따라 필요 외래어와 잉여 외래어로 나누고 있는데 전문 용어는 필요 외래어로 분류하면서 순화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 4) 미국의 언어 컨설턴트업체 ‘GLM(global language monitor)’에서는 현재 중국어에 차용된 영어 단어가 10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혼종어의 급증을 논의하였다.
 - 5) 개방형 지식 대사전에서 구분하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에서 표기를 등재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방형 지식 대사전의 특성상 새롭게 등재된 용어의 외래 표기가 미확정인 경우도 많다. 외국어를 외래어로 수용하는 문제는 언어 순화 정책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늘어날수록 기존의 용어에 새로운 용어가 더해지는 첨가·합성 방식으로 만들 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1)은 ‘가슴막’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첨가·합성 방식의 용어들이다.⁶⁾

(1) 가슴막^복막^션트

가슴막^복막^지름길

가슴막^살포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에 외래어 및 외국어가 합성된 어종 형태를 중심 논의 대상으로 다룰 것이다.⁷⁾ 혼종어는 둘 이상의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을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본래 자주 사용되는 고유어와 한자어들이 우리말로 인식되고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오래된 한자어나, 영어, 기타 외국어들이 외래어종으로 인식되며 구분된다. 우리가 어휘 해석에 있어서 이질적으로 인식하는 차용된 어휘 들이나 잘 쓰지 않는 고유어와 한자어들과의 어종 섞임이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혼종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어종 유형을 분석해 보고 우리 말과 외래어·한자어가 혼종된 전문 용어들 가운데 문제적인 요소와 지향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해 볼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양상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음역 용어, 잘 쓰지 않는 고유어·한자어와의 합성 형태인 ‘문제적’ 혼종어이고, 다른 하나는 순화 목적으로 음역 용어를 일부 의미 번역한 ‘순화적’ 혼종어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의미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함으로써 전문 용어의 동기화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

지금까지 전문 용어 표준화 정책은 용어의 분류법 및 체계적인 정리에 주목

6) 고석주 외(2006:13)에서는 용어학에서 ‘유종 관계’가 용어의 체계성을 가장 드러내 준다는 논의를 제시하며 전문 용어의 체계가 이를 따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7) ‘외래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그리고 선·후행의 반대 경우를 중심으로 볼 예정이다. 그 이유는 ‘한자어+고유어’ 또는 ‘고유어+한자어’는 사용량이 많은 한자어일수록 이미 귀화어 수준에 이른 말들이기 때문에 ‘동기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8) 이현주 외(2007)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 용어학에서는 용어학적 관점에서 명칭론적 접근법을 언급하고 있다. 개념 체계가 성립된 전문 용어의 명명 방식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명 방식에 따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용어의 투명성, 즉 동기화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2007년도 연구 보고서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이나 「외래 전문 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에서 전문 용어의 세부적인 유형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전문 용어의 표준화의 목적이 용어 체계의 ‘통일성’에 맞추어져 있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문 용어의 ‘일의성’에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⁹⁾

순화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를 바라보면, 해당 용어 뜻풀이의 핵심적인 어휘가 용어에 표현되어 있고,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인지를 점검하는 시도는 부족해 보인다.

국내 순화 정책의 실현은 2005년 이후 만들어진 국립국어원의 ‘언어 정책과’를 시작으로 ‘공공 언어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순화의 방향은 매체언어 또는 공공언어의 개선과 전문 용어의 표준화 사업으로 나뉘어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85년에 발간한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어휘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또한 이를 토대로 외래어 용례집을 발간하고 외래어에 대한 언어 의식을 조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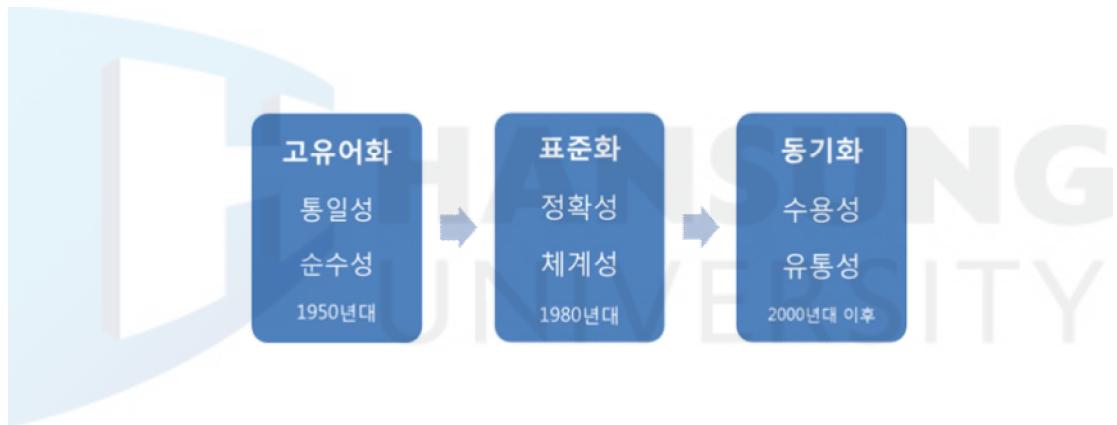
<그림 1> 공공언어의 정책 방향

9) 전문 용어의 ‘일의성(terminological monosemy)’은 하나의 용어 안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전문 용어 형성 원칙 중의 하나인데, 또 다른 전문 용어 형성 원칙인 ‘일관성’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전문 용어의 표준화 사업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이는 곧 공공번역의 표준화 사업으로 귀결되었다.

한국어의 언어 정책 방향은 국어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과거의 한자식과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언어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규범적 성격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어 규범적 관점의 표준화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자국어의 보호와 장려 정책으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2> 순화 개념의 변화

우리말에 대한 언어 정책은 최근에 들어서 ‘공공’의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의 개방과 더불어 용어가 갖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언어’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¹⁰⁾ 최근의 한국어는 ‘보급’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고,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한국어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 사업

10) 양명희(2014:37)에서는 국어 정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공공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규범요소가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규범요소를 여전히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은 연구와 구축의 큰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먼저 「개방형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과 「공공번역 표준화」 연구, 웹사이트 「말터」를 통한 참여형 순화어 사업 등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순화의 목적은 소통이 강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언중 수용력’을 갖춘 어휘로 다듬는 것이다. 한재영(2003)에서는 23,000여개의 순화어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순화의 기본 목적도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인 의사소통에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고유어가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고 해서 고유어만을 인정하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화자들에게 어휘 의미가 인식되는 범위 안에서 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혼종어의 형태 분석이나 범주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순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언중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써 음역 용어, 잘 쓰지 않는 고유어, 한자어들과의 어종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혼종어는 단순히 국가어에 외국어가 섞여 들어 온 ‘정화’와 ‘번역’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말과 어울리도록 다듬어야 하는 어종 형태가 되었다.¹¹⁾

이 연구에서 ‘소통’을 위한 어휘 조어 방식의 조건으로 주목한 요소는 ‘동기화’이다. 전문 용어 표준화 연구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 형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1) 한 나라의 언어를 국가어로 명시한 이유는 단순한 모국어 이상인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언어 개념으로써 사용한 것이다. 국가어 안에는 순수한 고유어뿐만 아니라, 외래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중 언어 국가들은 공공 문서에서 여러 어종의 언어가 쓰이기도 한다.

<표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

원칙	내 용
(1) 동기화(투명성)	그 지칭 개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용어를 통해 유추 할 수 있을 때 동기화되었다고 말한다.
(2) 일관성	그 분야의 개념 체계에 상응하는 일관된 용어 체계에 부합해야 한다. 신생 용어는 기존 용어와의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적합성	표준 용어로 제안하는 용어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의미 양상을 따르는 것이 좋다.
(4) 언어 경제성	용어는 가능하면 간략해야 한다.
(5) 파생력	생산적인 용어 형성 방식 즉, 파생어를 산출하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언어적 정확성	전문 용어는 해당 언어의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징을 충족시켜야 한다.
(7) 모국어 선호	전문 용어를 생성할 때 외국어 차용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직접적인 차용보다는 해당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전문 용어 표준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집(704:2000)은 가장 대표적인 기준 원칙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또한 ‘투명성’ 즉 ‘동기화’는 국내의 여러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들 모두 기본적으로 형성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다.¹²⁾ 김정우 외(2012)에서는 이러한 동기화는 기표가 기의를 찾아가는 방향성이 일반어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자의성보다 언어 기호와 의미의 일치성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언급하였다.¹³⁾ 이러한 논의는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1916)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언어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일 언어 단위를 넘어서 복합 언어 단위가 되면 형식과 내용 사이는 유사성을 가지며 긴밀해진다.¹⁴⁾ 그러나

12) 용어 형성 원칙을 제시한 대표적 단체는 ‘국제표준화기구’, ‘한국전문용어공학센터’, ‘남북 용어 통일화 사업’,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학술 전문용어 표준화 위원회’의 4곳이다. 이들이 용어학적 관점 기준에서 모두 용어의 ‘투명성’을 제안하고 있다(최형용, 2010:304 참조).

13) 좀 더 덧붙이자면 김정우 외(2012)에서 일반어는 개념 혹은 대상이 자의적으로 연결되지만 전문 용어는 이미 개념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용어학에서는 대상에 대한 해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적절한 음성 형태 즉 기표를 연결하는 언어의 적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14) 김의수(2015:51)에서는 언어의 필연성과 자의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김동환(1997:233)의 도상성 논의를 설명하였다. 복합 언어 단위의 형식(기표의 배열)과 내용(의미 양상)에는 도상성을

전문 용어의 경우 서로 이질적인 어종의 단일어들이 결합되어 합성어가 되면서 어종 간의 혼종이 오히려 용어의 동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혼종어는 본래 요소들과 이질적인 요소와의 결합이 주를 이루어 언중의 수용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용어의 ‘수용력’을 확보하는 가장 최우선의 형성 기준은 용어 형태가 용어 의미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전문 용어 혼종어의 동기화 점검이 혼종어 순화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의 언어학적인 조어 방식 분석이나 음역 용어의 순화적 공공번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전문 용어의 어휘 이해도 설문 조사를 통해 언중 수용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용어 혼종어에 필요한 동기화 요소를 점검하는 데에 있다.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가 양산된 원인과, 언어 인식에서 외래어와 혼종어가 다른 점,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가 가지는 수용력 또는 이해도의 문제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반드시 혼종어의 어종 및 형식 유형과 사용자의 어휘 이해도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혼종어의 어종 및 조어 구성 방식에 대한 전문 분야별 어휘 이해도 조사를 통해 순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문 용어 혼종어의 동기화를 위한 순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이 연구는 서로 이질적인 언어가 만나서 혼종어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언중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한국어의 조어 방식에 대한 순화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용어 조어 방식에 대한 유형 연구와 순화어 수용 점검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 용어 조어 방식에 대한 유형 연구에는 김정우 외(2012), 송영빈(2011),

갖는데 즉,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의 유사성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인지언어학의 동기화 논의로 확대되는데 송현주(2010)에서는 합성어가 가지고 있는 도상성 즉, 동기화를 논의하고 있다.

2012), 장진영(2012) 등이 있고 전문 용어 계량 분석 방법을 제안한 배선미 외(2004)가 있다.

전문어는(special language)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전문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고석주 외, 2006:11).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된 폐쇄적인 용어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언어가 되었다. 전문 용어가 소수자들만의 전문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인들과도 소통되고 사용되는 어휘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전문 용어 연구가 용어 목록화에 관한 연구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동일 개념이 여러 분야에 혼재되어 있거나 걸러지지 못한 표기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전문 용어의 조어법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전문 용어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모두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데 각 분야별 용어를 두고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분야는 의학 분야, 과학 분야 등이다.

특히 배선미 외(2004)에서는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계량 분석 방법을 논의하면서 전문 용어들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어종 유형을 혼종어를 제외하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가지 부류로 나눈 점이다.

김정우 외(2012)에서는 곤충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4가지 부류로 어종 유형을 나누어 조어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 용어의 조어법이 일반어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언급하면서 곤충 관련 어휘 목록에서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곤충 전문 용어에서는 명사와 명사의 합성법이 가장 많았다.

<표 2> 김정우 외(2012)의 복합어의 조어법 유형과 비율

조어법 유형 중 복합어 유형	비율
명사와 명사의 합성법	80.5%
용언의 관형형과 명사의 합성법	8.1%
접두사와 명사의 파생법	6.8%
용언의 명사형과 명사의 합성법	0.6%
명사와 접미사의 파생법	0.5%
어근과 명사의 합성법	0.5%
부사와 명사의 합성법	0.4%

이 밖에도 송영빈(2011, 2012)에서는 물리학 용어와 의학 용어를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의학 전문 용어의 분석의 경우는 논문에서의 출현 비율과 사용 양상을 제시하고 의학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 국어원에서는 이현주 외(2007)의 연구 보고서 ‘외래 전문 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전문 용어의 번역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혼합 번역 유형을 참고하여 혼종어 유형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표 3>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외래 번역 유형

번역 유형	세부 유형		예시
1. 음운 차용	일반적 음운 차용		wild shooting 와일드 슈팅
	약자 음운 차용	두자어	American National Standard 에이 엔 에스
		두음어	ASCII character 아스키 문자
	제한적 음운 차용		single lens reflex camera 싱글 렌즈 리플렉스
2. 문자 차용	변형된 음운 차용		air conditioner 에어컨
			毛澤東 모택동 [동양사]
3. 의미 차용 (직역)	전체 의미 차용	파생어	making 만들기
		합성어	circuit pathway 회로 경로
		구 구성	respectable class 존경받는 계급
	원어 표기 신 용어		corpus 말뭉치
	제한적 의미 차용		absorbent gauze 거즈
4. 의역	화장 번역		mergers and acquisition 기업 인수 합병
	환언적 번역		noise 잡음 [영화]
	비유적 번역		at @ 골뱅이
5. 혼합 번역	음운 차용 + 의미 차용		image making 이미지 형성 [조경학]
	문자 차용 + 의미 차용		Xixia character 서하 문자
	문자 차용 + 음운 차용		Chaghadai Kanate 차카타이 한국 [동양사]
	음운 차용 + 의역		character setup 캐릭터 빼심기
	의미 차용 + 의역		feedback control 되먹임 제어 [기계]
	음운 차용 + 의미 차용 + 의역		character setup supervisor 캐릭터 빼심기 부서

또한 국립국어원의 언어정책부에서 주관하여 연구한 고석주 외(2006)에서는 전문 용어의 정리 방법론으로 방대한 분량의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의 정리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 용어 조어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은 전문 용어를 다룰 때 여러 전문 분야의 의미 구성 방식을 비교한 연구보다는 한 영역의 전문 용어를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상 제시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전문 용어에 관한 연구 가운데 표준화를 위한 분석과, 조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분류에서 어종 유형의 일부로 혼종어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중심의 언어학적인 세부 분류가 논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보인 비율이 높은 유형들을 가려내어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의 동기화를 점검하는 해 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위의 관련 연구들 중에서 전문 용어의 표준화 점검과 순화에 대한 부분을 주로 참고할 것이다.

다음으로 순화어 수용 점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우리말이 외부 언어와 접촉되어 차용이 발생할 때, 우리말 사용자에 의하여 음역과 의역이 발생하게 된다. 의역은 고유어로 바뀌거나 한자어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휘를 언중 수용력이 높은 어휘로 다듬는 과정이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혼종어의 순화이다.

순화어의 사전적 정의는 불순한 요소를 없애고 깨끗하고 바르게 다듬은 말,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순화한 말이다. 지제근(2011)에서는 ‘순화’의 의미를 ‘純化(순수하게 만듦), 醇化(쓸데없는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고 바르게 만듦), 驯化(익숙하게 하고 적응시킴)’의 세 가지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며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게 만들어 적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논의하였다. 결국 순화 할 대상에 따라 순화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1970년대까지는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식 표현을 온전히 고유어화 해야 한다는 순화 개념이 강했다.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후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는 인터

넷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공공 용어로써 순화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김민수(2007:356)에서는 “국어 순화의 측면에서 외래어의 일방적 배격보다는 이미 들어온 것과 장차 들어올 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외래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말 사용자들에게 순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단순히 외래의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 혼종어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미래 우리말의 모습을 고찰해 보는 인식은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전문 용어 순화 문제와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제 구성 방식의 비율을 조사하거나 순화된 결과 어휘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순화는 ‘맞춤법 통일안’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보급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도 표기법 중심으로 교육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필요한 순화 개념은 어휘 자체가 어떻게 소통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느냐이다. 그만큼 동기화가 부재한 어휘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층·집단간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언어 순화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purification of language’이다. 문자 그대로 언어 순화주의(linguistic purism)인데 언어의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만 봐도 라틴어계와의 관계를 배제 할 수 없다. 이는 용어의 어종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순화에 대한 연구는 순화 대상어에 대한 형태 분석 연구와 순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순화 방식을 제안하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순화 대상어에 대한 형태 분석 연구는 대표적으로 최형용(2012)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사이트 「말터」를 이용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화 방안을 점검하였다. 순화어로 다듬어져 제시된 299개의 어휘를 형태·의미론적 고찰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림 3>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말터」

두 번째로 순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강현화(2012)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에서 순화의 문제를 ‘국어화’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전문 용어가 안고 있는 언중 수용력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외래어와 외국어의 음역에 대해서 표기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혼종어에 대한 언급은 차용어에 대한 음역 문제로 축소되어 논의되고 있다.¹⁵⁾

우리의 연구와 가장 근접한 방향의 연구는 손혜옥·이수미(2011)인데, ‘영어+하다’ 류의 혼종어의 국내 정착 양상을 다루고 있다. 외래어의 형태·통사·어휘적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서 ‘영어+하다’ 류가 어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기존어에 대체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순화 대상으로써 외래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기존어에서 채울 수 없는 의미 영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¹⁶⁾

15) 국어사전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에 편입되어 자주 쓰이는 어종 유형이고, ‘빌려왔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차용어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외국어의 음역 상태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개방형 한국어 대사전에서나 기존의 전문 용어 연구들에서 차용어를 외래어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어종 유형을 차용어와 외래어를 통틀어 외래어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이상혁(2002:105)이 있는데 차용어와 외래어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외래어가 되는 적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6) 손혜옥·이수미(2011:147)에서는 국어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고유어를 일컬어 ‘기존

1.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전문 용어의 혼종어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010년 이후의 신어들이다.¹⁷⁾ 혼종어 분석은 4개의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많이 구축되었고 가장 많이 논의 대상이 되었던 의학 전문 용어와 환경 전문 용어, 건축 전문 용어, 문학 전문 용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전문 용어 어휘와 2000년대 이후 새로 편입된 전문 용어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전문 영역별로 어휘 관리 체계가 다르고 용어를 다루는 방식도 다르다. 이 가운데 특히 의학 전문 용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용어를 수집하여 구축하였다. 용어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용어의 순화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전문 분야 선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혼종어 비율과 외래어 비율이 높은 4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의학 전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외래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전문 분야와 고유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건축 전문 분야, 문학 전문 분야로 선택하였다.

<표 4> 분석 대상 전문 용어의 혼종어 비율

전문 분야	전체 어휘 수	혼종어 어휘 수	혼종어 비율(%)
의학	50,000	19,438	38.87
환경	19,973	5,143	25.74
건축	13,032	4,533	34.78
문학	4,929	1,084	21.99
합계	87,934	30,198	29.11

어종 유형에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각 분야의 수집 어휘에서 혼종어의 비율은 평균 30%로 상당히 높다. <표 5>의 혼종어는 본래 상용되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포함한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한자어 및 외래어와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음역을 구

어’라고 설정하였다.

17) 국립국어원에서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꾸준히 여러 분야의 어휘를 새로 수집하고 있다. 전문 용어 역시 신어를 포함하여 정비한 어휘들로 약 40여 가지 이상의 전문 분야로 나뉘어 구축되었다.

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선호도 점검에서 언중 수용력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¹⁸⁾ 이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문 용어의 혼종 명사이다.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는 명사 중심으로 목록화가 되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어법이 ‘명사+명사’의 합성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에 수집된 신어 전문 용어의 혼종어를 분야별로 추려내어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전문 용어에서 분류된 혼종어 가운데 동의어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300개 어휘를 표본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표제어 혼종어에 해당하는 동의어의 어종 유형이 곧 해당 전문 용어의 번역 과정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형 분류에 유의미한 유형을 상정한 다음 필요시 특정 유형의 용어를 추가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가운데 두 어종 이상이 섞인 어휘의 경우 모두 혼종어의 분석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단, 외래어와 다른 외래어가 혼종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혼종어의 분석 과정은 모두 5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4개의 분야별로 수집된 전문 용어를 어종 유형별로 나누고 혼종어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어종 구성 비율에서 설문 조사를 위한 용어의 언중 수용력 요인에 따른 어종 비율을 함께 점검하였다. 언중 수용력 요인은 비중이 가장 큰 선호 어종의 비율, 선형 어종의 비율, 포함 어종의 비율의 세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혼종어가 만들어지는 조어 유형을 나누어 그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종 유형 고르기, 어종 형태 고르기, 동의어 내 어휘 이해도 비교하기의 3가지 어휘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순위 분포별로 점검함으로써 혼종어의 어떠한 어종 유형과 조어 유형이 언중 수용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18) Chafe, W(1994:90)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활성화된 어휘들과 비활성화된 어휘들이 나누어진다고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존의 표준화나 조어법 연구에서 구분하였던 ‘상용되는’ 어휘들과 ‘상용되지 않는’ 어휘들의 구분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I. 혼종어의 개념과 유형

2.1. 혼종어의 개념

혼종어는(混種語, hybrid word)¹⁹⁾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합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어이면서 복합어이다. 즉 적어도 한 개의 어종은 다른 언어권에서 온 것과 합성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는 인접 언어와 접촉하면서 변한다.²⁰⁾ 현재는 인터넷과 같은 무선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인접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와도 접촉하여 변하고 있다. 혼종어의 생산성은 당연히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 온 외래어가 고유어의 자리를 빼앗고 소멸되는 양상도 급증하였다.

혼종어는 서로 다른 언어가 접촉하여 발생한다. 처음에 우리말에 들어올 때, 단일 외국어로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미 외국어로 존재하는 영어 용어의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새로운 개념을 지칭할 우리말이 없을 때 대체어로 들어와서 해당 단어가 언중에 수용되면 다른 단어와도 결합하여 혼종어가 생산된다.

우리말에 접촉하여 들어 온 외래어들에는 시기별로 언중 수용력이 우세한 어종이 있었다.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할 때에는 한자어계가 들어왔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식 한자어가 들어왔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군이 들어오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피진·크리올²¹⁾과 같은 외래어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화자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화자들, 이 중 언어 화자들에게서는 코드-스위칭²²⁾이 나타나기도 한다.

19) Weinreich, Uriel(1953)에서 'hybrid compound word'라는 용어로 혼종어를 다루고 있고, Morton Benson Autumn(1959)에서는 'Loanwords(차용어)'를 다루면서 'Loanblend'라는 표현으로 혼종어를 언급하였다(장홍권(2014)에서 재인용).

20) 김희숙(2011:57)에서는 언어 접촉의 결과로 언어유지, 언어 전환, 새로운 혼합어의 탄생을 들고 있다

21) 1950년대 미국인들의 유입을 통해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의사소통에서 한국어 피진·크리올이 발생했다(이원진, 2004; 피진과 크리올의 문화 : 한국 Pidgin을 중심으로).

22)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나 방언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르는데, J. Lyons(1981:313)는 다언어병용 화자들이 담화 중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두 언어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 비자동적으로 교체되는 것을 코드 스위칭이라 명명하였다(강소영, 2012:209에서 재인용).



<그림 4> 한국어 혼종어가 나타나는 환경

외래어는 원래 다른 나라의 단어이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의 음운 체계와 의미 체계에 동화되어 쓰이는 단어이다(이석주·이주행 1997:85). 즉 차용된 외래어는 해당 언어권의 발음 체계를 우리의 음운 체계로 표현하여 음역한 것이다. 혼종어는 단순히 외래어가 국어와 섞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어 환경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양산된다.

현재 어종 구별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구별하는 이유는 한자어가 국어 음운 체계에 동화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고, 고유어와도 이질적인 느낌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한자어계는 분명 우리 고유의 어종은 아니지만 우리말 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귀화어 수준에 이른 말들이 많다. 대부분의 어종 구분에서 한자어는 외래어와 언중 수용력 차원에서 구분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계가 포함된 복합어를 혼종어로 분류했을 때, 그 비율은 90% 이상 차지한다. 또한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혼종어를 인식할 때, ‘고유어+한자어’는 우리말로, ‘고유어+외래어’ 또는 ‘한자어+외래어’를 보다 명확히 다른 어종이 섞인 형태로 인식하여 받아들인다. 따라서 ‘고유어+한자어’ 결합은 외래어와 결합된 유형의 혼종어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어의 신조어 방식에서는 외래어가 부분 차용되어 혼성, 절단 방식이 주

로 나타나고, 전문 용어는 일반어와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을 의미에 맞게 재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립형 태소끼리 결합하는 복합어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전문 용어는 일반 단어의 크기를 넘어선 구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며, ‘혼종 복합 명사’ 부류가 주를 이룬다. 또한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음역과 의역이 혼합되면서 혼종어가 많이 만들어진다.

<표 5> 7가지 혼종어 어종 구성 유형

어종 구성 유형	예시
고유어+한자어	가시^사이선(가시사이線), 가위^더듬자(가위더듬子)
고유어+외래어	거짓^아나필락시스(거짓<영>anaphylaxis)
한자어+고유어	맹-줄눈(盲줄눈), 즉시^처짐(即時처짐)
한자어+외래어	지지^로프(支持<영>rope)
외래어+고유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널말뚝 (<영>prestressed concrete 널말뚝)
외래어+한자어	캔틸레버식 가설(<영>cantilever式架設)
고유어+한자어+외래어 3종 합성 이상	절대^최대^휩^모멘트(絕對最大휩<영>moment)

한국어의 혼종어 구성 유형을 논의한 대표적인 외국인의 연구로 장홍권(2014)가 있다. 장홍권(2014)에서는 혼종어를 외래어, 한자어와 구별하지 않는 분류법에 반박하면서 혼종어 어종 유형을 분석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의 어종 유형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가지로 보지 않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4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종 분류 유형은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의 6가지로 어종이 놓이는 순서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7>은 이 연구의 혼종어 분석에서도 확인된 대표적인 구성 유형이다.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는 세 어종 이상이 결합한 형태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두 어종의 결합이 가장 많다.

2.2. 혼종어의 유형

2.2.1. 혼종어의 생성 유형

전문 용어에서 혼종어는 해당 언어권의 전문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해당 전문 분야의 사용자가 번역할 때, 용어 안에 있는 고유 명사는 그대로 음역되고 나머지가 의역된다. 아래 강현화(2011)의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경우’에 해당된다.

<표 6> 강현화(2011)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의 번역 유형

번역한 경우	음차한 경우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경우
한자어	원어 표기 음차	한자+원어 표기 음차
한자+고유어	원어 표기의 약어	고유어+원어 표기 음차
고유어	원어 표기 약어의 음차	한자+원어 표기 음차+고유어

전문 용어 혼종어의 경우는 대부분 외래어의 번역 과정에서 순화 과정을 함께 거친 것들도 있다. 과거 순화의 개념이 일방적인 ‘고유어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고유어 생산이 오히려 어려운 용어를 만든 것들도 있다. 게다가 전문 용어에 대한 대중화에 편중된 나머지 뜻풀이 수준의 긴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함께 어휘는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유통될 수 있게 되면서 ‘순화’에 대한 개념도 수용성, 유통성을 갖출 수 있는 ‘말 힘’ 즉 언중 수용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졌다.

전문 지식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려면 전문 용어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러나 한글의 특성상 다양한 어종의 어휘도 표기할 수 있다 보니 제대로 번역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음역되거나 줄임말과 합성되어 음역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용어로는 그 원의를 알기 힘든 용어가 생산되었다. 혼종어에서 동기화를 방해하는 가장 문제적인 어종 유형들은 외래어와 사용량이

적은 고유어 또는 한자어들과 합성된 경우이다. 다음은 혼종어가 만들어지는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2.2.1.1. 부분 음역

우리말은 한글을 통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한글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한글의 음운 체계가 다른 나라 언어의 발음을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의 표기 방식은 오히려 외래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음역하기 쉬운 한글 표기 때문에 특정 인·지명의 경우나 해당 단어가 우리말에 정착된 외래어, 전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국 용어인 경우, 그대로 음역되어 쓰인다.

기본적으로 음역 과정은 외래어 표기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나라의 어종이 섞이거나 영어권 이외의 언어를 차용할 때, 발음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 또한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각각 다른 어종의 발음 표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간도 협약’이 ‘젠타오 협약’을 동의어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음역은 표기법 자체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표 7> 외래어의 음역

예	흔종어	원어 표기	영어 용어	전문 분야
1	가나시니 ^ 시험	<영>Ganassini試驗	「영어」 Ganassini's test	의학
	가드너-병	<영>Gardner病	「영어」 Gardner's disease	
	가라파타-병	<영>garapata病	「영어」 garapata disease	
	가로드 ^ 지구	<영>Garrod指球	「영어」 Garrod's finger-pad	
	가바 ^ 비 ^ 수용체	<영>GABA B受容體	「영어」 GABA B receptos	
	결손 ^ 파지	缺損<영>phage	「영어」 defective phage	
2	에콜로지컬 ^ 안전 ^ 보장	<영>ecological安全保障	「영어」 ecological security	환경
	연속 ^ 믹싱 ^ 플랜트	連續<영>mixing plant	「영어」 continuous mixing plant	
	국제 ^ 에코 ^ 라벨링 ^ 네트워크	國際<영>eco-labelling network	「영어」 Global Ecolabelling Network	
	프리스트레스트 ^ 콘크리트 ^ 보	prestressed concrete보	「영어」 prestressed concrete beam	
3	밴드웨건 ^ 기법	<영>bandwagon技法	「영어」 bandwagon	문화
	고급 ^ 민네	高級<독>minne	「독일어」 hohe Minne	
	남성 ^ 쇼비니즘	男性<영>chauvinism	「영어」 male chauvinism	
	흔 ^ 척도	<영>Horn尺度	「영어」 Horn scale	
4	비사이펀식 트랩	非 < 영 > siphon 式 <영>trap	「영어」 non-siphon type trap	건축
	티그 ^ 용접	<영>TIG溶接	「영어」 tungsten inert-gas arc welding	
	코호트 ^ 패턴 ^ 분석	<영>cohort pattern分析	「영어」 cohort analysis	
	베어링 - 벽	<영>bearing壁	「영어」 load-bearing wall	
	멀티 ^ 프라임 ^ 방식	<영>multi prime方式	「영어」 multi prime	

(1) 가. 가나시니 ^ 시험

가드너-병

가라파타-병

나. 가로드 ^ 지구

다. 가바 ^ 비 ^ 수용체

라. 결손 ^ 과지

(1-가)의 의학 전문 용어들을 살펴보면, 선행 어휘가 음역된 용어이고 후행 어휘가 한자어로 번역된 어휘들이다. ‘가라파타-병(개에 붙은 진드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유명사가 한글로 음역된 어휘들이다. 이들은 후행 어휘를 토대로 ‘시험’과 ‘병명’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1-나)는 ‘Garrod’의 음역과 함께 손바닥의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지구(指球, finger-pad)’가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한자어가 아니다보니 동음이의어의 다른 상용 한자어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

(1-다)는 ‘GABA(glutamic acid decarboxylase)’의 약어를 그대로 다시 발음대로 음역한 경우이다. 약어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음역을 하는데, 하나는 약자의 음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즉 ‘쥐이에이비이에이’처럼 알파벳을 음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약자가 조합된 발음대로 음역하는 경우이다. (1-라)는 선행 어휘가 한자어이다 보니 후행 어휘 음역 발음 ‘파지(phage)’는 원어 표기 없이 보면 어종간의 간섭으로 한자어로 오해하기 쉽다.

(2) 가. 에콜로지컬 ^ 안전 ^ 보장

연속 ^ 믹싱 ^ 플랜트

국제 ^ 에코 ^ 라벨링 ^ 네트워크

나. 프리스트레스트 ^ 콘크리트 ^ 보

(2-가)의 환경 전문 용어 어휘들을 보면, ‘에콜로지컬(ecological)’, ‘믹싱(mixing)’, ‘라벨링(Ecolabelling)’ 등의 ‘-ical’이나 ‘-ing’의 접사 부착 용어들이 있는데 이들을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는 방식은 외래어 접사의 상용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2-나)의 경우 외래어 음역과 고유어로 번역된 경우인데, 외래어와 고유어의 혼종은 서로의 어종이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가. 밴드왜건 ^ 기법

나. 고급 ^ 미네

다. 남성 ^ 쇼비니즘

라. 혼 ^ 척도

(3-가)의 문학 전문 용어는 영어 용어에 오히려 ‘기법’이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혼종어가 된 경우이다. ‘행사, 우세한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bandwagon’을 해석하지 않고 상위 개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3-나)는 독일어의 서정시의 일종인 ‘Minne’를 수식하는 ‘고급’이 합성되어 혼종어가 되었는데, 용어의 의미 해석에 도움을 주려면 상위 개념을 첨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 가. 비사이펀식 트랩

나. 티그 ^ 용접

다. 베어링 - 벽

라. 멀티 ^ 프라임 ^ 방식

(4-가)의 건축 전문 용어를 보면, ‘비(非)’, ‘식(式)’을 제외하고 그대로 음역된 경우이다. 중심 어휘는 모두 외래어로써 혼종어 가운데 외래어에 더 가까운 비중으로 만들어진 경우이다. (4-나)는 앞에서 언급한 약어와의 합성으로 후행 어휘가 상위 개념을 알려주는 것을 제외한 중심 어휘의 정보가 드러나지 못한다. (4-다)는 원어 표기의 ‘load’의 의미를 버리고 ‘wall’만 번역하여 음역과 번역이 합성된 경우이다. (4-라) 고유 명사가 아닌 상용 외래어들이 후행 어휘의 상위 개념어와 합성된 경우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혼종어는 외래어의 일부를 한글 표기화 하는 부분 음역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유 명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외래어가 의미 전사(직역)나 의역이 되지 않고 음역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영어 용어를 함께 살펴본 결과 영어 원어의 번역에서 빠지거나 첨가하는 방식이거나 원어의 일부만 번역하고 중심 어휘는 그대로 음역하여 외래어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혼종어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외래어의 경우 음역이지만 어휘 이해에 방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후행 어휘에 상위 개념이 번역되어 제시된 경우는 용어 유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2.1.2. 부분 한자어 번역

흔종어는 의미의 압축을 위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만들어진다. 용어를 번역할 때는 의미를 가능한 그대로 가져오되 용어의 음절수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 용어에서는 한자어의 의미적 압축이 강점인 조어력으로 인하여 60% 이상 한자어 계로 번역된다.

<표 8> 외래어의 한자어 번역

예	흔종어	원어 표기	영어 용어	전문 분야
1	가워스-속	Gowers束	「영어」 Gowers's tract	의학
	가쪽^돌기	가쪽突起	「영어」 lateral process	
	곤봉-털	棍棒털	「영어」 club hair	
	곤창자^주위^결 합^조직염	곤창자周圍結合組 織炎	「영어」 paraproctitis	
	공터키안^증후군 候群	空<영>Turky鞍症 候群	「영어」 empty sella syndrome	
	관통^아교^섬유^ 다발	貫通阿膠纖維多발	「영어」 perforating collagen fiber bundle	
2	빈배합^콘크리트	貧配合 <영>concrete	「영어」 poor mix concrete	환경
	단부^거푸집	端部거푸집	「영어」 edge form	
	공동^콘크리트^ 블록	空洞<영>concrete block	「영어」 hollow concrete block	
	책임^그룹	責任<영>group	「영어」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	
3	산^제물	산祭物	「영어」 pharmakos	문학
	정교화^가능성^ 모델	精巧化可能性 <영>model	「영어」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협역^스펙트로그 램	狹域 <영>spectrogram	「영어」 narrow-band spectrogram	
4	부재^바꿈법	部材바꿈法	「영어」 method of member substitution	건축
	본-자물쇠	本자물쇠	「영어」 dead lock	
	도성^타일	陶性<영>tile	「영어」 ceramic tile	
	스탠드^세면기	<영>stand洗面器	「영어」 pedestal lavatory	
	걸레받이^방열기	걸레받이放熱器	「영어」 baseboard heater	

(1) 가. 가워스-속

나. 가쪽^돌기

곧봉-털

다. 곧창자^주위^결합^조직염

공터키안^증후군

관통^아교^섬유^다발

(1)의 의학 전문 용어들은 대체로 신체 부위 등의 구체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상용 한자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위 개념을 제외하고 한자어들의 어휘 이해도가 낮다. (1-가)의 ‘束’은 묶는다는 의미로 ‘tract’가 ‘관(管)’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束)’의 음이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는 ‘겉’의 반의어인 동음이의어 ‘속’의 의미가 연상되기 때문에 어휘 이해도에 기여하지 못한다. (1-나)는 영어 용어의 ‘process’의 결과적 의미로 ‘돌기(突起)’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곧봉(棍棒)’ 또한 ‘club hair’의 모양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1-다)는 ‘paraproctitis’와 같이 라틴어 계 영어 용어를 다시 번역한 예이다. ‘공터키안^증후군’도 ‘공(空)’을 의미하는 ‘empty’와 ‘안장(鞍)’ 모양을 의미하는 ‘sella’가 번역되었다. 그러나 선·후행 한자어가 외래어 ‘터키’와 합성되다 보니 한자어의 어휘 이해도가 낮아진다.

(2) 가. 빈배합^콘크리트

단부^거푸집

공동^콘크리트^블록

나. 책임^그룹

(2)의 환경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한자어 조합이 어휘 이해도를 방해하는 어휘들이다. (2-가)에서 ‘빈배합^콘크리트’는 ‘빈배합’의 ‘빈’의 음이 고유어인 ‘속이 빈’의 의미로 더 쉽게 인식되기 때문에 ‘貧配合’의 한자어 조합이 어휘 해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단부(端部)’는 돌출된 끝부분을 의미 하지만 이 또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써 ‘거푸집’의 의미를 보충하여 수식하지 못한다. 또한 ‘공동(空洞)’도 속이 비었다는 의미인데 ‘공동(共同)’의 의미

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선행 어휘들이 후행 중심 어휘의 의미를 도와주지 못한다. (2-나)는 반대로 ‘책임(責任)’의 용어 자체가 영어 용어인 ‘potentially responsible’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한다.

(3) 가. 산^제물

정교화^가능성^모델

나. 협역^스펙트로그랩

(3)의 문학 전문 용어에서 (3-가)는 고유어인 관형형 어미를 적절히 사용하여 속죄양의 의미를 가지는 ‘pharmakos’의 ‘제물’의 의미를 더해 용어가 뜻풀이를 잘 반영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정교화^가능성^모델’은 ‘elaboration likelihood’가 ‘정교화^가능성’으로 표현되었는데 상용 한자어 조합으로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3-나)는 역시 ‘narrow-band’의 음절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협역(狹域)’이라는 한자어의 조합이 자주 쓰는 한자어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휘 이해도는 낮아진다.

(4) 가. 부재^바꿈법

나. 본-자물쇠

다. 도성^타일

라. 스탠드^세면기

마. 걸레받이^방열기

(4)의 건축 전문 용어를 살펴보면, 먼저 (4-가)에서도 ‘부재’가 ‘건축에 쓰이는 구조재’로 읽히기보다는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4-나)의 경우는 ‘dead lock’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로 ‘본(本)’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보태졌다. (4-다)는 ‘도성(陶性)’이 ‘도자기 소재의 성질’을 의미하지만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性’의 의미는 부각되지 못하고 고정된 명사로 읽힌다. (4-라)는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는 ‘pedestal’을 다시 상용 외래어인 ‘stand’로 바꾸어 ‘세면기’와 합성하여 해석하였다. 용어의 어휘 이해도를 고려한 번역으로 보인다. (4-마)는 ‘heater’의 외래어인 ‘히터’로 했을 때 일반적 의미로 인식되

는 점을 고려해 전문적인 기구를 의미하는 ‘방열기’로 번역하였다. 어휘 이해도만을 고려하다가 전문 기구와 일상생활 기구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외래어를 한자어로 번역할 때, 한자어의 일음절마다 들어 있는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유용하지만 대부분 동음이의어 가운데 더 활성화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 의미적인 간섭이 일어나고 다른 맥락의 어휘로 수용될 수 있다. 한자어와는 대부분 고유어와의 결합이 많은 편인데, 외래어와의 합성을 꺼리는 이유는 ‘한자어+외래어’의 어종 유형은 용어가 담고 있어야 하는 의미의 난이도가 대부분 어렵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2.2.1.3. 부분 고유어화

전문 용어 사용자가 우리말 순화에 중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고유어를 삽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지만 현재 잘 쓰이지 않아서 사용량이 적은 고유어는 오히려 실제적인 의미 전달력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9> 외래어의 고유어화

예	흔종어	원어 표기	영어 용어	전문 분야
1	가장자리 ^ 봉쇄	가장자리封鎖	「영어」 border seal	의학
	개방 ^ 여드름집	開放여드름집	「영어」 black head	
	겨드랑 - 선	겨드랑線	「영어」 axillary line	
	구불창자 ^ 주위 염	구불창자周圍炎	「영어」 peri-sigmoiditis	
	구석 ^ 입술염	구석입술炎	「영어」 angular cheilitis	
	궁동 ^ 다리 ^ 태아	궁동다리胎兒	「영어」 ischiomelus	
2	다짐 ^ 계수	다짐係數	「영어」 compacting factor	환경
	누빔 ^ 용접	누빔鎔接	「영어」 stitch welding	
	구형 들보	矩形들보	「영어」 rectangular beam	
	꽃가루 ^ 알레르 기	꽃가루<영>allergie	「영어」 pollinosis	
3	겹 - 주어문	겹主語文	「영어」 double subject sentence	문학
	행머리 - 운	行머리韻	「영어」 alliteration	
4	이음재 ^ 충전기	이음材充填機	「영어」 joint sealer	건축
	물 ^ 홀림판	물홀림板	「영어」 flashing	
	바닥 ^ 고르기 ^ 콘 크리트	바 닥 고 르 기 <영>concrete	「영어」 leveling concrete	
	아치 ^ 거푸집	<영>arch거푸집	「영어」 arch form	
	팻종 ^ 아치	팻종<영>arch	「영어」 ogee arch	
	전동식 체가름 ^ 기계	動力式체가름機械	「영어」 mechanical testing screen	

- (1) 가. 가장자리 ^ 봉쇄
- 나. 개방 ^ 여드름집
- 다. 겨드랑 - 선
- 라. 구불창자 ^ 주위염
- 마. 구석 ^ 입술염
- 바. 궁동 ^ 다리 ^ 태아

(1-가)의 의학 전문 용어는 'border(경계, 둘레)'의 번역에서 '가장자리'는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표현되었다. (1-나)는 'black head'라는 영어 용어를 그

대로 옮기지 않고 용어의 설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방’이라는 대상의 성질을 추가하였고, 대상을 ‘여드름-집’이라는 고유어 합성어로 직접 표현하였다. (1-다)의 ‘겨드랑’은 ‘겨드랑이’와 동의어로 어휘 음절수를 줄이고 고유어를 살려 번역되었다. (1-라)는 ‘sigmoiditis’가 ‘S상결장염’을 뜻하는데 구부러진 ‘S’의 모양을 ‘구불’로 번역하여 어휘 이해도를 높였다. (1-마)는 ‘구각염’으로도 번역되는데, 음절수를 늘이더라도 어휘 이해도를 위해 ‘구석 입술’이라는 표현을 통해 ‘염증의 위치’를 나타내어 표현하였다.

(2) 가. 다짐 ^ 계수

누빔 ^ 용접

나. 구형 들보

다. 꽃가루 ^ 알레르기

(2)의 환경 전문 용어에서는 (2-가)의 ‘다짐 ^ 계수’에서 ‘compacting’의 ‘촘촘해진’의 의미를 ‘다짐’으로, ‘누빔 ^ 용접’의 ‘stitch’를 ‘누빔’의 고유어로 번역했다. (2-나)의 ‘구형(矩形)’ 의미는 ‘모난 모양’을 뜻하며 ‘rectangular(네모형)’의 번역인데, ‘오래된 것’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구형(舊形)’으로 의미 간섭되어 오인되기 쉽다. 또한 ‘beam’은 ‘기둥’을 의미하는데 기둥의 세부 명칭 중 하나인 ‘보’로 표현되었다.²³⁾ (2-다)는 ‘화분증(花粉症)’이라는 한자어로도 번역되는데 음절수는 길지만 ‘꽃가루 알레르기’의 어휘 이해도가 더 높다. 고유어와 활성화된 외래어와의 합성이기 때문이다.

(3) 가. 겹-주어문

나. 행머리-운

(3)의 문학 전문 용어를 살펴보면, (3-가)의 ‘double’의 ‘겹’과 (3-나)의

23) 모든 번역의 순서가 외국어에서 우리말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 원래 존재하는 용어와 영어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말에는 있으나 외래어에는 없는 용어 개념도 있다. 대부분은 외래어의 번역과정의 부산물들인 경우가 많다. 다만 2장의 목적은 혼종어가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혼종어 표제어와 영어 용어 사이에서 번역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alliteration’를 ‘두운법’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머리’로 번역한 소극적인 고유어 번역이 많다.

(4) 가. 이음재 ^ 충전기

물 ^ 훌립판

바닥 ^ 고르기 ^ 콘크리트

나. 아치 ^ 거푸집

팻종 ^ 아치

전동식 체가름 ^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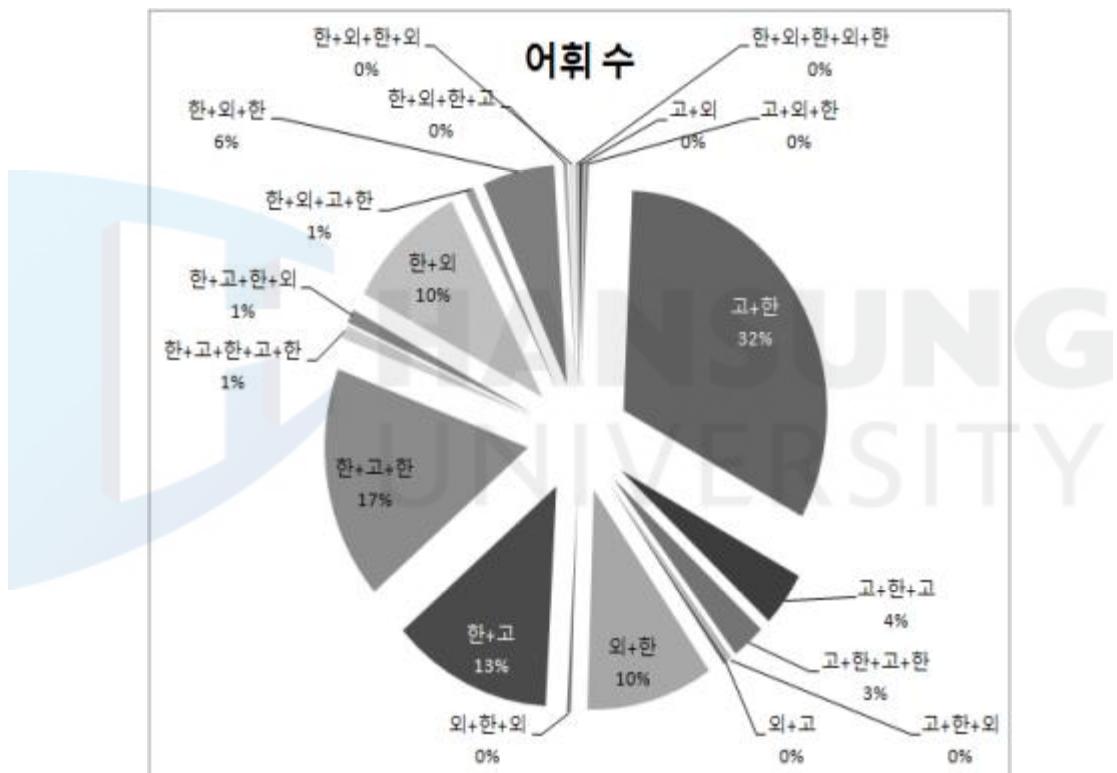
(4)의 건축 전문 용어들은 고유어가 많이 나타난다. (4-가)의 경우, ‘joint’를 ‘이음’으로 번역하였고, ‘flashing’는 비 막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물 훌립’으로 고유어로 번역함과 동시에 의미적 해석을 보충해 주었다. ‘바닥 ^ 고르기’도 ‘leveling’을 의미적으로 보충해 주면서 고유어 조어 방식을 택했다. (4-나)는 ‘form’을 건축 전문 용어에 있던 ‘거푸집’으로 ‘testing screen’을 ‘체가름’으로 번역하였다. 다만 ‘ogee’는 S모양의 곡선 가공을 의미하는데 ‘팻종’이라는 파의 꽂줄기 모양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잘 쓰이지 않는 ‘팻종’이 외래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고유어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유어로 번역된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었거나 과거에 있었던 고유어를 찾아내어 대체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용언의 관형형이나 명사형 어미 등의 통사적 합성어 조어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문제는 고유어인데도 외국어 이상으로 낯선 어휘들이다. 어떠한 용어들은 고유어임에도 외국어로 오인할 수 있는 어감을 지닌 것들도 있다. 또한 잘 쓰지 않는 어휘의 사용은 순화된 고유어라도 용어의 의미 전달을 방해한다.

2.2.2. 혼종어의 어종 유형

2.2.2.1. 의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의학 전문 용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 유형은 아래 <그림 5>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에서 혼종어 어종 유형의 표기는 각각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표기를 각 어종의 첫음절로 표기하였다.



<그림 5> 의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위 <그림 5>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는 ‘고유어+한자어’의 어종 구성 유형이 3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자어+고유어’의 어종 유형 비율 13%까지 합치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 고유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에서 고유어가 선행하는 비율은

39.66%로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음은 위의 그래프를 다시 각각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율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0> 의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의학 전문 용어 어종 유형	어휘 수		비율(%)
고+외	1	300	0.33
고+외+한	1	300	0.33
고+한	96	300	32.00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8	300	2.67
고+한+외	1	300	0.33
합계	119	300	39.66
외+고	1	300	0.33
외+한	30	300	10.00
외+한+외	1	300	0.33
합계	32	300	10.66
한+고	38	300	12.67
한+고+한	51	300	17.00
한+고+한+고+한	3	300	1.00
한+고+한+외	3	300	1.00
한+외	29	300	9.67
한+외+고+한	2	300	0.67
한+외+한	17	300	5.67
한+외+한+고	1	300	0.33
한+외+한+외	1	300	0.33
한+외+한+외+한	1	300	0.33
합계	146	300	48.67

위의 <표 10>을 자세히 보면 각각 선행하는 어종이 고유어로 오는 세부 유형과 선행하는 어종이 외래어로 오는 세부 유형, 선행하는 어종이 한자어로 오는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10>을 통하여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선행 어종 유형을 살펴보면, 고유어가 선행 어종인 경우는 ‘고유어+한자어’ 유형이 32%이고, 외래어가 선행 어종인 경우는 ‘외래어+한자어’ 유형이 10%이다. 한자어가 선행 어종인 경우는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유형이 17.00%로 나타났다.

다음은 의학 전문 용어에서 각각의 어종이 혼종어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각각의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가 혼종어 구성에서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학 전문 용어가 얼마나 순화적 관점을 가지고 용어 번역을 하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의 <표 11>은 외래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11> 의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의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1	300	0.33
고+외+한	1	300	0.33
고+한+외	1	300	0.33
외+고	1	300	0.33
외+한	30	300	10.00
외+한+외	1	300	0.33
한+고+한+외	3	300	1.00
한+외	29	300	9.67
한+외+고+한	2	300	0.67
한+외+한	17	300	5.67
한+외+한+고	1	300	0.33
한+외+한+외	1	300	0.33
한+외+한+외+한	1	300	0.33
합계	89	300	29.65

의학 전문 용어 혼종어에서는 외래어를 포함하는 어종 유형이 29.65%로 다른 전문 용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수의 외래어 음역을 고유어와 상용 한자어로 번역하였다.

다음의 <표 12>는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12> 의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의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1	300	0.33
고+외+한	1	300	0.33
고+한	96	300	32.00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8	300	2.67
고+한+외	1	300	0.33
외+고	1	300	0.33
한+고	38	300	12.67
한+고+한	51	300	17.00
한+고+한+고+한	3	300	1.00
한+고+한+외	3	300	1.00
한+외+고+한	2	300	0.67
한+외+한+고	1	300	0.33
합계	218	300	72.66

고유어를 포함하는 어종 유형은 72.66%이다. 전문 용어 가운데 높은 비율이다. 다만 고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절수가 늘거나 전체적으로 이 유형은 용어이기 보다는 뜻풀이 수준의 설명이 되었다.

(1) 가.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 가슴 ^ 고름집 ^ 척주 ^ 엽굽음증(가슴고름집脊柱 엽굽음症)

나. 한자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 간의 폐쇄성 ^ 바늘 ^ 생검(肝의閉鎖性 바늘生檢)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외래어

： 고저가 없는 한쪽성 ^ 폐쇄 ^ 유발 ^ 삶 ^ 헤르니아

(壞疽가없는한쪽성閉鎖誘發샅<영>hernia)

(1)을 살펴보면, (1-가)의 경우 중심 어휘 '척주(脊柱)'를 제외하고는 고유어로 번역되었으며, (1-나)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한자어로 번역되었고, (1-다)는 용어 내에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가 섞이면서 지나치게 난해한 어휘가 만들어졌다.

다음의 <표 13>은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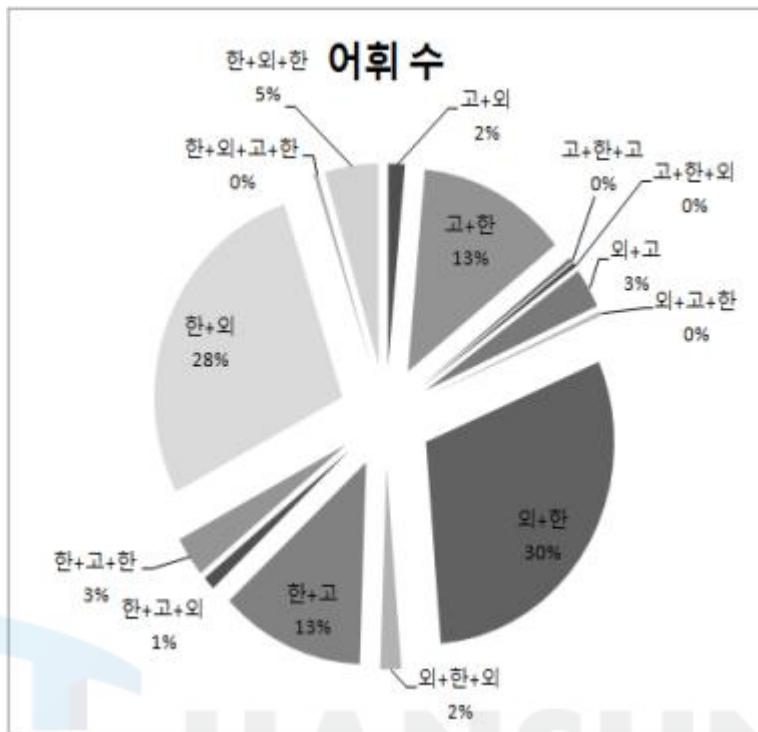
<표 13> 의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의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한	1	300	0.33
고+한	96	300	32.00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8	300	2.67
고+한+외	1	300	0.33
외+한	30	300	10.00
한+고	38	300	12.67
한+고+한	51	300	17.00
한+고+한+고+한	3	300	1.00
한+고+한+외	3	300	1.00
한+외	29	300	9.67
한+외+고+한	2	300	0.67
한+외+한	17	300	5.67
한+외+한+고	1	300	0.33
한+외+한+외	1	300	0.33
한+외+한+외+한	1	300	0.33
합계	294	300	98

한자어를 포함하는 어종 유형은 사실상 98%라는 비율이 말해주듯이 모든 용어에 한자어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한자어의 생산성이 높은 조어력 때문이다.

2.2.2.2. 환경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이 장에서는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환경 전문 용어에 나타나는 어종 유형별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6> 환경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환경 전문 용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 유형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혼종어 어종 유형의 표기는 각각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표기를 각 어종의 첫음절로 표기하였다.

위 <그림 6>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환경 전문 용어에서 ‘외래어+한자어’ 어종 유형 비율이 3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한자어+외래어’ 어종 유형 비율이 28%이다. 이는 환경 전문 용어는 외래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율이 35.59%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4>는 위의 그래프를 다시 각각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율로 작성한 것이다.

<표 14> 환경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환경 전문 용어 어종 유형	어휘 수		비율(%)
고+외	4	281	1.42
고+한	36	281	12.81
고+한+고	1	281	0.36
고+한+외	1	281	0.36
합계	42	281	14.95
외+고	9	281	3.20
외+고+한	1	281	0.36
외+한	85	281	30.25
외+한+외	5	281	1.78
합계	100	281	35.59
한+고	35	281	12.46
한+고+외	3	281	1.07
한+고+한	9	281	3.20
한+외	78	281	27.76
한+외+고+한	1	281	0.36
한+외+한	13	281	4.63
합계	139	281	49.48

환경 전문 용어에서 고유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14.95%이고, 외래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35.59%이며, 한자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49.48%로 나타났다. 앞선 의학 전문 용어에 비해 고유어 선행 어종 비율이 낮고, 외래어 선행 어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15>는 환경 전문 용어에서 각각의 어종이 혼종어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표 15> 환경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환경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4	281	1.42
고+한+외	1	281	0.36
외+고	9	281	3.20
외+고+한	1	281	0.36
외+한	85	281	30.25
외+한+외	5	281	1.78
한+고+외	3	281	1.07
한+외	78	281	27.76
한+외+고+한	1	281	0.36
한+외+한	13	281	4.63
합계	200	281	71.19

의학 전문 용어에서 29.65%이던 외래어 포함 어종이 환경 전문 용어에서는 71.19%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관련 용어들은 환경 관련 정책이나 환경오염 물질의 화학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외래어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순화 관점의 번역이 부족해 보인다.

(2) 가. 외래어+한자어

: 스프레이 ^ 탑(<영>spray塔)

나. 한자어+외래어

: 기체 ^ 퍼지(氣體<영>purge)

(2-가)의 경우는 각각의 어휘들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종이 합성되면서 상위 개념을 알 수 없는 난해한 어휘가 되었다. (2-나) 또한 선행 하는 한자어는 상용되는 어휘이지만 음역된 후행 어휘가 어휘 해석에 방해 요소가 된다.

다음의 <표 16>은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16> 환경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환경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4	281	1.42
고+한	36	281	12.81
고+한+고	1	281	0.36
고+한+외	1	281	0.36
외+고	9	281	3.20
외+고+한	1	281	0.36
한+고	35	281	12.46
한+고+외	3	281	1.07
한+고+한	9	281	3.20
한+외+고+한	1	281	0.36
합계	100	281	35.6

환경 전문 용어에서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은 35.6%로 의학 전문 용어의 72.6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가능한 우리말에 존재하는 고유어 어휘를 찾아서 번역하려는 시도가 약화되어 보인다.

다음의 <표 17>은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17> 환경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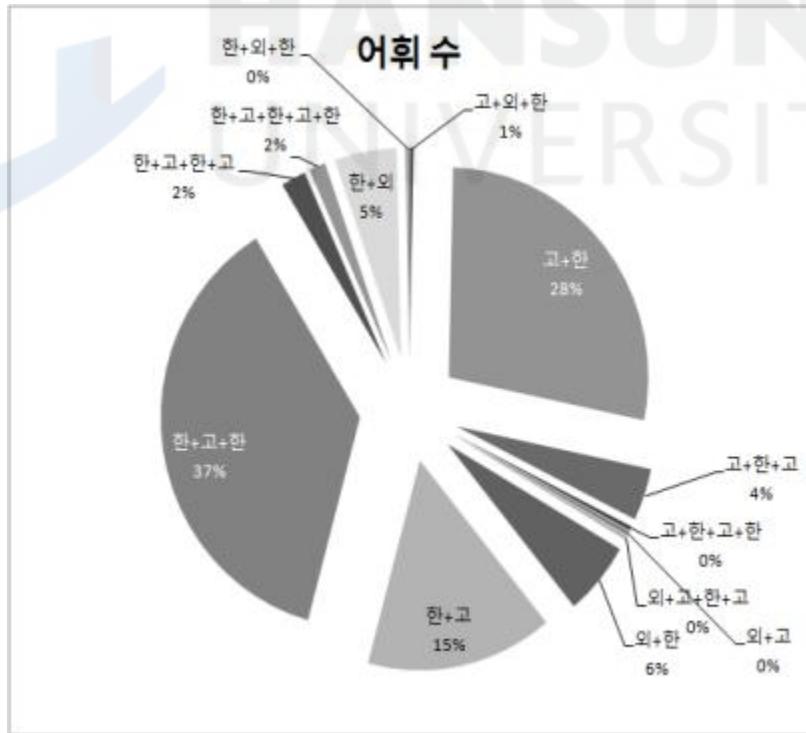
환경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한	36	281	12.81
고+한+고	1	281	0.36
고+한+외	1	281	0.36
외+고+한	1	281	0.36
외+한	85	281	30.25
외+한+외	5	281	1.78
한+고	35	281	12.46
한+고+외	3	281	1.07
한+고+한	9	281	3.20
한+외	78	281	27.76
한+외+고+한	1	281	0.36
한+외+한	13	281	4.63
합계	268	281	95.4

환경 전문 용어의 한자어 포함 어종은 선·후행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 전문 용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유형이 주를 이룬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종의 비율이 아니라 선행 어종으로 시작하는 어종들이 고유어로 치우지지 않고 외래어와 한자어 모두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이다.

2.2.2.3. 문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이 장에서는 문학 전문 용어에서 문학 작품 제목이나 언어적 현상 등의 용어적 특징이 어종 유형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문학 전문 용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 유형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혼종어 어종 유형의 표기는 각각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표기를 각 어종의 첫음절로 표기하였다.



<그림 7> 문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문학 전문 용어에서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어종 유형 비율이 37%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고유어+한자어’ 어종 유형 비율이 28%이다. 이는 문학 전문 용어가 기본적으로 외래어보다는 ‘고유어+한자어’ 구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8>은 위 그래프를 다시 각각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율로 작성한 것이다.

문학 전문 용어 어종 유형	어휘 수		비율(%)
고+외+한	1	300	0.33
고+한	83	300	27.67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1	300	0.33
합계	97	300	32.33
외+고	1	300	0.33
외+고+한+고	1	300	0.33
외+한	17	300	5.67
합계	19	300	6.33
한+고	45	300	15.00
한+고+한	111	300	37.00
한+고+한+고	6	300	2.00
한+고+한+고+한	4	300	1.33
한+외	15	300	5.00
한+외+한	1	300	0.33
합계	137	300	60.66

<표 18> 문학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문학 전문 용어에서 고유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32.33%이고, 외래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6.33%이며, 한자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60.66%로 나타났다. 앞선 의학 전문 용어에 못 미치지만 환경 전문 용어에 비해서는 고유어 선행 어종 비율이 높고, 외래어 선행 어종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전문 용어들에 비해 한자어 선행 어종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자어의 경우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외래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우리말과 어울려 사용하는 국어의 범주에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19>는 문학 전문 용어에서 각각의 어종이 혼종어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표 19> 문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문학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한	1	300	0.33
외+고	1	300	0.33
외+고+한+고	1	300	0.33
외+한	17	300	5.67
한+외	15	300	5.00
한+외+한	1	300	0.33
합계	36	300	11.99

문학 전문 용어에서는 외래어 포함 어종 비율이 낮은 의학 전문 용어의 29.65%에 비해 가장 낮은 11.99%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래어를 포함한 어종 유형에서도 주로 상용되는 외래어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문 용어 자체가 ‘국어국문학’에 바탕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가. 변증적 리얼리즘(辨證的<영>realism)
- 나. 휴머니즘 ^ 문학 ^ 논쟁(<영>humanism 文學論爭)
- 다. 컴퓨터 ^ 소설(<영>computer 小說)

(3)의 어휘들의 외래어 어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어종이며, 상용 어종이 아닌 외래어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고유명사에서 음역된 어휘들이다.

다음의 <표 20>은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20> 문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문학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한	1	300	0.33
고+한	83	300	27.67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1	300	0.33
외+고	1	300	0.33
외+고+한+고	1	300	0.33
한+고	45	300	15.00
한+고+한	111	300	37.00
한+고+한+고	6	300	2.00
한+고+한+고+한	4	300	1.33
합계	265	300	88.32

문학 전문 용어의 혼종어 특징은 고유어를 포함하는 어종이 88.32%로 연구 대상 전문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문학 작품의 제목이 용어로 구분되어 수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외의 용어에서도 고유어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

다음의 <표 21>은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21> 문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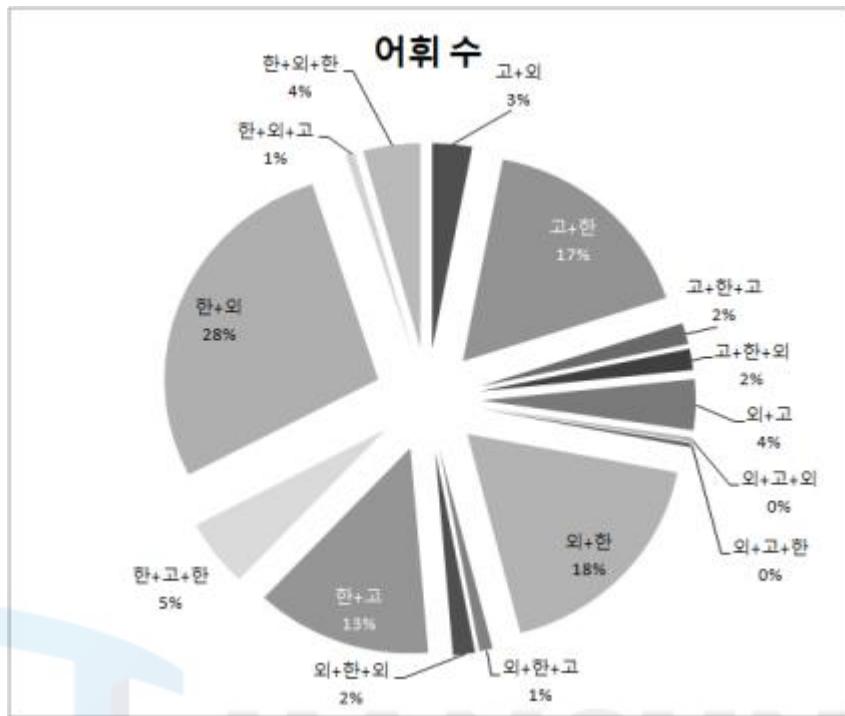
문학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한	1	300	0.33
고+한	83	300	27.67
고+한+고	12	300	4.00
고+한+고+한	1	300	0.33
외+고+한+고	1	300	0.33
외+한	17	300	5.67
한+고	45	300	15.00
한+고+한	111	300	37.00
한+고+한+고	6	300	2.00
한+고+한+고+한	4	300	1.33
한+외	15	300	5.00
한+외+한	1	300	0.33
합계	297	300	98.99

문학 전문 용어에서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은 각 전문 분야별 한자어 포함 어종은 대부분 95%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98.99%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어종 유형이 37%로써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3.2 장에서도 논의하겠지만 그 이유는 혼종어 구성에서 ‘조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고유어+한자어’는 사실상 혼종어로 인식되기보다는 ‘조사가 포함된 한자어’에 가깝다.

2.2.2.4. 건축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 비율

이 장에서는 건축 전문 용어에서 문학 작품 제목이나 언어적 현상 등의 용어적 특징이 어종 유형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건축 전문 용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 유형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혼종어 어종 유형의 표기는 각각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표기를 각 어종의 첫음절로 표기하였다.



<그림 8> 건축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별 어휘 수

위 <그림 8>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건축 전문 용어에서 ‘한자어+외래어’ 어종 유형 비율이 2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외래어+한자어’ 어종 유형 비율이 18%이다. 이는 건축 전문 용어가 기본적으로 국내의 건축 지식에 외래적인 요소가 합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자어+외래어’ 28%가 가장 높은 유형 비율이지만 ‘외래어+한자어’ 18%, ‘고유어+한자어’ 17%, ‘한자어+고유어’ 13%로 특별히 눈에 띄는 선호 유형이 없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전문 용어 가운데 가장 전반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는 건축 전문 용어 혼종어 내에서 우세한 어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22>는 위의 그래프를 다시 각각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선행 어종으로 오는 비율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2> 건축 전문 용어 어종 유형

건축 전문 용어 어종 유형	어휘 수		비율(%)
고+외	9	300	3.00
고+한	51	300	17.00
고+한+고	5	300	1.67
고+한+외	5	300	1.67
합계	70	300	23.34
외+고	12	300	4.00
외+고+외	1	300	0.33
외+고+한	1	300	0.33
외+한	54	300	18.00
외+한+고	3	300	1.00
외+한+외	5	300	1.67
합계	76	300	25.33
한+고	40	300	13.33
한+고+한	16	300	5.33
한+외	83	300	27.67
한+외+고	2	300	0.67
한+외+한	13	300	4.33
합계	154	300	51.33

건축 전문 용어에서 고유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23.34%이고, 외래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25.33%이며, 한자어 선행 어종 유형 비율이 51.33%로 나타났다. 앞선 전문 용어들에 비해서는 고유어 선행 어종 비율과 외래어 선행 어종 비율은 평균적이다. 그러나 한자어 선행 어종 비율은 5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전문 용어들 모두 한자어 선행 어종 비율은 40% 이상으로 전반적인 혼종어 내에서 우세하지만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재래적인 건축 지식이 한자어로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23>은 건축 전문 용어에서 각각의 어종이 혼종어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외래어가 포함된 어종을 살펴보겠다.

<표 23> 건축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건축 전문 용어 외래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9	300	3.00
고+한+외	5	300	1.67
외+고	12	300	4.00
외+고+외	1	300	0.33
외+고+한	1	300	0.33
외+한	54	300	18.00
외+한+고	3	300	1.00
외+한+외	5	300	1.67
한+외	83	300	27.67
한+외+고	2	300	0.67
한+외+한	13	300	4.33
합계	188	300	62.67

건축 전문 용어도 환경 전문 용어와 함께 62.67%로 외래어가 포함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외래어 포함 어종에서도 주로 선행 어휘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4) 가. 외래어+고유어+외래어

: 디젤 ^ 말뚝 ^ 박기 ^ 해머(<영>diesel 말뚝 박기 <영>hammer)

나. 외래어+한자어

: 언더코트 ^ 머캐덤 ^ 공법(<영>undercoat macadam 工法)

다. 한자어+외래어

: 무슬럼프 ^ 콘크리트(無<영>slump concrete)

(4-가)의 경우, 영어 용어의 음역 사이에 ‘말뚝 ^ 박기’라는 고유어를 첨가했는데 그 이유는 어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4-나)는 후행 어휘가 상위 개념을 드러내는 한자어이고, (4-다)의 동의어는 ‘노 ^ 슬럼프 ^ 콘크리트’로 단순히 ‘노(no)’를 ‘무(無)’로 번역한 것이다. ‘무슬럼프(無slump)’는 선행 어휘로 오는 ‘무(無)’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행 어휘 ‘슬럼프’와 합성되어 의미적인 보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미 간섭이 일어나서 ‘슬럼프’의 의미는 부각되지 못한다.

다음의 <표 24>는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24> 건축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건축 전문 용어 고유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외	9	300	3.00
고+한	51	300	17.00
고+한+고	5	300	1.67
고+한+외	5	300	1.67
외+고	12	300	4.00
외+고+외	1	300	0.33
외+고+한	1	300	0.33
외+한+고	3	300	1.00
한+고	40	300	13.33
한+고+한	16	300	5.33
한+외+고	2	300	0.67
합계	145	300	48.33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고유어 포함 어종 비율이 48.33%이다. 의학 분야나 문학 분야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지만 주목할 점은 고유어 어종 유형으로 분류할 때 명사형 어미나 조사로 인한 고유어가 많은데 비하여 건축 전문 용어의 고유어는 명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5) 가. 바탕면 ^ 마감(바탕面마감)

나. 부유 ^ 말뚝 ^ 기초(浮遊 말뚝 기초)

다. 사면 ^ 모임 ^ 지붕(四面 모임 지붕)

(5)를 살펴보면, ‘바탕’이나 ‘말뚝’, ‘지붕’ 등의 고유어가 명사이다. 이는 건축 분야는 외래적인 지식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재래적인 지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25>는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이다.

<표 25> 건축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건축 전문 용어 한자어 포함 어종	어휘 수		비율(%)
고+한	51	300	17.00
고+한+고	5	300	1.67
고+한+외	5	300	1.67
외+고+한	1	300	0.33
외+한	54	300	18.00
외+한+고	3	300	1.00
외+한+외	5	300	1.67
한+고	40	300	13.33
한+고+한	16	300	5.33
한+외	83	300	27.67
한+외+고	2	300	0.67
한+외+한	13	300	4.33
합계	278	300	92.67

건축 전문 용어의 한자어 포함 어종 비율도 관찰 대상 전문 용어들과 같이 높다. 다만 한자어 어종으로 구분된 어휘들 대부분이 의학 전문 분야와 환경 전문 분야보다는 비교적 상용되는 어휘들이다.

지금까지 의학 전문 분야, 환경 전문 분야, 문학 전문 분야, 건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어종 유형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별로 용어의 선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호 어종 유형을 분석하고, 용어의 난이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유형별 선행 어종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전문 용어의 순화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의 어종이 어떤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2.2.3. 혼종어의 조어 유형

이 장에서는 고유어를 만드는 조어 방식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 조어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혼종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형태가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용어를 사용할 때 서술 형태이더라도 용어집으로 수집할 때는 명사형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 혼종어의 조어 유형은 곧바로 어종 유형을 결정한다. 이 연구는 혼종어의 조어 방식을 관찰하여 순화적 관점의 조어 방식을 찾기 위함이다. 용어가 명사형으로 수집되었지만 대부분 후행 어휘는 명사 형태를 띠고 있고 선행 어휘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다.

2.2.3.1. 혼종어 명사+명사 합성 형태 비율

전문 용어로 수집된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명사 합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용어에서 파생된 지식으로 하위 개념의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첨가·합성 방식이기 때문에 ‘명사+명사’ 형태가 72.6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명사+명사’의 두 어종이 합성된 경우지만 둘 이상의 용어가 합성된 경우도 이 범주에 넣기로 한다.

<표 26> 전문 분야별 명사+명사 합성 어휘 수

전문 분야	명사+명사 합성 어휘 수	표본 어휘 수	비율(%)
의학	193	300	64.33
환경	198	281	70.46
문학	229	300	76.33
건축	237	300	79.00
합계	857	1,181	72.53

<표 26>을 보면 분야별 ‘명사+명사’ 합성 형태가 표본 분석 대상에서 72.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 용어의 용어 명명 방식이 주로 명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분야별 ‘명사+명사’의 예를 중심으로 세부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의학 전문 용어의 ‘명사+명사’ 합성 비율은 64.33%로 분석 대상 전문 분야 가운데 가장 낮다. 그 이유는 의학 분야의 지속적인 용어 정비를 통해 음역된 외래어 명사는 어미를 활용한 고유어 조어 방식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1) 가. 고유어+한자어

: 가슴샘 ^ 치료(가슴샘治療)

나. 고유어+외래어

: 거짓 ^ 아나필락시스(거짓<영>anaphylaxis)

다. 한자어+고유어

: 거대 ^ 곧창자(巨大곧창자)

라. 한자어+외래어

: 가공 ^ 콜라겐(加工<영>collagen)

마. 외래어+고유어

: 게랑 ^ 결주머니(Guerin결주머니)

바. 외래어+한자어

: 가나시니 ^ 시험(Ganassini試驗)

(1)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고유어 어종이 있는 (1-가)와 (1-다), (1-마)의 경우 각각 다시 ‘가슴-샘’, ‘곧-창자’, ‘결-주머니’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외래어 어종이 있는 (1-나)는 음역된 ‘아나필락시스’의 적절한 번역이 더 필요해 보이고, (1-라)는 ‘콜라겐’이라는 외래어가 이미 상용되어 일정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 (1-마), (1-바)는 고유 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한자어 어종의 경우는 두음절의 한자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혼종어 ‘명사+명사’ 합성 방식은 여러 어종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두 개의 어휘가 합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환경 전문 용어의 ‘명사+명사’ 합성 비율은 70.46%이다.

(2) 가. 고유어+한자어

: 옆문 ^ 토운선(옆門土運船)

나. 고유어+외래어

: 접시 ^ 리벳(접시<영>rivet)

다. 한자어+고유어

: 예각 ^ 갈고리(銳角갈고리)

라. 한자어+고유어+외래어

: 세계 ^ 물 ^ 포럼(世界물<영>forum)

마. 외래어+고유어

: 플로 ^ 流(<영>flow流)

바. 외래어+한자어

: 크로싱 ^ 교점(<영>crossing交點)

환경 전문 용어의 ‘명사+명사’ 합성 방식도 두 개 어휘의 합성이 가장 많다. 환경 전문 용어는 앞에서 논의했던 어종 유형에서도 외래어의 비중과 선행 어종으로 외래어 어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외래어 명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바)의 경우 ‘크로싱’은 ‘-ing’로 염연히 명사가 아니지만 음역이 되면서 ‘교차’의 의미를 지닌 채 명사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명사+명사’ 범주에 넣었다. 음역으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 명사처럼 인식되어 용어로 굳어지지만 이를 고유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용언의 관형형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크다.

용어의 의미를 유추할 때는 외래어의 음역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 한자어의 경우는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어휘에 기대어 짐작해 보게 된다. (2-가)에서는 ‘옆문’과 배를 의미하는 ‘선(船)’에서 상대적으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고, (2-나)의 ‘접시’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2-다)는 고유어 ‘갈고리’로 전반적인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고, (2-라)는 ‘포럼’을 모르더라도 ‘물’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마)는 ‘값’에 대한 것이며, (2-바)는 비교적 사용량이 많은 ‘크로싱’과 ‘교점’을 통해 대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다음의 문학 전문 용어의 ‘명사+명사’ 합성 비율은 76.33%이다.

(3) 가. 고유어+한자어

: 자리꼼쟁이 ^ 설화(자리꼼쟁이說話)

나. 고유어+한자어

: 맞-상대역(맞相對役)

다. 외래어+고유어

: 오컴의 지우개(Ockham의지우개)

라. 외래어+한자어

: 휴머니즘 ^ 문학 ^ 논쟁(<영>humanism文學論爭)

문학 전문 용어는 ‘명사+명사’ 합성 유형에서 한자어의 쓰임이 가장 활발하다. (3-가)처럼 고전 설화 제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 밖에는 (3-나)의 경우 고유어 ‘맞’과 같이 접두사처럼 기능하는 명사 합성이나, (3-다)의 경우처럼 조사와 결합된 합성어도 있다. 그리고 (3-라)의 ‘휴머니즘’과 같이 고유명사나 특정 사조를 지칭하는 외래어 명사의 경우도 있다.

다음의 건축 전문 용어의 ‘명사+명사’ 합성 비율은 79%로 가장 높다.

(4) 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나. 고유어+외래어

다. 한자어+고유어

라. 한자어+외래어

마. 외래어+고유어

바. 외래어+한자어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전문 분야의 특성상 ‘못’, ‘탱크’, ‘콘크리트’ 등의 구체물들이 용어에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명사’ 합성 유형이 많다. 고유어 명사의 경우, (4-나)와 (4-다)의 ‘이음매’나 ‘물매’는 ‘-매’와 같은 접미사를 통해 명사로 굳어진 용어이다.

2.2.3.2. 일음절 한자 접미사+명사

전문 분야별 혼종어의 형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와 합성된 형태이다. 일음절 한자어 접사는 전문 용어를 구성할 때 접미사로 상위 개념을 표현하거나, 수식할 때 접두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볼 때 ‘일음절 한자어’는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가진 개별 의미로 분류하고 ‘한자어 접사’는 비자립성을 가지고 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표 27> 전문 분야별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명사 합성 어휘 수

전문 분야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명사 합성 어휘 수	표본 어휘 수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명사 합성 비율
의학	77	300	25.67
환경	32	281	11.39
문학	17	300	5.67
건축	7	300	2.33
합계	133	1,181	11.26

<표 27>을 보면 의학 전문 용어가 25.67%로 가장 높고, 건축 전문 용어가 2%로 가장 낮다. 그 이유는 의학 분야에서는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를 통해 상위 개념을 풀이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건축 분야는 구체물이나 장치들을 제시할 때 구체적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음절 한자어보다는 명사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5)는 의학 전문 용어의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합성 어휘들이다.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는 모두 77개 어휘인데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가진 개별 의미의 일음절 한자어는 300개 표본 조사에서는 3개 어휘뿐이다.

(5) 가. 고유어+한자어

 : 가슴 ^ 고름집관(가슴고름집管)

나. 고유어+외래어+한자어

 : 거짓 ^ 포르피린증(거짓<영>porphyrin症)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가성 ^ 침 ^ 과다증(假性침過多症)

라. 한자어+외래어

 : 간접형 빌리루빈(間接型<영>bilirubin)

마. 외래어+한자어

：게르하르트 ^ 시험법(Gerhardt試驗法)

의학 전문 용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음절 한자어²⁴⁾에는 (5-가)처럼 신체 내부의 통로를 의미하는 ‘관(管)’, ‘종(腫)’ 등이 있다. 또한 한자어 접미사는 (5-나), (5-다), (5-바)와 같이 ‘증(症)’, ‘병(病)’, ‘법(法)’, ‘술(術)’이 가장 많다. 좀 더 비자립성을 가진 다른 유형의 한자어 접사는 (5-다)의 ‘성(性)’, (5-라)의 ‘형(型)’과 같이 성질이나 모양을 의미하여 선행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한다.

환경 전문 용어의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합성 비율은 11.39%이다.

(6) 가. 고유어+한자어

：버넷-법(Burnet法)

나. 고유어+한자어

：팽화 슬러지(膨化<영>sludge)

다.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진로 ^ 레버식(進路<영>lever式)

라. 외래어+한자어

：믹싱 ^ 플랜트선(<영>mixing plant船)

환경 전문 용어에서도 방식을 의미하는 ‘법(法)’과 ‘화(化)’, ‘식(式)’ 등이 주로 쓰인다. 일음절 한자어에는 (6-라)와 같이 선박을 의미하는 ‘선(船)’ 등이 있다.

다음으로 문학 전문 용어의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합성 비율은 5.67%이다.

(7) 가. 고유어+한자어

：달력 ^ 비의존적(달曆非依存的)

나. 한자어+고유어

：상대적 틀(相對的틀)

24) 단순히 일음절 한자어와 한자어 접사를 가르기는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자어는 음절 자체로 개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상위 개념으로서 의미적 보충을 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 직접 ^ 높임법(直接 높임法)
- 라.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 행머리-운(行 머리 韻)
- 마. 외래어+한자어
 - : 밴드웨건 ^ 기법(<영>bandwagon 技法)

문학 전문 용어에서도 (7-다)와 (7-마)처럼 방식을 의미하는 한자어 접사 ‘법(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7-가)와 (7-나)와 구 구성을 만드는 ‘적(的)’의 사용이 빈번하다. 또한 일음절 한자어로는 ‘행(行)’과 ‘운(韻)’처럼 특정 문학 전문 용어들이 있다.

다음으로 건축 전문 용어의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합성 비율은 2.33%이다.

- (8) 가. 고유어+한자어
 - : 붙박이형 세면기(붙박이型洗面器)
- 나.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 본-자물쇠(本자물쇠)
- 다. 한자어+외래어
 - : 역벤치식 굴착(逆<영>bench式掘鑿)
- 라. 외래어+한자어
 - : 노즐형 분출구(<영>nozzle型噴出口)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모양을 의미하는 ‘형(型)²⁵⁾’과 방식을 의미하는 ‘식(式)’ 등이 있고, 일음절 한자어에는 (8-나)와 같은 ‘본(本)’ 등이 있다.

2.2.3.3. 용언의 명사형+명사

전문 용어에서 동기화가 결여된 음역이나 한역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기 위

25) 전문 용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한자어 접사 ‘형(形, 型)’은 모양을 의미할 때는 ‘形’이고, 어떤 기능이나 방식을 의미할 때는 ‘型’이다. 그러나 이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 용언의 명사형이 사용되는데 표본 어휘 가운데 8.21%를 차지한다. 용언의 명사형은 선행 어휘가 고유어가 되면서 어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축 전문 용어에서 1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28> 전문 분야별 용언의 명사형+명사 어휘 수

전문 분야	용언의 명사형+명사 어휘 수	표본 어휘 수	용언의 명사형+명사 합성 비율(%)
의학	18	300	6.00
환경	20	281	7.12
문학	10	300	3.33
건축	49	300	16.33
합계	97	1,181	8.21

<표 28>을 보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명사형은 6%로 나타났다. 다음은 의학 전문 분야의 어종 유형별 용언의 명사형 예시이다.

(9) 가. 고유어+한자어

: 가려움 ^ 자반(가려움紫斑)

나. 고유어+한자어+고유어

: 가슴막 ^ 가루 ^ 뿌림(가슴膜가루뿌림)

다. 한자어+고유어

: 각 ^ 파임(角파임)

라. 한자어+고유어

: 교합-굽이(咬合굽이)

마.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공막 ^ 쯔 ^ 밀착술(鞏膜矧密着術)

앞 장의 고유어 포함 어종 유형을 보면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비중은 44%이다. 이 가운데 명사형이 6%인 것은 명사형 어미를 활용하여 고유어를 만드는 방식을 지금까지는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나)와 (9-다)와 같이 ‘-음’으로 용어를 마칠 경우 용어로 고착되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적으로 (9-가)와 (9-마)처럼 선행 어휘에 오거나 중간에 올 경우 용어 형태 그대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 (9-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

용 용어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주로 사용되는 용언의 명사형 어미로는 ‘-기’보다는 ‘-음’이 더 선호된다.

다음으로 환경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명사형은 7.12%로 나타났다.

(10) 가. 고유어+한자어

: 위 ^ 보기 ^ 용접(위보기鎔接)

나. 고유어+외래어

: 물다짐 ^ 머캐덤(물다짐<영>macadam)

다. 한자어+고유어

: 곡선 ^ 흐름(曲線흐름)

라. 한자어+고유어

: 방향 ^ 틀림(方向틀림)

마. 외래어+고유어

: 소켓 ^ 이음(<영>socket이음)

환경 전문 용어에서도 (10-가)의 ‘-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다)와 (10-라)와 같이 일반어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용어들이 전문 분야 전제 없이 사용되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명사형은 3.33%로 나타났다.

(11) 가. 고유어+한자어

: 소리 ^ 이음 ^ 법칙(소리 이음法則)

나. 한자어+고유어

: 행 ^ 넘김(行넘김)

다. 한자어+고유어

: 음운 ^ 없앰(音韻 없앰)

라. 한자어+고유어

: 활음 ^ 덧나기(滑音덧나기)

문학 전문 용어에서도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 구성 유형이 42% 정

도인데 비하여 용언의 명사형의 방식은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가)와 (11-라)에 비하여 (11-나)와 (11-다)는 용어로 기능하기에 온전한 형태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축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명사형은 1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가. 고유어+한자어

: 금힘 ^ 시험(금힘試驗)

나. 고유어+외래어

: 되돌림 ^ 덕트(되돌림<영>duct)

다. 고유어+외래어

: 뽈어 ^ 불이기 ^ 콘크리트(뽑어붙이기<영>concrete)

라.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벽 ^ 마감 ^ 공사(壁마감工事)

건축 전문 용어는 과거의 국내 건축 양식과 기술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고유어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용어의 조어 방식에서도 적극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도 ‘-음’ 어미가 더 사용되었다.

2.2.3.4. 용언의 관형형+명사

앞서 논의한 용언의 명사형과 함께 용언의 관형형도 마찬가지로 고유어를 선행 어종으로 하는 용어 방식을 의미한다.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은 4.9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용언의 관형형은 조사가 함께 첨가되면서 용어가 길어질 수 있고 설명식의 문장형 용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적절히 사용했을 경우 어휘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표 29> 전문 분야별 용언의 관형형+명사 어휘 수

전문 분야	용언의 관형형+명사 어휘 수	표본 어휘	용언의 관형형+명사 합성 비율(%)
의학	7	300	2.33
환경	7	281	2.49
문학	43	300	14.33
건축	1	300	0.33
합계	58	1,181	4.91

<표 29>를 보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의 합성 비율은 2.33%이다.

(13) 가. 고유어+한자어

: 가는^가락증(가는가락症)

나. 고유어+외래어

: 같은^팔^염색체(같은팔染色體)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감염^후^느린맥(感染後느린脈)

라. 한자어+고유어+한자어+외래어

: 괴저가 없는 한쪽성^폐쇄^유발^샅^헤르니아

(壞疽가없는한쪽性閉鎖誘發샅<영>hernia)

위의 (13-가), (13-나), (13-다)를 보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 어미 ‘-ㄴ’이 선호되고 ‘-ㄹ’은 선호되지 않는다. 관형형 어미가 사용된 용어는 상대적으로 명사형 어미에 비해서 발음상 용어로써 사용되기 용이하다. 다만 (13-라)와 같이 용어가 문장형으로 들어나면 실제 사용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

환경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의 합성 비율은 2.49%이다.

(14) 가. 고유어+한자어

: 뜬말뚝^기초(뜬말뚝基礎)

나. 고유어+한자어

： 높은 저조(높은低潮)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외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氣候變化에 關한政府間Panel)

환경 전문 용어에서도 용언의 관형형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여기서도 ‘-ㄴ’이 주로 사용되며 (14-다)의 경우처럼 ‘-에 관한’의 표현이 들어 있는 용어들이 문장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문학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의 합성 비율은 14.33%이다. 전문 분야 가운데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고전 설화 등의 제목이 용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5) 가. 고유어+한자어

：지나친 일반화(지나친一般化)

나. 한자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중간을 배제한 사고(中間을 排除한思考)

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온건한 문맥[^]주의(穩健한文脈主義)

라. 한자어+고유어

：포함된 우리(包含된우리)

마. 한자어+고유어

：수사적인 거짓(修辭的인거짓)

문학 전문 용어에서 주목할 점은 용언의 관형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자어인 용어가 많다는 점이다. (15-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들은 모두 보조 동사의 관형형만 나타날 뿐이다. 문학 전문 용어가 혼종어 내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 전문 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의 합성 비율은 0.33%이다. 표본 조사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6) 가. 고유어+한자어

：접는[^]의자(접는倚子)

나. 고유어+한자어

 : 무른^목재(무른木材)

다. 고유어+한자어

 : 맞댄^접합(맞댄接合)

건축 전문 용어에서는 관형형 어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16)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체물의 용언의 관형형 수식을 받다보니 전문 용어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다소 일반어에 가까운 용어가 되었다. 건축 전문 분야는 고유어 명사가 많고 관형형 보다는 명사형 어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2.3.5. 부사 및 비유적 표현+명사

전문 용어에서는 원어 표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자적 직역 대신 비유적 번역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상의 모양 상태를 나타낼 때 시·청각적 어휘를 활용한 의태어 등의 부사가 사용된다. 그리고 은유와 같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은 용어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전문 용어 혼종어에서는 단지 0.42%의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학 전문 용어의 표본 조사와 대상 혼종어 전체 1,084개 어휘에서 부사+명사의 합성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0> 전문 분야별 부사+명사 및 의태어 합성 어휘 수

전문 분야	부사+명사 합성 어휘 수	표본 어휘	부사+명사 합성 비율(%)
의학	1	300	0.33
환경	0	281	0.00
문학	0	300	0.00
건축	4	300	1.33
합계	5	1,181	0.42

<표 30>을 보면, 의학 전문 용어에서 부사+명사의 합성 비율은 0.33%이다.

(17) 가. 고유어+한자어+고유어

: 가로막^세로칸^오목(가로膜세로칸오목)

나. 고유어

: 구불^잘록^창자(구불잘록창자)

다. 고유어+한자어

: 거꿀-난시(거꿀亂視)

(17-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오목’이 부사로 사용되었다. (17-나)는 혼종어는 아니지만 고유어 ‘거꿀’은 북한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명사이다. 의학 전문 용어에서는 용어를 고유어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북한어에서 차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환경 전문 용어의 표본 조사에서 부사+명사의 합성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음 (18)은 환경 전문 용어 혼종어의 5,143개 어휘 가운데에서 다시 추출한 것이다.

(18) 고유어+한자어+외래어

: 빗형^홈(빗形<영>홈²⁶)←platform

(18)은 ‘빗’의 모양을 나타낸 표현이다.

다음으로 건축 전문 용어의 표본 조사에서 부사+명사의 합성 형태는 1.33%로 나타났다.

(19) 가. 한자어+고유어+외래어+한자어

: 병렬^띄엄^필렛^용접(並列띄엄<영>fillet鎔接)

나. 고유어+한자어

: 기억자-관(ㄱ子管)

다. 고유어+외래어

: 불룩머리^리벳(불룩머리<영>rivet)

(19-가) 경우는 ‘띄엄’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고, (19-나)는 자음의

26) ‘플랫폼’의 잘못된 표기.

모양을 뜻하며, (19-다)는 튀어나온 모양을 의미하는 ‘불룩’을 사용하였다. 부사와 의태어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어휘의 시각적 환기를 통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함축적이면서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

2.2.3.6. 줄임말

줄임말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문 용어 혼종어의 형태 가운데 가장 동기화를 방해하는 조어 방식이다. 일반어에서는 이러한 줄임말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줄임말들을 다시 합성하여 절단어나 혼성어를 만들기도 한다.²⁷⁾ 형태 분석 대상인 의학 전문 용어, 환경 전문 용어, 문학 전문 용어에서의 표본 조사에서는 수치상 드러나지 않았지만 건축 전문 용어에서 0.66% 정도 나타났고 이 장에서는 각각의 전문 용어 혼종어 전체에 나타난 줄임말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31>은 국립국어원(2007)에서 제시한 줄임말의 유형이다.

27) 절단어 또는 자름말은 긴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 끝을 잘라내어 일부가 단어가 된 경우이고 혼성어는 두 단어의 일부를 잘라내어 다시 결합한 혼합어이다. 혼종어가 하나의 완결된 어휘로써 서로 다른 어종이 합성된 것이라면 혼성어는 스모그(smog; smoke+fog)와 같이 같은 어종끼리라도 단어의 일부를 잘라내어 합성되는 형태이다. 물론 혼성어이면서 혼종어인 경우도 있다.

<표 31> 국립국어원(2007)에서 제시한 줄임말 유형과 예시

줄임말 유형	예 시
단축어 (shortened term)	Groupe intergouvernemental des Vingt-quatre sur les affaires monétaires mondiales → Groupe des Vingt-quatre
자름말 (truncation)	autobus, autocar → bus, car métropolitain , décaféné → métro, déca
축약어 (abbreviation)	page → p et cetera → etc.
두음어 (sigle; initial letter)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 S.N.C.F. United Nations → U.N. Chief Executive Officer → C.E.O.
애크로님 (acronym)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 Computer Aided Design → CAD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 laser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radar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nasdaq Constructive Cost Model → COCOMO

전문 용어 혼종어의 줄임말 형태는 주로 외래어 어종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외래어 약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합성되면서 동기화가 약한 용어가 만들어진다.

(20) 가. 외래어+한자어

: 가바^비^수용체(<영>GABA B受容體)_의학 전문 용어

나. 외래어+한자어_환경 전문 용어

: 오스파^협약(<영>OSPAR協約)

다. 외래어+한자어_환경 전문 용어

: 에이치피시^공법(<영>HPC工法)

라. 외래어+한자어_건축 전문 용어

：티그^용접(<영>TIG溶接)

원래 우리말은 특성상 두음절어만 가능하다. 그러나 (20-나)의 ‘오스파’의 경우, ‘Oslo Paris’의 혼성어가 다시 한자어와 혼종어를 이루게 되었다. (20-라)의 ‘티그’의 경우는 영어 용어를 살펴보면 ‘tungsten inert-gas arc welding’에서 ‘tungsten inert-gas’ 줄임말이 애크로님이 되고 다시 이를 음역하여 사용되었다. 본래 ‘불활성^가스^아크^용접’이라는 직역 동의어가 존재하는데 애크로님의 음역은 언어의 경제성을 살렸지만 동기화에서 가장 멀어진 용어 조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다)의 경우는 기본적인 두음어의 음역이고 (20-가)는 애크로님과 두음어와의 합성된 형태이다.

다음의 (21)과 같이 용어의 일부를 잘라낸 자름말도 만들어진다.

(21) 가. 외래어+한자어+외래어_의학 전문 용어

：가도펜테트산^메글루민(<영>←gadopentetic酸<영>meglumine)

나. 외래어+한자어_의학 전문 용어

：감마^리놀레산(<그>gamma<영>←linoleic酸)

다. 한자어+외래어_의학 전문 용어

：엑스-제(<영>←extract劑)

라. 외래어+한자어_문학 전문 용어

：르포^문학(<프>←reportage 文學)

마. 외래어+한자어_건축 전문 용어

：아크릴^유탁액^도료(<영>←acrylic乳濁液塗料)

(21)의 예시들은 모두 외래어의 원어 표기 일부를 잘라낸 뒤 한자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었다. (21-가), (21-나), (21-마)에서 ‘-ic’의 경우는 ‘-과 관련된’, ‘언급된 작용을 하는’으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의 접미사이다. (21-다)와 (21-라)는 용어의 앞부분을 잘라낸 경우이다.

자름말이 용어의 사용을 원활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다시 다른 어종의 어휘와 결합하거나 같은 어종의 어휘와 결합하여 음역이 되면 용어는 그 기의에서 멀어지게 된다.

III. 전문 용어 혼종어의 이해도 조사

이 장에서는 2장의 전문 용어 혼종어의 유형 분석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동기화 정도와 언중 수용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어휘 이해도를 조사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동의어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혼종어 표제어 300개 어휘를 추출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본 어휘를 300개 어휘로 한정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 사전 조사에서 100개 어휘 단위로 나누어 표본 조사를 비교한 결과 각각의 유형별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 의학 전문 용어를 제외하면 동의어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별 표제어 수는 대략 300개 어휘의 규모였다. 표제어가 동의어를 다수 가지고 있으면 해당 어휘들은 번역 상태를 비교하기 쉽다, 그리고 동의어가 많은 용어는 상대적으로 용어 사용이 많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해도 조사는 2장의 표본 조사 분석을 통해 나눈 유형들로써 총 120개 어휘²⁸⁾를 제시어로 하며, 각각 어종 유형 6가지씩 10문항, 조어 형태 5가지씩 10문항, 동의어 비교 3~4가지씩 10문항으로 총 세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순화 방안을 위하여 기존의 전문 용어 혼종어에 나타난 조어 방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언중 수용력을 점검해 보는 데에 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된 유형별 용어들을 제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어휘 이해도 설문 조사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혼종어의 어종 구성별 어휘 이해도 조사이고, 두 번째는 혼종어의 형태별 어휘 이해도 조사, 세 번째는 동의어 형태별 어휘 이해도 조사이다. 어휘 이해도는 곧 용어 자체만을 보았을 때 의미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이는 어떠한 유형을 선호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28) 동의어의 경우는 10문항의 총 35개 어휘이지만 의미상 1개 표제어에 연결된 동의어들이므로 10문항의 10개 용어이다.

3.1. 어종 구성별 어휘 이해도 조사

본 설문 조사는 전문 용어 형성 원칙의 ‘동기화’를 점검하고자 서울 소재 대학생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방식은 어종 유형별 예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장 유추하기 쉬운 용어 순서와 선호도를 점검할 수 있었다. 어종 구성별 어휘 이해도 조사는 전문 용어 중에서 서로 다른 어종의 조합 가운데 어떠한 선·후행 관계의 조합이 선호되고 쉽게 인식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3.1.1. 조사 개요

어종의 유형은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순서를 달리하여 결합되어 혼종어를 이룬다. 따라서 전문 용어 혼종어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언어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실제 전문 용어를 제시하였다.

<표 32> 조사에 제시한 어종 유형

어종 유형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

이 어종 유형 조사는 세부적으로 선행 어휘와 후행 어휘에 어떠한 어종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 그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여 알 수 있는지를 보는 즉 언어 이해도를 알아보는 조사이다. 혼종어에서 어종의 선·후행 위치는 선호도와 난이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설문에서 제시한 어종 조합은 위의 <표 32>와 같이 6가지로 제한하였다. 가능한 조합의 경우의 수

는 6가지 이상이지만 전문 용어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용어의 난이도를 가르는 변수를 고려하여 동일한 어종 조합의 예시를 10가지씩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다음의 <표 33>은 본 조사 내용이다.

<표 33> 어종 유형 조사 방식

조사 일시	조사 도구	조사 방식	조사 대상자
2015년 9월	구글 서베이	어종 유형 6가지 비교 선택 순위 매기기 10항목	서울 소재 남, 여 대학생 100명

조사는 ‘구글 서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전문 용어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아래 <그림 9>는 실제 어종 유형 어휘 이해도 온라인 조사지의 일부이다.



<그림 9> 구글 서베이 어종 유형 고르기

그리고 다음 <표 34>는 <그림 9>의 설문에서 실제 조사된 순위 선택 수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4> 어종 유형 고르기 1번 문항 순위 집계표

어종 유형 고르기 1 순위	[히아투스^ 현상] 선택 수	[끌자리^동사^언어] 선택 수	[음의 길이] 선택 수	[상징^코드] 선택 수	[가짜^히어로] 선택 수	[오컴의 지우개] 선택 수
1위	4	8	60	5	20	6
2위	8	27	14	31	20	4
3위	8	23	12	38	21	6
4위	7	28	12	14	22	11
5위	22	9	2	11	8	44
6위	51	5	0	1	9	2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4>를 자세히 보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개인별로 순위를 매기고 이를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는데 뚜렷한 순위를 드러내는 용어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여러 순위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용어들이 있었다. 결과 집계 방식은 30명 이상의 선택을 받은 순위를 최종 순위로 결정하고 그 이하는 비슷한 선택을 받은 순위와 연결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3.1.2. 조사 항목

본 조사에서 사용한 어휘는 모두 60개 어휘이다. 각각 의학, 환경, 건축, 문학 용어들 가운데 어종 유형을 달리하여 추출하였다. 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조사 어휘 제시어

예	어종 유형	흔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1	고유어+외래어	가로^빔	건축
2	고유어+외래어	기둥^데릭	건축
3	고유어+외래어	한끝^렌치	건축
4	고유어+외래어	한끝^스패너	건축
5	고유어+외래어	물다짐^머캐덤	환경
6	고유어+외래어	거짓^포르파린증	의학
7	고유어+외래어	팟종^아치	건축

8	고유어+외래어	가짜 ^ 히어로	문학
9	고유어+외래어	쓸 수 있는 텍스트	문학
10	고유어+외래어+한자어	거울 ^ 이미지 ^ 규칙	문학
11	고유어+한자어	끝자리 ^ 동사 ^ 언어	문학
12	고유어+한자어	버릇 - 상	문학
13	고유어+한자어	사이시옷 현상	문학
14	고유어+한자어	가위 ^ 더듬자	의학
15	고유어+한자어	겨드랑 - 선	의학
16	고유어+한자어	비늘 ^ 누름대	건축
17	고유어+한자어	흐름 ^ 저항	건축
18	고유어+한자어	위 ^ 보기 ^ 용접	건축
19	고유어+한자어+고유어	띠철근 ^ 기둥	건축
20	한자어+고유어	면상 흐름	환경
21	한자어+고유어	음의 길이	문학
22	한자어+고유어	상대적 틀	문학
23	한자어+고유어	음운 덧나기	문학
24	한자어+고유어	줄 ^ 기초 ^ 파기	건축
25	한자어+고유어	중간 ^ 젤대	건축
27	한자어+고유어	판자 ^ 붙임	건축
28	한자어+고유어	시공 ^ 이음	건축
29	한자어+고유어	복근 ^ 장방형 보	건축
30	한자어+고유어	각 ^ 파임	의학
31	한자어+고유어	경련 ^ 창자막힘	의학
32	한자어+외래어	중합체 ^ 시멘트 ^ 콘크리트	건축
33	한자어+외래어	협역 ^ 스펙트로그램	문학
34	한자어+외래어	상징 ^ 코드	문학
35	한자어+외래어	승강기 ^ 홀	건축
36	한자어+외래어	간성 ^ 포르피리아	의학
37	한자어+외래어	고정 ^ 바이러스	의학
38	한자어+외래어	핵점 ^ 모멘트	건축
39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병렬 ^ 단속 ^ 필렛 ^ 용접	건축
40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외래어	비사이펀식 트랩	건축
41	한자어+외래어+한자어	고로 ^ 슬래그 ^ 잔 ^ 골재	건축
42	외래어+고유어	메타 ^ 이야기	문학
43	외래어+고유어	오컴의 지우개	문학
44	외래어+고유어	콘크리트 ^ 다지기	건축
45	외래어+고유어	슬롯 ^ 구멍	건축
46	외래어+고유어	플레미시 ^ 쌓기	건축
47	외래어+고유어	어스 ^ 드릴 ^ 말뚝	건축
48	외래어+고유어	골드블라트 ^ 집게	의학
49	외래어+한자어	포스트 ^ 텐션 ^ 방식	건축
50	외래어+한자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건축
51	외래어+한자어	케이슨 ^ 기초	건축

52	외래어+한자어	캔틸레버식 가설	건축
53	외래어+한자어	튜더-식	건축
54	외래어+한자어+고유어	슬리브^신축^이음	건축
55	외래어+한자어	히아투스^현상	문학
56	외래어+한자어	초서^연	문학
57	외래어+한자어	오컴의 수정 면도날	문학
58	외래어+한자어+외래어	포스트^식민주의^페미니즘	문학
59	외래어+한자어	게르하르트^시험법	의학
60	외래어+한자어	가워스-속	의학

3.1.3. 조사 결과

전문 용어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순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용어가 목록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는 판가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종 구성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수용·인식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용어 혼종어는 기본적으로 선행 어종과 후행 어종이 어떤 어종으로 오는가에 따라 난이도와 이해도가 결정된다. 또한 어종 유형에 외래어가 포함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해당 어휘의 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어휘의 난이도와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크론 바흐알파계수 값 0.622이다.²⁹⁾

<표 36>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어종 유형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29) 크론 바흐알파계수={항목 개수÷(항목 개수-1)}×{1-(항목변량들의 합÷전체측정 변량)}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신뢰도 지수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문항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각 문항을 하나의 테스트로 간주하고 반응자들이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이 설문 조사의 신뢰도 분석은 설문 조사의 결과값을 토대로 SPSS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부분 인용)

1	고유어+외래어	가로 ^ 빔	건축	1~4위
2	고유어+외래어	기둥 ^ 데릭	건축	5위
3	고유어+외래어	한끝 ^ 렌치	건축	3위
4	고유어+외래어	한끝 ^ 스패너	건축	1위
5	고유어+외래어	물다짐 ^ 머캐덤	환경	5위
6	고유어+외래어	거짓 ^ 포르파린증	의학	4위
7	고유어+외래어	팟종 ^ 아치	건축	6위
8	고유어+외래어	가짜 ^ 히어로	문학	1~4위
9	고유어+외래어	쓸 수 있는 텍스트	문학	1위
10	고유어+외래어+한자어	거울 ^ 이미지 ^ 규칙	문학	1~4위
11	고유어+한자어	끌자리 ^ 동사 ^ 언어	문학	2~4위
12	고유어+한자어	버릇 - 상	문학	3~4위
13	고유어+한자어	사이시옷 ^ 현상	문학	1위
14	고유어+한자어	가위 ^ 너듬자	의학	1~2위
15	고유어+한자어	겨드랑 - 선	의학	1위
16	고유어+한자어	비늘 ^ 누름대	건축	1위
17	고유어+한자어	흐름 ^ 저항	건축	1~2위
18	고유어+한자어	위 ^ 보기 ^ 용접	건축	2~3위
19	고유어+한자어+고유어	띠철근 ^ 기둥	건축	2위
20	한자어+고유어	면상 ^ 흐름	환경	2~3위
21	한자어+고유어	음의 길이	문학	1위
22	한자어+고유어	상대적 틀	문학	2위
23	한자어+고유어	음운 ^ 덧나기	문학	2~4위
24	한자어+고유어	줄 ^ 기초 ^ 파기	건축	3위
25	한자어+고유어	중간 ^ 웨일대	건축	4위
27	한자어+고유어	판자 ^ 불입	건축	1위
28	한자어+고유어	시공 ^ 이음	건축	1위
29	한자어+고유어	복근 ^ 장방형보	건축	2~5위
30	한자어+고유어	각 ^ 파임	의학	1~3위
31	한자어+고유어	경련 ^ 창자막힘	의학	1~3위
32	한자어+외래어	중합체 ^ 시멘트 ^ 콘크리트	건축	3~4위
33	한자어+외래어	협역 ^ 스펙트로그램	문학	6위
34	한자어+외래어	상징 ^ 코드	문학	2~3위
35	한자어+외래어	승강기 ^ 홀	건축	1위
36	한자어+외래어	간성 ^ 포르파리아	의학	6위
37	한자어+외래어	고정 ^ 바이러스	의학	1~3위
38	한자어+외래어	핵점 ^ 모멘트	건축	1~5위
39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병렬 ^ 단속 ^ 필렛 ^ 용접	건축	4~5위
40	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	비사이펀식 트랩	건축	6위
41	한자어+외래어+한자어	고로 ^ 슬래그 ^ 잔 ^ 골	건축	4위

		제		
42	외래어+고유어	메타^이야기	문학	3위
43	외래어+고유어	오컴의 지우개	문학	5위
44	외래어+고유어	콘크리트^다지기	건축	1위
45	외래어+고유어	슬롯^구멍	건축	2위
46	외래어+고유어	플레미시 ^ 쌓기	건축	5~6위
47	외래어+고유어	어스^드릴 ^ 말뚝	건축	3위
48	외래어+고유어	골드블라트 ^ 집개	의학	5~6위
49	외래어+한자어	포스트^텐션^방식	건축	6위
50	외래어+한자어	프리 캐스트 ^ 콘크리트 ^ 포장	건축	5위
51	외래어+한자어	케이슨^기초	건축	5~6위
52	외래어+한자어	캔틸레버식 가설	건축	6위
53	외래어+한자어	튜더-식	건축	4위
54	외래어+한자어+고유어	슬리브^신축^이음	건축	3위
55	외래어+한자어	히아투스 ^ 현상	문학	6위
56	외래어+한자어	초서 ^ 연	문학	5위
57	외래어+한자어	오컴의 수정 면도날	문학	5위
58	외래어+한자어+외래어	포스트 ^ 식민주의 ^ 폐미니즘	문학	3위
59	외래어+한자어	게르하르트 ^ 시험법	의학	6위
60	외래어+한자어	가워스-속	의학	6위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가설들은 고유어 포함 어종 유형이 어휘 이해도에 도움을 주며, 외래어+한자어 구성 유형이 가장 기피하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또한 고유어 어종이 포함되더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는 음역된 외래어와 마찬가지로 어휘 이해도를 떨어뜨리며, 상위 개념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후행할 때 어휘 이해도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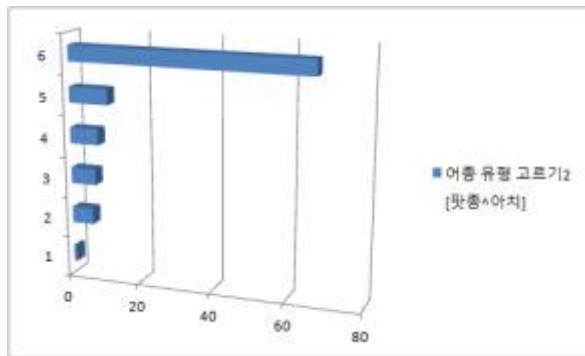
다음은 어종 유형별 순위를 예문별로 살펴본 것이다.

첫 번째로 ‘고유어+외래어’ 어종 유형에서는 높은 순위를 나타낸 용어들은 고유어에 후행하는 외래어가 상용되는 외래어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낸 용어들은 후행하는 외래어가 외국어의 음역에 해당한다.

(1) ⑦ 팟종 ^ 아치

원어 표기: 팟종<영>arch

영어 용어: 「영어」 ogee 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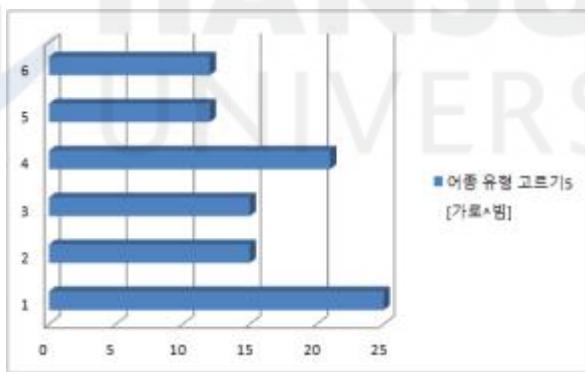
<그림 10> [팟종^아치]의 순위 비교 결과

(1)의 ‘팟종’은 고유어임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67명의 피험자가 6위로 선택하였다.

(2) ① 가로^빔

원어 표기: 가로<영>beam)

영어 용어: 「영어」 cross b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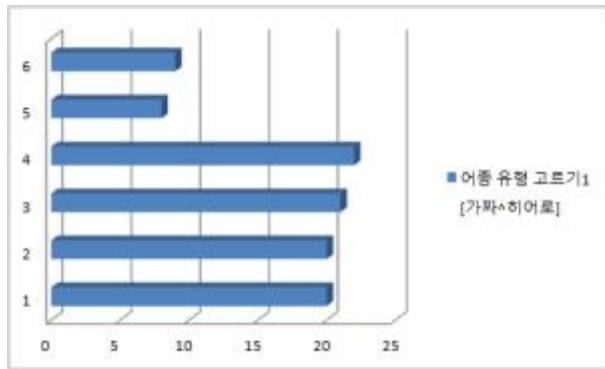
<그림 11> [가로^빔]의 순위 비교 결과

또한 (2)는 25명이 1위, 21명이 4위로 선택하여 ‘1~4위’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는데, 선행하는 고유어가 비교적 쉬워도 (2)는 후행 외래어의 ‘빔’이 음역되어 전체 어휘 이해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3) ⑧ 가짜^히어로

원어 표기: 가짜<영>hero

영어 용어: 「영어」 false h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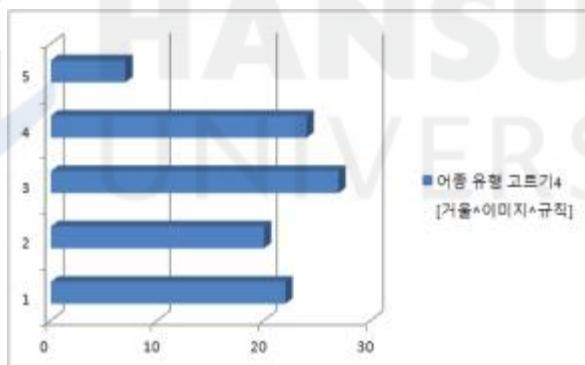


<그림 12> [가짜^히어로]의 순위 비교 결과

(4) ⑩ 거울^이미지^규칙

원어 표기: 거울<영>image規則

영어 용어: 「영어」 mirror image rule



<그림 13> [거울^이미지^규칙]의 순위 비교 결과

(3)과 (4)처럼 용어가 주는 전체적인 의미가 추상적이면서 모호하기 때문에 개별 응답자들이 여러 순위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은 각각 1위에 20명, 2위에 20명, 3위에 21명, 4위에 22명으로 다양한 선택으로 나왔고, (4)도 마찬가지로 1위 22명, 2위 20명, 3위 27명, 4위 24명으로 고른 선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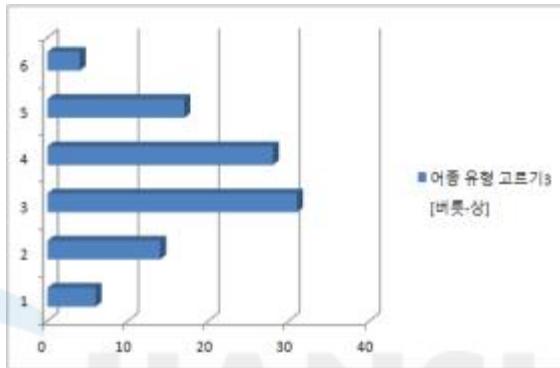
두 번째 ‘고유어+한자어’ 유형은 3위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순위의 분포를 보

인다. 그 이유는 후행하는 한자어들이 ‘선’, ‘대’, ‘저항’, ‘용접’, ‘철근’ 등의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고 선행하는 고유어를 통해 충분히 의미 유추가 가능하다.

(5) ⑫ 벼릇-상

원어 표기: 벼릇相

영어 용어: 「영어」 habitual aspect



<그림 14> [벼릇-상]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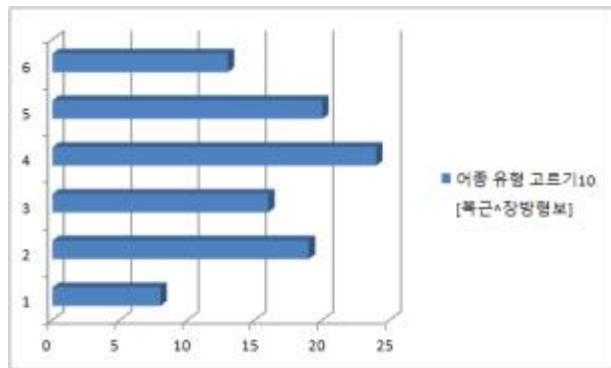
(5)의 경우는 ‘상’이 ‘벼릇’과 결합되었을 때 의미하는 바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다소 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인다. (5)는 3위에 31명, 4위에 28명의 선택을 받았다. (5)의 동의어를 보면, ‘거듭-상’, 습관-상, 반복-상’들이 있는데 뜻풀이의 ‘되풀이되는 모양새’를 의미할 때는 오히려 한자어 ‘반복-상’이 더 어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자어+고유어’ 유형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6) ㉙ 복근^장방형보

원어 표기: 複筋長方形보

영어 용어: 「영어」 double reinforcement rectangular beam



<그림 15> [복근^장방형보]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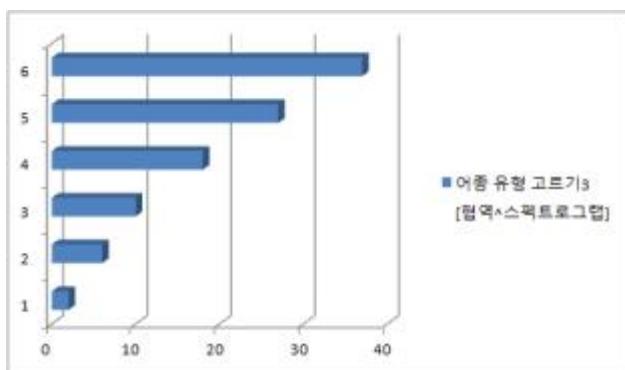
(6)은 이 가운데 가장 넓은 순위 분포대를 보이며 이해도 순위도 다소 저조하다. 4위에 24명, 5위에 20명이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혼종어 내부의 한자어 비중이 높으며, '보'가 일상적인 고유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유형인 '한자어+외래어' 유형은 다소 순위가 저조하다. 또한 여려용어들이 피험자들의 명확한 순위 선택을 받지 못하고 넓은 분포의 순위 범위를 드러내고 있다.

(7) 33 협역 ^스펙트로그램

원어 표기: 狹域<영>spectrogram

영어 용어: 「영어」 narrow-band spectrogram



<그림 16> [협역 ^스펙트로그램]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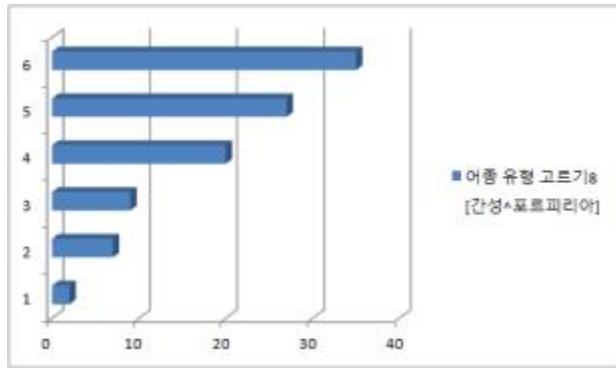
(7)은 37명이 6위로 선택하였는데 선행하는 한자어가 용어의 의미를 직역한

어휘이고, 후행하는 외래어와 연결되어 의미를 유추할 때 방해한다.

(8) 36 간성^포르피리아

원어 표기: 肝性<영>porphyria

영어 용어: 「영어」 hepatic porphy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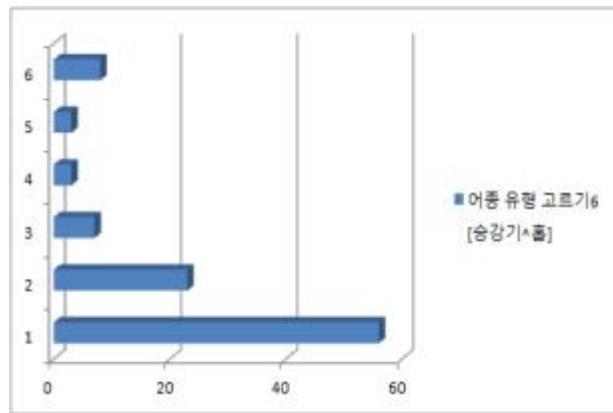
<그림 17> [간성^포르피리아]의 순위 비교 결과

(8)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5명이 6위로 선택하였다. 의미적인 보충을 해주는 ‘성(性)’의 한자어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肝)’과 결합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행하는 용어는 유추할만한 단서 어휘가 없는 외래어 음역이므로 어휘 이해를 방해한다.

(9) 35 승강기^홀

원어 표기: 昇降機<영>hall

영어 용어: 「영어」 elevator lob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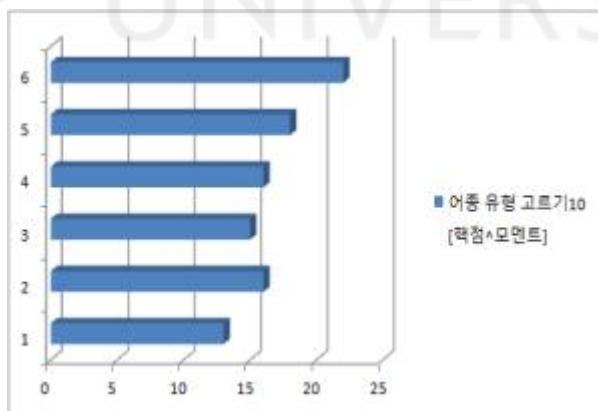
<그림 18> [승강기^홀]의 순위 비교 결과

반면에 (9)는 ‘한자어+외래어’ 어종 유형임에도 56명이 1위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자어 ‘승강기’와 ‘홀’이 개별적인 쓰임이 많기 때문이다. 둘을 결합하였을 때 그 의미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10) ③8 핵점^모멘트

원어 표기: 核點<영>moment

영어 용어: 「영어」 core moment



<그림 19> [핵점^모멘트]의 순위 비교 결과

(10)은 6위로 선택 받았지만 뚜렷한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분포를 보인다. 그 이유는 ‘핵점’과 ‘모멘트’ 둘 다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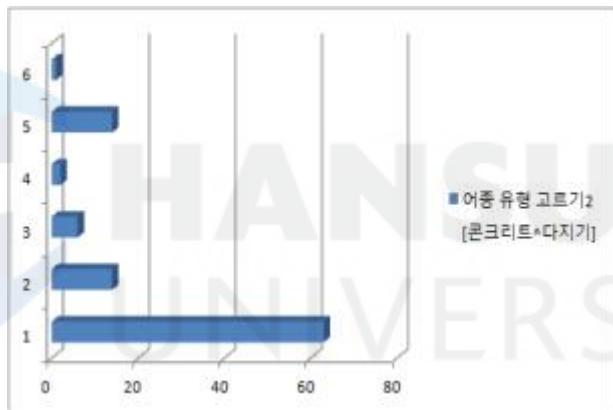
기 때문이다. ‘모멘트’는 건축 용어에서 고빈도로 쓰이지만 그 의미를 순화적으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트’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용어가 함께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모멘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결정되는 근거’의 의미로써 ‘계기’, ‘동기’로 순화하자는 제안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 ‘외래어+고유어’의 경우는 선행하는 외래어 때문에 순위가 내려간 경우이다.

(11) 44 콘크리트 ^다지기

원어 표기: <영>concrete다지기

영어 용어: 「영어」 concrete pla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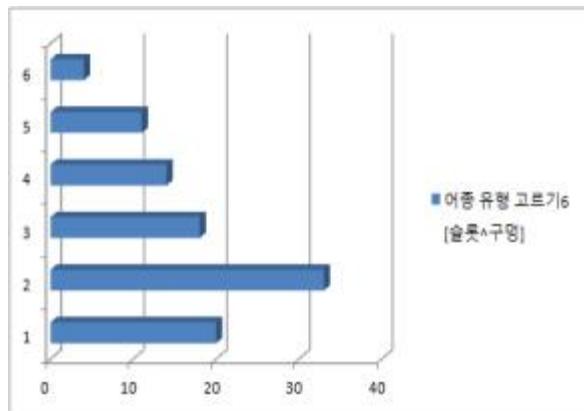
<그림 20> [콘크리트 ^다지기]의 순위 비교 결과

(11)은 ‘외래어+고유어’ 유형에서 63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와 후행하는 고유어 용언의 명사형이 용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12) 45 슬롯 ^구멍

원어 표기: <영>slot구멍

영어 용어: 「영어」 slot 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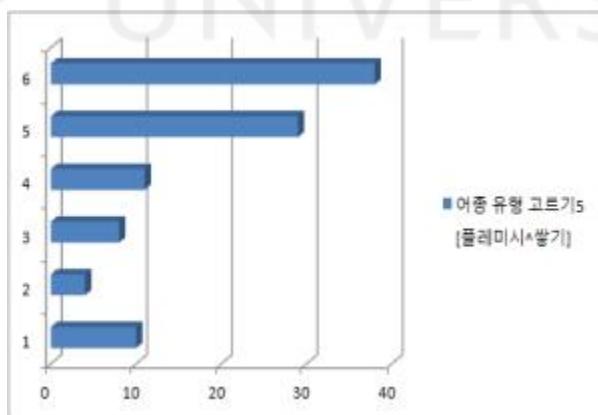
<그림 21> [슬롯^구명]의 순위 비교 결과

(12)도 또한 33명의 선택을 받아 2위라는 높은 순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외래어와 후행하는 고유어 둘 다 우리말로 인식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13) ④6 플레미시 ^ 쌍기

원어 표기: <영> Flemish 쌍기

영어 용어: 「영어」 Flemish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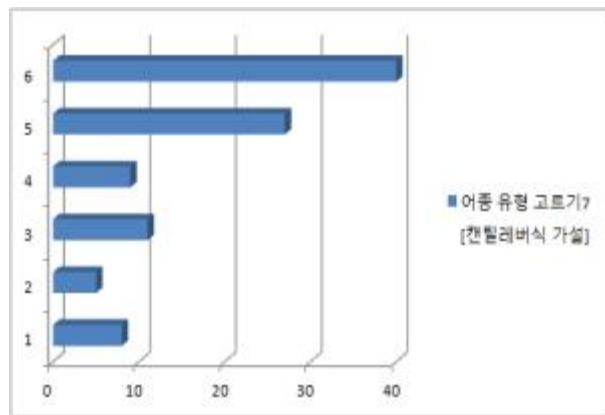


<그림 22> [플레미시 ^ 쌍기]의 순위 비교 결과

(13)은 후행하는 고유어의 용언의 명사형 ‘쌍기’가 오지만 선행하는 명사가 어휘 의미의 중요 요소 자리이다. 그러나 ‘플레미시’는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명으로 외래어 음역은 전체 용어 이해를 방해하므로 5위 29명, 6위 38명으로 5~6위에 저조한 선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형인 ‘외래어+한자어’ 어종 구성 유형은 가장 낮은 순위들을 기록했다.



<그림 23> [캔틸레버식 가설]의 순위 비교 결과

(14) 52 캔틸레버식 가설

원어 표기: <영>cantilever式架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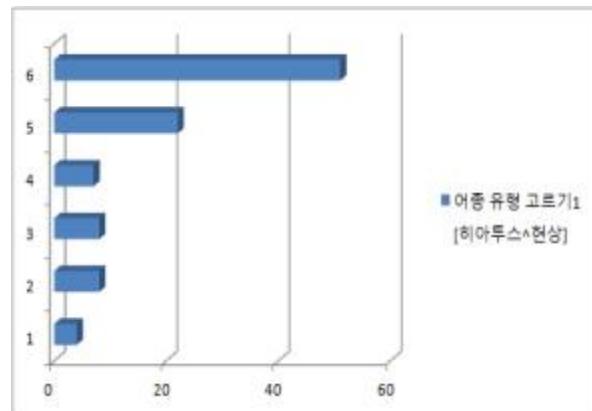
영어 용어: 「영어」 cantilever span

40명이 6위로 선택한 (14)의 경우는 후행하는 피수식어 한자어가 상위 개념을 드러내지만 이 ‘가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음역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래의 (15)도 마찬가지 이유로 51명이 6위를 선택하였다.

(15) 55 히아투스 ^ 현상

원어 표기: <영>hiatus現象

영어 용어: 「영어」 hi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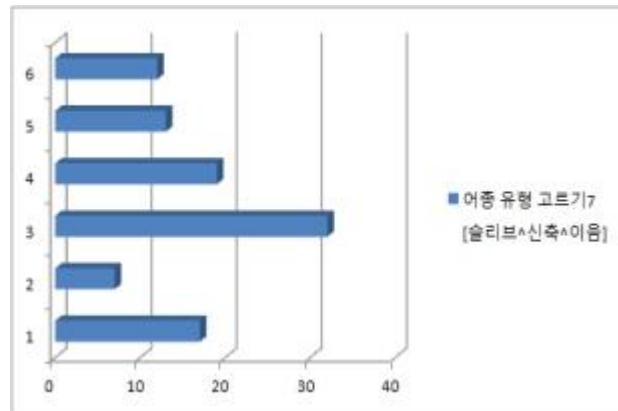
<그림 24> [하아투스^현상]의 순위 비교 결과

대부분이 5~6위로 선택되었는데 ‘수식어+피수식어’인 경우 용어의 특정 의미를 한정하는 자리에 외래어 음역이 오면 어휘 의미에 결정적인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16) 54 슬리브^신축^이음

원어 표기: <영> sleeve 伸縮이음

영어 용어: 「영어」 slip expansion joint



<그림 25> [슬리브^신축^이음]의 순위 비교 결과

(16)은 이 유형에서 32명이 3위로 선택하여 비교적 상위에 순위를 얻었다.

후행하는 한자어와 비교적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인데 용어를 모르는 피험자가 잘 들어났다가 줄어드는 ‘신축(伸縮)’을 집을 새로 짓는 ‘신축(新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행하는 용언의 명사형 ‘이음’과 연결되어 용어를 유추했을 것이다.

3.2. 조어 형태별 어휘 이해도 조사

본 조사는 3장에서 분석하였던 혼종어의 형태별 유형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전문 용어 혼종어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어떠한 유형의 형태가 더 선호되며 어휘 이해도를 높이는지 순위별 예시를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전문 용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외국에서 온 용어를 번역할 때 가능하면 모국어의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용어 자체의 어휘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유어라고 해서 용어의 동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가 포함된 어종 형태 가운데 어휘 이해도의 기여하는 요소를 점검해 볼 것이다.

3.2.1. 조사 개요

<표 37> 조사에 제시한 조어 형태

조어 형태
명사+명사
명사+일음절 한자어 접사
명사+용언의 명사형
명사+용언의 관형형
부사 및 비유적 표현+명사
조사(설명형)

<표 37>의 조어 형태는 2장에서 분석한 조어 유형 그대로 설문 조사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제 용어에서 조어 형태 결합은 선·후행 위치가 바뀌어 제시된 용어들도 있다. 또한 ‘명사+명사’ 유형의 경우 한자어 접사가 포함된 경우를 분리하지 않고 포함된 경우와 섞어서 제시하였다.

<표 38> 조사 방식

조사 일시	조사 도구	조사 방식	조사 대상자
2015년 9월	구글 서베이	어종 형태 5가지 비교 선택 순위 매기기 10항목	서울 소재 남·여 대학생 100명

조사 방식의 실제는 다음의 <그림 26>과 같다.



<표 39> 조어 형태 순위 합계

조사 형태 고르기1 순위	[접는^의자]	[불룩^원두정]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고정^눈썰림]	[눈^현기증]
1위	83	0	3	7	10
2위	5	10	12	37	40
3위	6	7	18	41	28
4위	5	15	55	12	10
5위	1	68	12	3	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조사 형태 순위는 어종 유형보다 분명한 순위 쏠림 현상이 있었다. 고유어를 포함하는 어종 유형 안에서 <표 39>의 형태들은 뚜렷한 조어 형태 선호도가

있었다.

3.2.2. 조사 항목

<표 40> 조어 형태 제시어

예	조어 형태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1	명사+명사	뒤통수^결합^쌍둥이	의학
2	명사+명사	뒤부아^고름집	의학
3	명사+명사	눈알^뒷극	의학
4	명사+명사	부신^곁질^자극^호르몬^방출^인자	의학
5	명사+명사	딴곳^빈맥	의학
6	명사+명사	손등^방향	의학
7	명사+명사	복장뼈^몸통^자루^연골^결합	의학
8	명사+명사	겹질^상피^세포	의학
9	명사+명사	발꿈치^보행	의학
10	명사+명사	지붕^배수	건축
11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현기증	의학
12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구멍^돌출증	의학
13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땀^감소증	의학
14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기중기^운반식 거더^가설법	건축
15	일음절 한자어	우물-통	건축
16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고정^눈떨림	의학
17	용언의 명사형 어미	간^원인대^파임	의학
18	용언의 명사형 어미	비기능^맞물림	의학
19	용언의 명사형 어미	산소^머리^덮개	의학
20	용언의 명사형 어미	미세^눈떨림	의학
21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공막^뚫음	의학
22	용언의 명사형 어미	순간^처짐	건축
23	용언의 명사형 어미	안장^맞춤	건축
24	용언의 명사형 어미	다짐^모래^말뚝^공법	건축
25	용언의 명사형 어미	부분^닮음	문학
26	용언의 명사형 어미	음운^덧나기	문학
27	용언의 관형형 어미	느린^근	의학
28	용언의 관형형 어미	닫힌^사고	의학
29	용언의 관형형 어미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제	의학
30	용언의 관형형 어미	높은^곳^현기증	의학
31	용언의 관형형 어미	두통^없는^편두통	의학
32	용언의 관형형 어미	깊은^부분	의학
33	용언의 관형형 어미	무른^목재	건축
34	용언의 관형형 어미	접는^의자	건축
35	용언의 관형형 어미	솟는^상태	건축

36	용언의 관형형 어미	온건한 문맥 ^ 주의	문학
37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단단 ^ 뼈종	의학
38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거꿀-난시	의학
39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사마귀 ^ 모양 ^ 결핵	의학
40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샘 ^ 모양 ^ 낭암종	의학
41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나비형 발진	의학
42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고리 ^ 쇄장	의학
43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접시머리 ^ 리벳	건축
44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꽃 ^ 플레이너	건축
45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룩 ^ 원두정	건축
46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머리-어	문학
47	조사	간의 폐쇄성 ^ 바늘 ^ 생검	의학
48	조사	기능의 국재화	의학
49	조사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문학
50	조사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문학

2장에서 논의한 형태 가운데 용어의 동기화에 기여하는 요소로써 위의 형태들을 점검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용어를 선택받을 때 위의 요소들과 다른 변인들이 작용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의 세부 예문 분석을 통해 형태의 상대적인 선호도와 어휘 이해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3.2.3. 조사 결과

<표 41> 형태별 순위 결과

예	조어 형태	흔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1	명사+명사	뒤통수 ^ 결합 ^ 쌍둥이	의학	1위
2	명사+명사	뒤부아 ^ 고름집	의학	5위
3	명사+명사	눈알 ^ 뒷극	의학	2, 4위
4	명사+명사	부신 ^ 겉질 ^ 자극 ^ 호르몬 ^ 방출 ^ 인자	의학	5위
5	명사+명사	딴곳 ^ 빈맥	의학	4~5위
6	명사+명사	손등 ^ 방향	의학	1위
7	명사+명사	복장뼈 ^ 몸통 ^ 자루 ^ 연골 ^ 결합	의학	4~5위
8	명사+명사	껍질 ^ 상피 ^ 세포	의학	2~4위
9	명사+명사	발꼽치 ^ 보행	의학	2~3위
10	명사+명사	지붕 ^ 배수	건축	2위
11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 ^ 현기증	의학	2위
12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구멍 ^ 돌출증	의학	1~2위

13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땀^감소증	의학	2위
14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기중기^운반식 거더^가설법	건축	5위
15	일음절 한자어	우물-통	건축	1위
16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고정^눈멀림	의학	2위
17	용언의 명사형 어미	간^원인대^파임	의학	4위
18	용언의 명사형 어미	비기능^맞물림	의학	3~4위
19	용언의 명사형 어미	산소^머리^덮개	의학	1~2위
20	용언의 명사형 어미	미세^눈멀림	의학	1위
21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공막^뚫음	의학	2~3위
22	용언의 명사형 어미	순간^처짐	건축	1위
23	용언의 명사형 어미	안장^맞춤	건축	1~2위
24	용언의 명사형 어미	다짐^모래^말뚝^공법	건축	2~5위
25	용언의 명사형 어미	부분^닮음	문학	1위
26	용언의 명사형 어미	음운^덧나기	문학	3~4위
27	용언의 관형형 어미	느린^근	의학	3~5위
28	용언의 관형형 어미	닫힌^사고	의학	1위
29	용언의 관형형 어미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 제	의학	3~5위
30	용언의 관형형 어미	높은^곳^현기증	의학	1위
31	용언의 관형형 어미	두통^없는^편두통	의학	1위
32	용언의 관형형 어미	깊은^부분	의학	1위
33	용언의 관형형 어미	무른^목재	건축	1위
34	용언의 관형형 어미	접는^의자	건축	1위
35	용언의 관형형 어미	솟는^상태	건축	1~3위
36	용언의 관형형 어미	온전한 문맥^주의	문학	3~5위
37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단단^뼈종	의학	2~3위
38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거꿀-난시	의학	2~5위
39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사마귀^모양^결핵	의학	2~3위
40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샘^모양^낭암종	의학	2~4위
41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나비형 발진	의학	3~5위
42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고리^췌장	의학	2~4위
43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접시머리^리벳	건축	5위
44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꽃^플레이너	건축	3~5위
45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룩^원두정	건축	4~5위
46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머리-어	문학	1~4위
47	조사	간의 폐쇄성^바늘^생검	의학	3~5위
48	조사	기능의 국제화	의학	4~5위
49	조사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문학	4위
50	조사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문학	5위

위 설문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몇몇의 크론 바흐알파계수 값 0.602이다. 지금부터 혼종어의 형태별 순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본 조사에서는 어휘의 형태가 어휘 이해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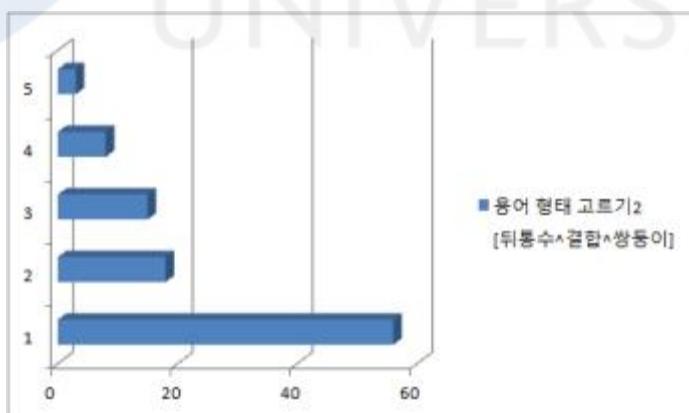
위해 형태 유형별로 보기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2장에서 분석한 혼종어의 형태들 가운데 ‘부사 및 비유적 표현’이 가장 어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측했었다. 그러나 순위 결과는 오히려 특정 순위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순위에 걸쳐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고유어+한자어’ 어종 유형에 나타난 부사 및 비유적 표현이 용어의 난이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용어의 동기화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후행하는 어휘와 함께 이해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전문 용어에 사용할 만한 익숙한 고유어 명사가 많지 않고 고유어의 조어 유형 가운데 제시한 유형들이 어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점검해 볼 것이다. 첫 번째 ‘명사+명사’ 유형에는 용어의 길이가 관건이다. 전문 용어 혼종어의 70% 이상이 ‘명사+명사’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결국 고유어가 선형 어휘로 오는지 여부와 길이가 순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① 뒤통수^결합^쌍둥이

원어 표기: 뒤통수_{結合}雙_동이

영어 용어: 「영어」 miodymus



<그림 27> [뒤통수^결합^쌍둥이]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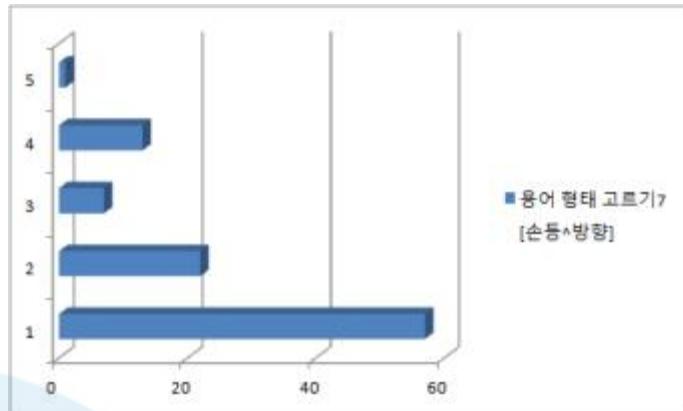
(1)은 ‘명사+명사’ 유형에서 56명의 피험자가 1위로 선택하였다. 동의어인 ‘후두^결합체’를 보았을 때 순화된 용어로 보이며 이를 피험자의 선택으로 얻

중 수용력이 확인되었다.

(2) ② 한국어 용어: 손등^방향

원어 표기: 손등方向

영어 용어: 「영어」 palmodorsal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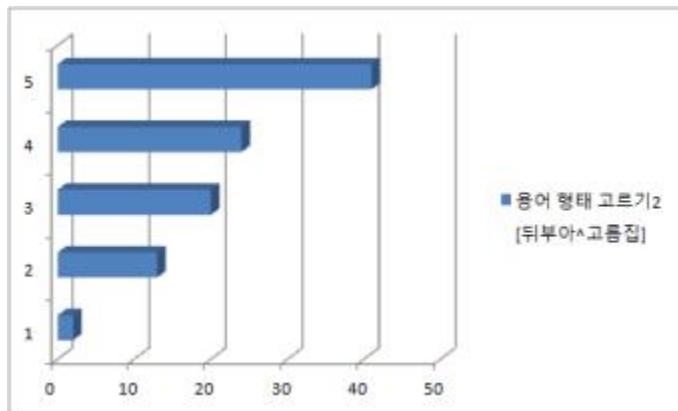
<그림 28> [손등^방향]의 순위 비교 결과

(2)는 57명의 피험자가 1위로 선택하였는데 선·후행 어휘 모두 일반어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동의어인 '장배^방향'을 볼 때 한자어에서 순화되어 혼종어가 된 경우이다.

(3) ⑥ 뒤통아^고름집

원어 표기: Dubois고름집

영어 용어: 「영어」 Dubois abs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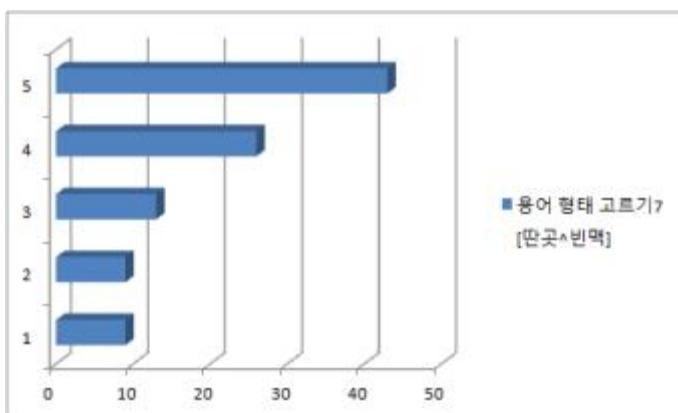
<그림 29> [뒤부아^고름집]의 순위 비교 결과

(3)은 41명이 5위로 선택하였는데 선행하는 ‘뒤부아’가 외래어 고유 명사의 음역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어인 ‘뒤부아^농양’을 보았을 때 후행하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었다. 이는 순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4) ⑤ 딴곳 ^빈맥

원어 표기: 딴곳 頻脈

영어 용어: 「영어」 ectopic tachycardia



<그림 30> [딴곳^빈맥]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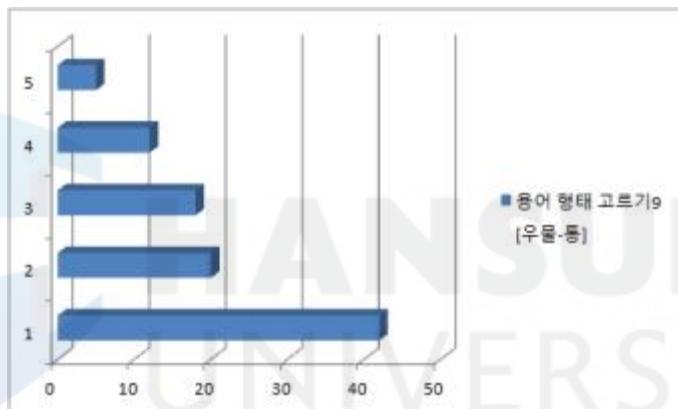
(4)는 43명이 5위로 선택하였는데 ‘다른’의 의미인 관형사 ‘딴’을 활용하여

만든 합성어 ‘딴곳’으로 ‘관형사+명사’의 구성이다. 동의어 ‘딴곳 ^ 빠른맥’과 비교하면 한자어 ‘빈맥’을 다시 용언의 관형형과 명사의 결합으로 합성어를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한자어 접사+명사 또는 일음절 한자어+명사’ 유형은 사실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 조사에서 다른 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다만 용어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진 보기들 제외하고 대부분 높은 순위 선택을 받았다.

(5) ⑯ 우물-통

원어 표기: 우물筒

영어 용어: 「영어」 open caisson, 「영어」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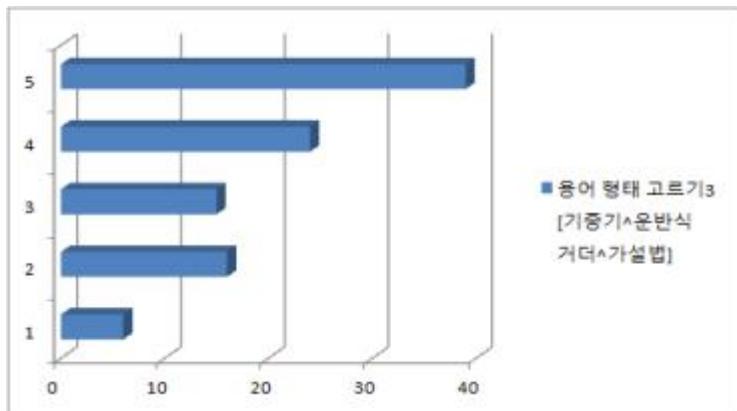
<그림 31> [우물-통]의 순위 비교 결과

(5)의 건축 전문 용어는 42명이 1위를 선택하였다. 영어 용어가 ‘well(우물)’인데 여기에 ‘관’을 의미하는 일음절 한자어 ‘통(筒)’을 결합시킨 방식이다. 뜻풀이로 보았을 때 ‘우물과 같은 기능의 통’ 정도로 내용을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삼음절로 표현함으로써 언중 수용력을 높였다.

(6) ⑭ 기중기 ^ 운반식 ^ 거더 ^ 가설법

원어 표기: 起重機運搬式<영>girder架設法

영어 용어: 「영어」 girder erection by crane



<그림 32> [기중기^운반식^거더^가설법]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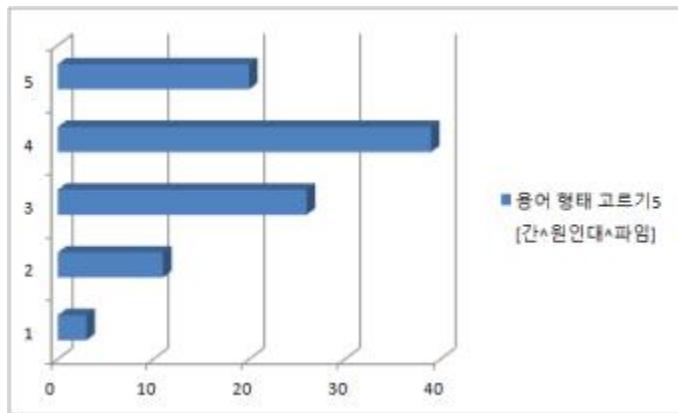
(6)은 39명이 5위로 선택하였는데 우선 4개의 어휘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용어가 길고 외래어 음역 ‘거더’가 어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상위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어 접미사 ‘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세 번째 ‘명사+용언의 명사형’ 유형은 3장의 형태 분석에서도 순화적 차원에서 적용해 볼 만한 조어 방식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용언의 명사형은 후행에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 어휘가 용어의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자리이다. 따라서 선행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 후행 어휘가 고유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선택받지 못하였다.

(7) 18 간^원인대^파임

원어 표기: 肝圓韌帶파임

영어 용어: 「영어」 notch for ligamentum te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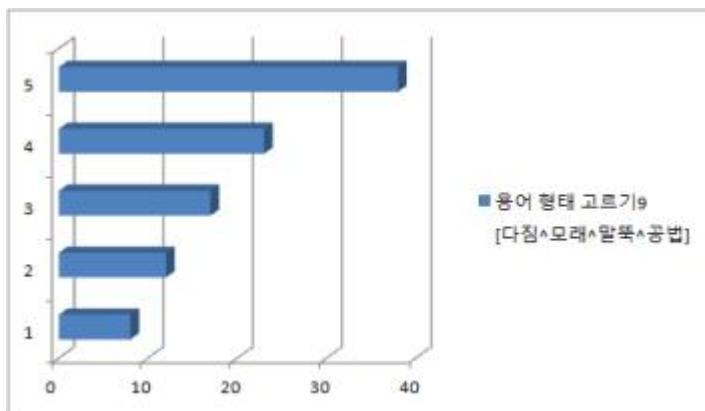
<그림 33> [간^원인대^파임]의 순위 비교 결과

(7)은 39명이 4위로 선택하였는데 아마도 둥글고 질기다는 의미의 한자어 결합인 ‘원인(圓韌)’을 동음이의어 ‘원인(原因)’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용어 전체의 해석이 모호해진다. 다만 동의어 ‘간^원삭^절흔’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후행 어휘가 분명히 용어의 난이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8) ㉕ 다짐^모래^말뚝^공법

원어 표기: 다짐모래말뚝工法

영어 용어: 「영어」 sand compaction pile method



<그림 34> [다짐^모래^말뚝^공법]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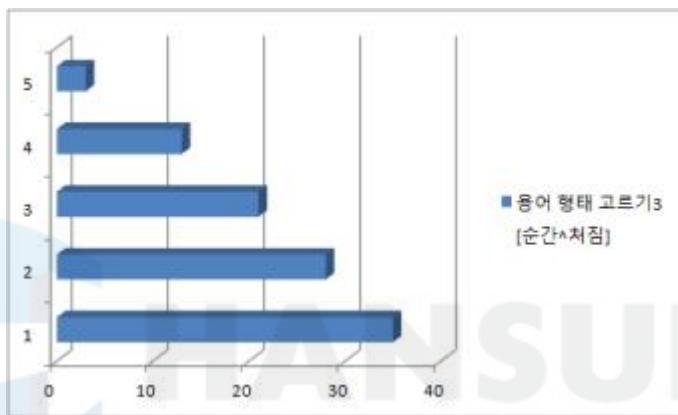
(8)은 38명이 5위로 선택하였는데 보기 가운데 용언의 명사형이 선행 어휘

로 온 경우이다. 후행 어휘에는 한자어 접사 ‘법’이 상위 개념도 표시해주고 있지만 용어의 길이가 4개 어휘의 결합으로 길기 때문에 낮은 순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어 ‘샌드▲콤팩션▲파일▲공법’과 비교했을 때 선행의 3개 어휘는 고유어화를 했지만 언중 수용력은 약했다.

(9) ㉓ 순간^처짐

원어 표기: 瞬間처짐

영어 용어: 「영어」 instantaneous deflection



<그림 35> [순간^처짐]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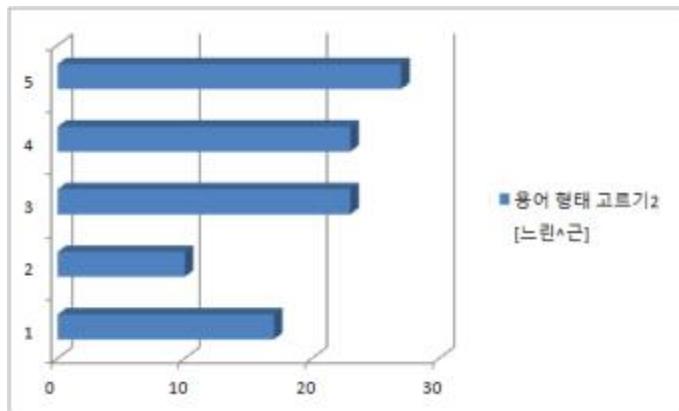
(9)는 35명이 1위를 선택하였다. (9)는 건축 전문 용어라는 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될 만큼 쉬운 표현이다.

네 번째 ‘용언의 관형형+명사’ 유형은 용어의 형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 분포를 보인다. 우선 수식을 하는 선행 어휘가 대부분 용언의 관형형이 오는 고유어로써 피수식어를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 동사의 관형형으로 인해 어휘 이해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10) ㉘ 느린^근

원어 표기: 느린筋

영어 용어: 「영어」 slow mus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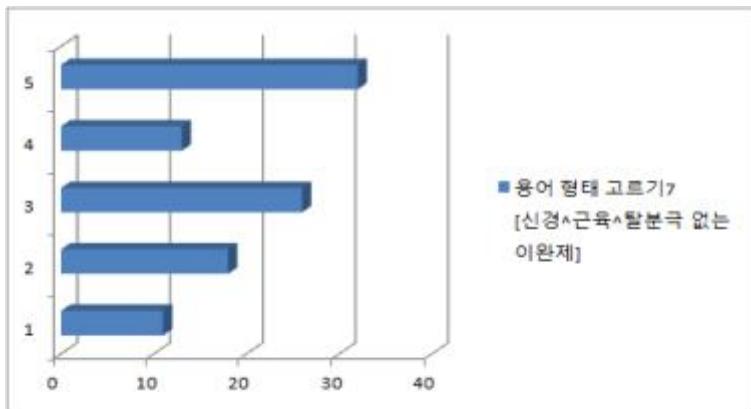
<그림 36> [느린^근]의 순위 비교 결과

(10)은 3위 23명, 4위 23명, 5위 27명으로 3~5위의 분포를 보인다. 그 이유는 피수식어 ‘근(筋)이 느린다’는 표현이 익숙한 수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의어 ‘지근’의 고유어화를 통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다.

(11) 30 신경^근육^탈분극^없는^이완제

원어 표기: 神經筋肉脫分極 없는弛緩劑

영어 용어: 「영어」 neuromuscular nondepolarizing agents



<그림 37> [신경^근육^탈분극^없는^이완제]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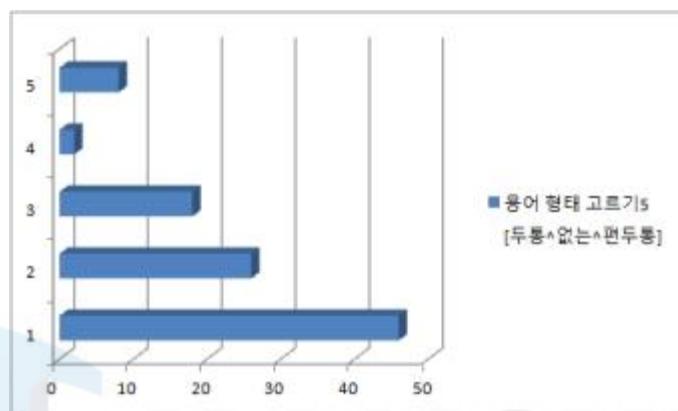
(11)은 32명이 5위로 선택하였는데 원어 표기를 보아 실제적으로 한자어에

가까운 혼종어이다. 동의어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풀림제'와 같이 '이완'을 '풀림'으로 어종 변환하여 난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보였다.

(12) ⑩ 두통^없는^편두통

원어 표기: 頭痛 없는 偏頭痛

영어 용어: 「영어」 acephalic migra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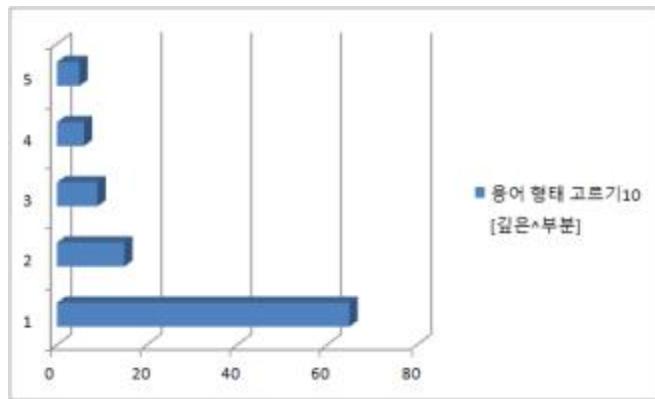
<그림 38> [두통^없는^편두통]의 순위 비교 결과

(12)의 경우는 반대로 46명이 1위로 선택하였다. '두통'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3) ⑪ 깊은^부분

원어 표기: 深은部分

영어 용어: 「영어」 deep part of orbicularis oculi muscle



<그림 39> [깊은^부분]의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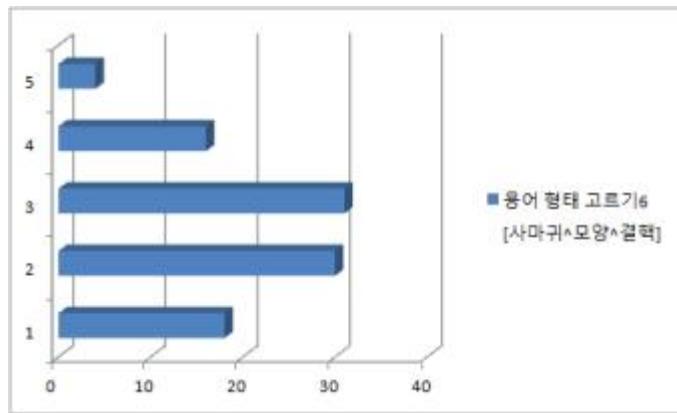
(13)은 65명이 1위로 선택하였다. 영어 용어를 살펴보면 용어의 일부를 절단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어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용어의 난이도는 낮아졌다. 오히려 동의어 ‘눈물주머니^부분’이 더 용어의 이해를 높인다.

다섯 번째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유형은 용어의 음절수를 줄이면서 부사나 의태어, 어근 등의 형태로 용어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용어의 형태 분석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지만 피험자들은 전체적인 용어 이해도가 가설에 못 미치는 순위 결과를 보여주었다.

(14) ⑩ 사마귀^모양^결핵

원어 표기: 사마귀 模樣結核

영어 용어: 「영어」 warty tubercul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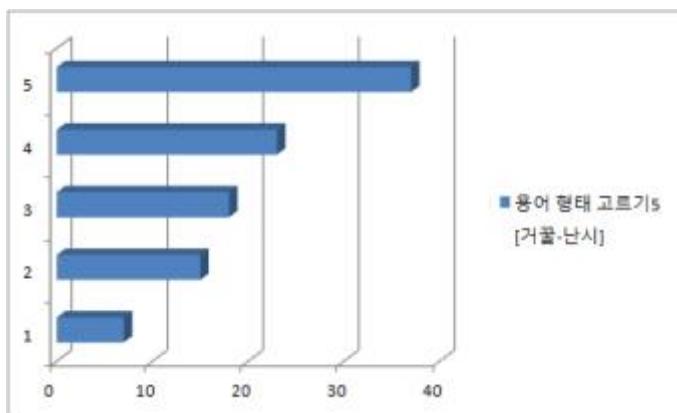
<그림 40> [사마귀^모양^결핵]의 순위 비교 결과

(14)는 2위에 30명, 3위에 31명이 선택하였다. 후행 어휘에 병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마귀’ 모양은 일반적인 어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지는 않는 어휘이다. 동의어 ‘사마귀^모양^피부^결핵’을 보았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곤충’을 의미하는 사마귀와 ‘작은 좁쌀 모양의 군살’을 의미하는 사마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15) ㊲ 거꿀^난시

원어 표기: 거꿀亂視

영어 용어: 「영어」 astigmatism against the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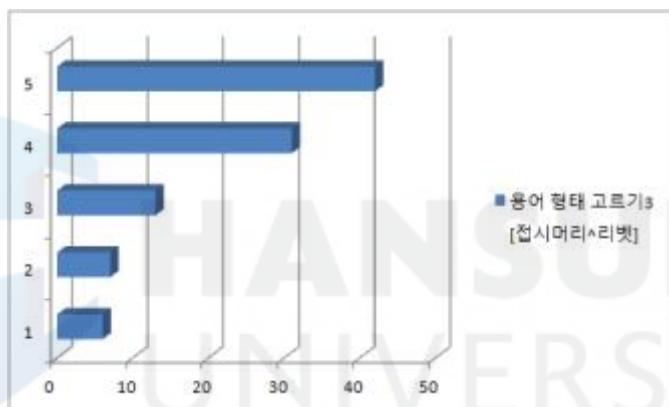
<그림 41> [거꿀^난시]의 순위 비교 결과

(15)는 37명이 5위를 선택하였다. 3장의 형태 분석에서도 논의하였지만 ‘거꿀’이 북한어로써 ‘거꾸로’의 의미를 담은 어휘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후행하는 ‘난시’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난시’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또한 뜻풀이를 비추어 볼 때, ‘상이 거꾸로 보이는’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동기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어 ‘도-난시’에서 단순한 고유어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6) ⑯ 머리-어

원어 표기: 머리語

영어 용어: 「영어」 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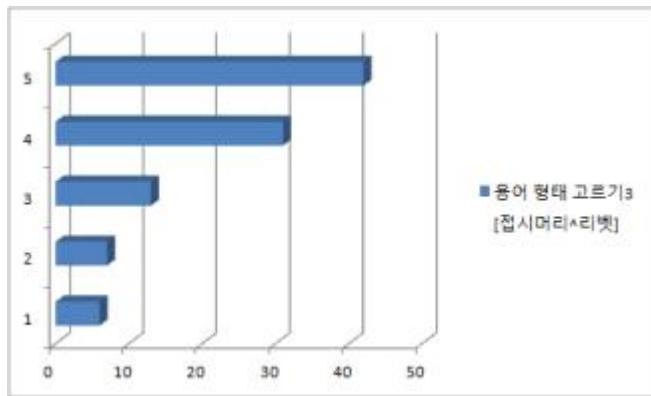
<그림 42> [머리-어]의 순위 비교 결과

(16)은 넓은 순위 분포를 보인다. 22명이 2위, 25명이 4위를 선택하였다. 순위가 고르게 분포하는 이유는 용어가 주는 난이도는 낮아 보이지만 ‘머리’라는 비유적 표현은 설명적 한계를 갖는다. 게다가 선·후행 어휘가 결합하였을 때 의미하는 바가 전문 분야 표시를 제한했을 때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17) ⑭ 접시머리^리벳

원어 표기: 접시머리<영>rivet

영어 용어: 「영어」 counter sunk rivet



<그림 43> [접시머리 ^ 리벳]의 순위 비교 결과

(17)은 42명이 5위를 선택하였는데 후행 어휘의 음역이 피수식어로써 의미 해석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접시머리 모양의 머리가 넓은 뜻을 의미하는 ‘리벳’은 결과적으로 어종을 달리하여 반복 혼종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³⁰⁾ 고유어 ‘못’으로 바꾸면 어휘 이해도가 훨씬 올라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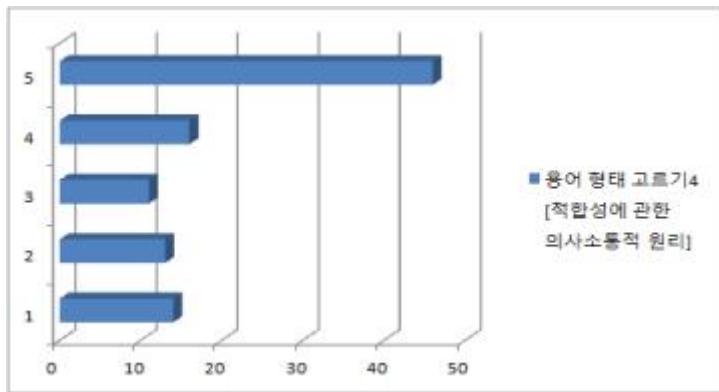
여섯 번째 ‘조사’가 포함된 설명 유형은 대부분 설명 방식의 문장형에 나타나는데 조사를 제외하고 전부 한자어로 이루어진 형태가 많다. 이 형태는 가장 저조한 순위를 보인다.

(18) 50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원어 표기: 適合性에 貫한 意思疏通的 原理

영어 용어: 「영어」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30) 이성범(2008)에서는 반복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환경으로 ‘혼종 반복어’로써 혼종어를 다루고 있다.



<그림 44>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의 순위 비교 결과

(18)은 46명이 5위로 선택하였다. 원어 표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한자어가 주를 이룬다. 또한 영어 용어를 통해 보았을 때 직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용어의 내용은 충실하게 반영되었지만 용어의 길이가 길어지고 한자어 중심이 되면서 언중 수용력이 부족한 용어를 만들게 된다.

3.3. 동의어의 상대적 어휘 이해도 조사

본 조사는 3장에서 전문 분야별 동의어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용어별 동의어들의 어종 유형이 다른 점을 포착하여 동일 의미를 담고 있는 동의어들 가운데 가장 어휘 이해도를 높이는 유형은 어떠한지 점검한 것이다.

(1) 표제어(혼종어): 세계 ^ 물 ^ 포럼

동의어: 세계 ^ 수자원 ^ 회의

위의 예와 같이 혼종어의 표제어에는 한자어 또는 고유어로 된 동의어가 30% 정도 있다. 3장의 형태 분석은 동의어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동의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이 조사에서는 동의어 형태의 선호도 및 어휘 이해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는 혼종어와 한자어 또는 외래어 가운데 어떠한 어종 유형이 선호되는지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3.3.1. 조사 개요

<표 42> 동의어 3개 이상 표본 어휘 수

전문 분야	표본 조사 어휘	동의어 3개 이상 표본 어휘 수
의학	300	22
건축	300	13
합계	600	35

본 조사는 동의어를 가지고 있는 표본 조사 어휘 가운데 동의어가 많이 수집되어 있는 의학 전문 용어와 건축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제시어를 추려내었다. 앞서 진행한 어종 유형과 용어 형태는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비교하였으나 동의어 비교는 동일 의미를 여러 형태로 놓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순위 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표 43> 조사 방식

조사 일시	조사 도구	조사 방식	조사 대상자
2015년 9월	구글 서베이	동의어의 상대적 어휘 이해도 비교 선택 순위 매기기 10항목	서울 소재 남, 여 대학생 100명

제시된 동의어는 비교 대상이 3개 이상 되는 용어들만 어휘 35개로 추려내어 조사하였다.

동의어 비교하기1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1위	2위	3위	4위
가슴막*복막*선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슴막*복막*지름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흡복막*단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슴막*복막*단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그림 45> 구글 서베이 동의어 비교하기 조사

3.3.2. 조사 항목



<표 44> 동의어 제시어

예	동의어	어종 유형	전문 분야
1	가슴막 ^ 복막 ^ 션트 가슴막 ^ 복막 ^ 지름길 흉복막 ^ 단락 가슴막 ^ 복막 ^ 단락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 한자어	의학
2	머리뼈 ^ 유리 ^ 연골 ^ 결합 머리 ^ 연골 ^ 결합 머리뼈 ^ 연골 ^ 결합 두개 ^ 연골 ^ 결합	고유어 + 한자어 고유어 + 한자어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의학
3	고름 ^ 공기 ^ 심장막증 심장막 ^ 고름 ^ 공기증 농심낭 ^ 기종 농기심장-막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의학
4	가워스-속 전척수 ^ 소뇌로 앞 ^ 척수 ^ 소뇌로	외래어 +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 한자어	의학
5	간 ^ 츠개관 ^ 빈창자 ^ 연결술 간 ^ 담관 ^ 공장 ^ 문합술 간 ^ 담관 ^ 공장 ^ 연결술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의학
6	거짓 ^ 동맥 ^ 자루 거짓 ^ 동맥류 가성 ^ 동맥류 가동맥-류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한자어	의학
7	뜬말뚝 ^ 기초 부유 ^ 말뚝 ^ 기초 플로팅 ^ 말뚝 ^ 기초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외래어 + 고유어 + 한자어	건축
8	누빔 ^ 용접 스티치 ^ 용접 누빔 ^ 용접 ^ 방식	고유어 + 한자어 외래어 + 한자어 고유어 + 한자어	건축
9	방화 ^ 램프 열교 ^ 차단 ^ 장치 에프디	한자어 +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약어)	건축
10	슬라이딩 ^ 이음 활면 ^ 이음 활면 ^ 결합 슬라이딩 ^ 조인트	외래어 + 고유어 한자어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건축

제시어로 사용된 동의어들을 살펴보면 의학 및 건축 분야에서 용어를 다듬어 순화하기 위한 과정이 엿보인다. 대부분의 용어들은 외래어나 한자어로 들어와서 ‘외래어+고유어’ 또는 ‘한자어+고유어’ 구성 유형인 혼종어로 바뀌면서 일부 고유어로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2) 표제어: 에콜로지컬 ^ 안전 ^ 보장

동의어: 환경 ^ 안전 ^ 보장

위의 경우는 외래어 음역이 섞인 혼종어의 ‘에콜로지컬’보다 상대적으로 한자어이지만 어휘 사용량이 많은 ‘환경’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낮아진다.

(3) 표제어: 기둥-대

원어 표기: 기둥帶

동의어: 주열-대

(3)의 경우는 반대로 사용량이 적은 한자어 ‘주열’보다는 고유어의 ‘기둥’이 혼종어이지만 어휘 난이도가 낮다.

3.3.3. 조사 결과

<표 45>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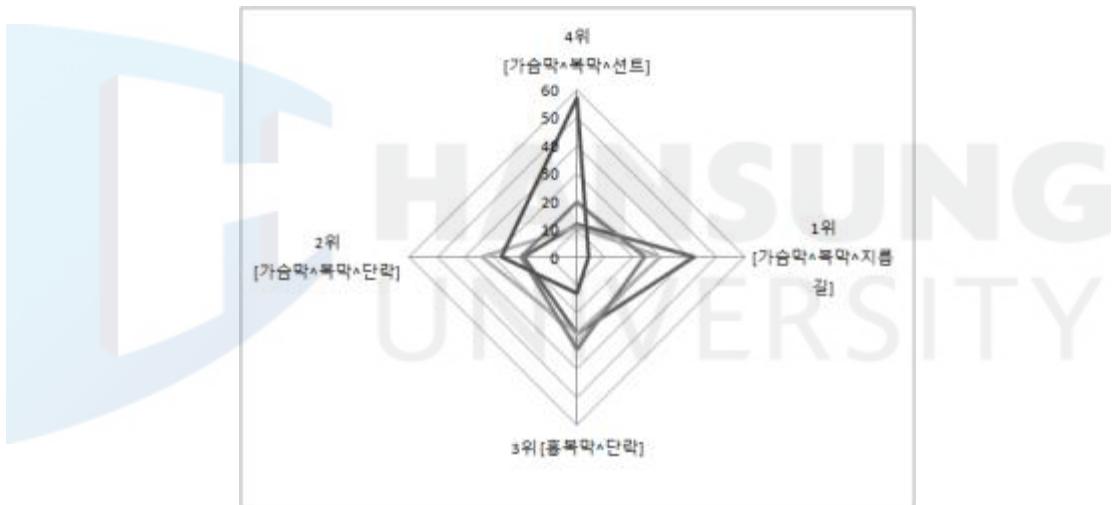
예	동의어	어종 유형	전문 분야	순위
1	가슴막 ^ 복막 ^ 션트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의학	4위
	가슴막 ^ 복막 ^ 지름길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		1위
	흉복막 ^ 단락	한자어		3위
	가슴막 ^ 복막 ^ 단락	고유어 + 한자어		2위
2	머리뼈 ^ 유리 ^ 연골 ^ 결합	고유어 + 한자어	의학	4위
	머리 ^ 연골 ^ 결합	고유어 + 한자어		2위
	머리뼈 ^ 연골 ^ 결합	고유어 + 한자어		1위
	두개 ^ 연골 ^ 결합	한자어		3위
3	고름 ^ 공기 ^ 심장막증	고유어 + 한자어	의학	2위
	심장막 ^ 고름 ^ 공기증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1위
	농심낭 ^ 기종	한자어		3위
	농기심장-막	한자어		4위
4	가워스-속	외래어 + 한자어	의학	3위
	전척수 ^ 소뇌로	한자어		2위
	앞 ^ 척수 ^ 소뇌로	고유어 + 한자어		1위
5	간 ^ 쓸개관 ^ 빈창자 ^ 연결술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의학	1위
	간 ^ 담관 ^ 공장 ^ 문합술	한자어		3위
	간 ^ 담관 ^ 공장 ^ 연결술	한자어		2위
6	거짓 ^ 동맥 ^ 자루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	의학	2위
	거짓 ^ 동맥류	고유어 + 한자어		1위
	가성 ^ 동맥류	한자어		3위
	가동맥-류	한자어		4위
7	뜬말뚝 ^ 기초	고유어 + 한자어	건축	1위
	부유 ^ 말뚝 ^ 기초	한자어 + 고유어 + 한자어		2위
	플로팅 ^ 말뚝 ^ 기초	외래어 + 고유어 + 한자어		3위
8	누빔 ^ 용접	고유어 + 한자어	건축	2위
	스티치 ^ 용접	외래어 + 한자어		3위
	누빔 ^ 용접 ^ 방식	고유어 + 한자어		1위
9	방화 ^ 램퍼	한자어 + 외래어	건축	2위
	열교 ^ 차단 ^ 장치	한자어		1위
	에프디	외래어(약어)		3위
10	슬라이딩 ^ 이음	외래어 + 고유어	건축	1위
	활면 ^ 이음	한자어 + 고유어		2위
	활면 ^ 결합	한자어		3위
	슬라이딩 ^ 조인트	외래어		4위

동의어 사이의 어휘 이해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 어종 유형이 가장 높은 순위를 선택 받았다. 이는 서로 다른 용어들을 비교하여 어종 유형을 비교한 조사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점검하면서 혼종어 안에 어종 구성에서 고유어 비중에 따라 혼종어가 좀 더 쉽게 인식되는 어휘가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용어의 언중 수용력을 높이는 순화 방향이 될 것이다.

(1) 표제어: 가슴막^복막^션트

동의어1: 가슴막^복막^지름길

동의어2: 흉복막^단락



<그림 46> [가슴막^복막^션트]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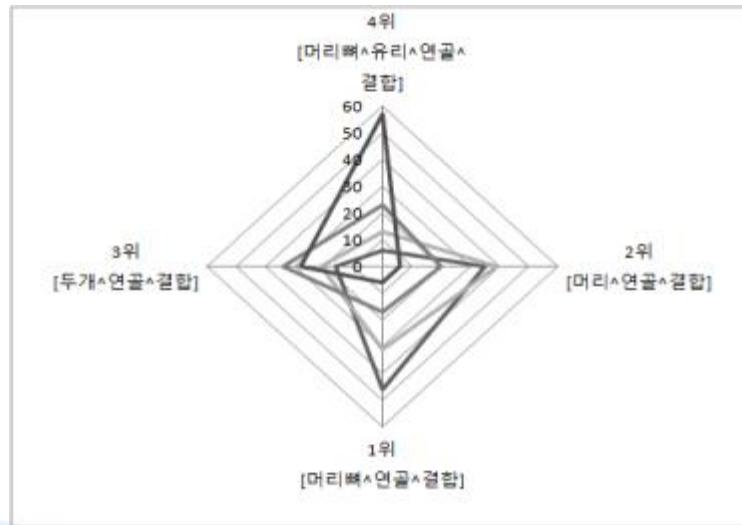
(1)은 한자어 ‘흉’이 고유어 ‘가슴’으로, 외래어 ‘션트’가 각각 한자어 ‘단락(短絡)’과 고유어 ‘지름길’로 바뀌었다. (1)은 47명이 ‘가슴막^복막^지름길’을 1위로 선택하였으며 외래어와 결합한 ‘가슴막^복막^션트’는 57명이 3위로 선택하였다.

(2) 표제어: 머리뼈^유리^연골^결합

동의어1: 머리^연골^결합

동의어2: 머리뼈 ^연골 ^결합

두개 ^연골 ^결합



<그림 47> [머리뼈 ^유리 ^연골 ^결합]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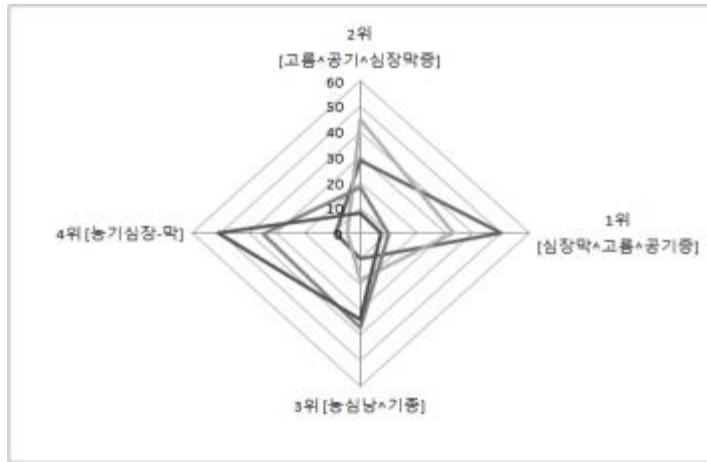
(2)는 한자어 ‘두개’가 고유어 ‘머리 또는 머리뼈’로 바뀌었다. (2)는 46명이 ‘머리뼈 ^연골 ^결합’을 1위로 선택하였고, 57명이 ‘머리뼈 ^유리 ^연골 ^결합’을 4위로 선택하였다. 4위 선택 요인은 어휘의 길이로 보인다.

(3) 표제어: 고름 ^공기 ^심장막증

동의어1: 심장막 ^고름 ^공기증

동의어2: 농심낭 ^기종

동의어3: 농기심장-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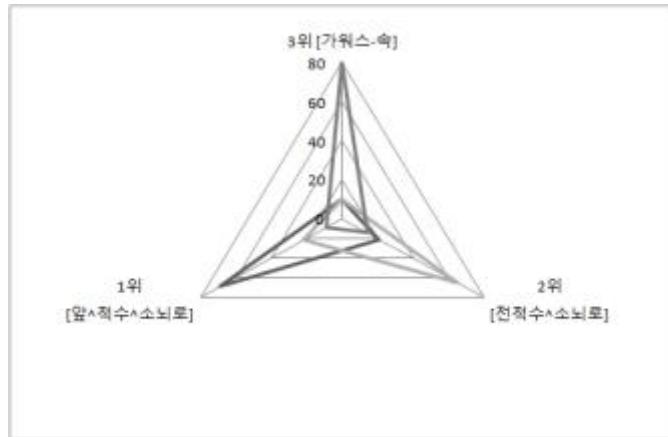
<그림 48> [고름^공기^심장막증]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3)은 한자어 ‘농’이 고유어 ‘고름’으로, 한자어 ‘기’가 ‘공기’로 의미를 추가하여 바꾸었다. 그리고 용어의 순서를 바꾸었는데 뜻풀이는 동의어들을 종합해 보면 ‘심장막에 고름과 공기가 발생한 병증’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3)은 50명이 ‘심장막^고름^공기증’을 1위로 선택하였고, 51명이 한자어 ‘농기심장-막’을 4위로 선택하였다.

(4) 표제어: 가위스-속

동의어1: 전척수^소뇌로

동의어2: 앞^척수^소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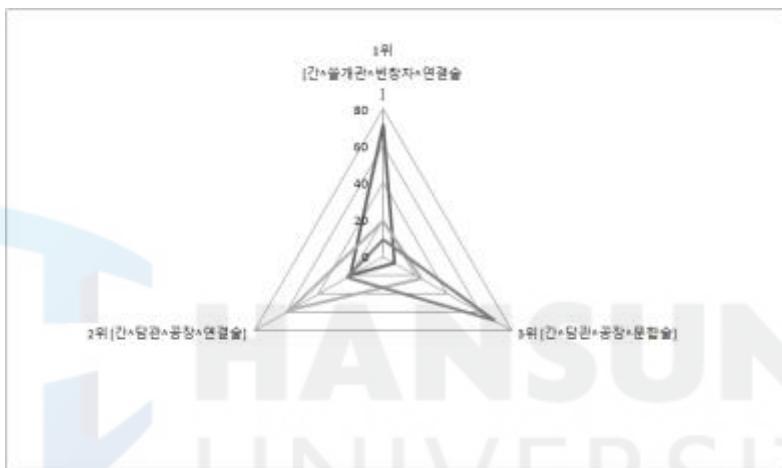
<그림 49> [가위스-속]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4)는 외래어 ‘가워스’가 각각 한자어 ‘전척수 소뇌’ 일부 고유어인 ‘앞척수 소뇌’로 바뀌었다. ‘속’은 뚫인 것을 의미하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로’로 바뀌었다. 이를 ‘소뇌로’로 의미를 보태어 바꾸었다. (4)는 69명이 ‘앞^척수^소뇌로’를 1위로 선택하였고 80명이 ‘가워스-속’을 3위로 선택하였다.

(5) 표제어: 간^쓸개관^빈창자^연결술

동의어1: 간^담관^공장^문합술

동의어2: 간^담관^공장^연결술



<그림 50> [간^쓸개관^빈창자^연결술]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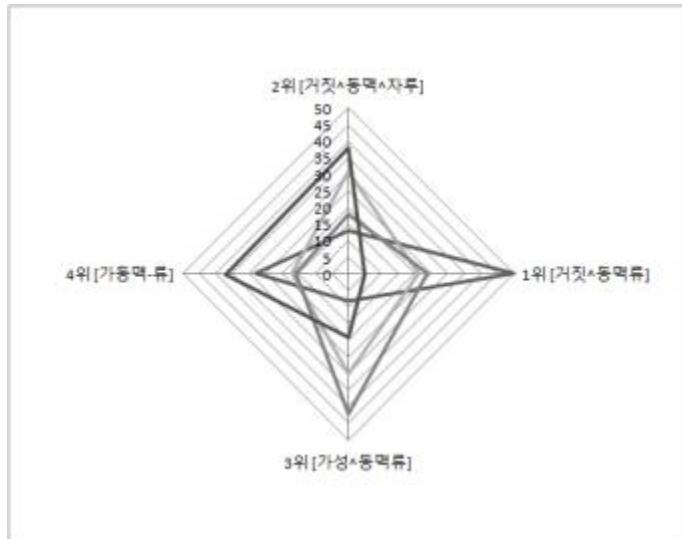
(5)는 한자어 ‘담’을 고유어 ‘쓸개’로, 한자어 ‘공장’을 ‘빈창자’로 한자어 ‘문합’을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연결’로 바꾸었다. (5)는 71명이 ‘간^쓸개관^빈창자^연결술’을 1위로 선택하였고 69명이 ‘간^담관^공장^문합술’을 선택하였다.

(6) 표제어: 거짓 ^ 동맥 ^ 자루

동의어1: 거짓 ^ 동맥류

동의어2: 가성 ^ 동맥류

동의어3: 가동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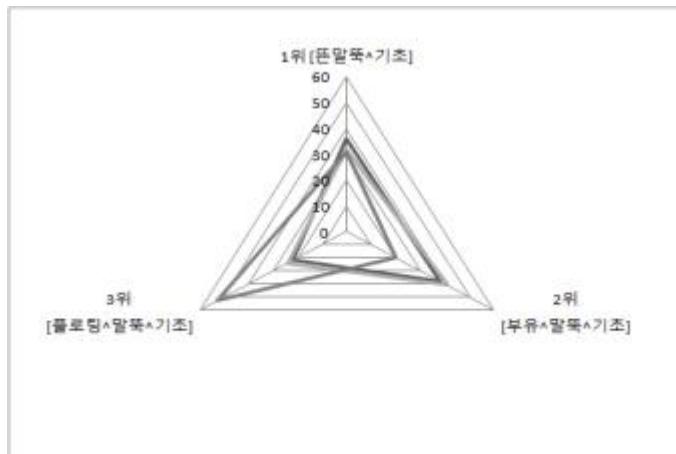
<그림 51> [거짓^동맥^자루]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6)은 한자어 ‘가’를 고유어 ‘거짓’으로 한자어 ‘류’를 고유어 ‘자루’로 바꾸었다. (6)은 50명이 ‘거짓^동맥류’를 1위로 선택하였고 각각 38명이 ‘거짓^동맥^자루’를, 37명이 ‘가동맥-류’를 4위로 선택하였다. 고유어 비중이 높은 ‘거짓^동맥^자루’에 순위가 몰리지 않은 이유는 용어의 길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 표제어: 뜬말뚝^기초

동의어1: 부유^말뚝^기초

동의어2: 플로팅^말뚝^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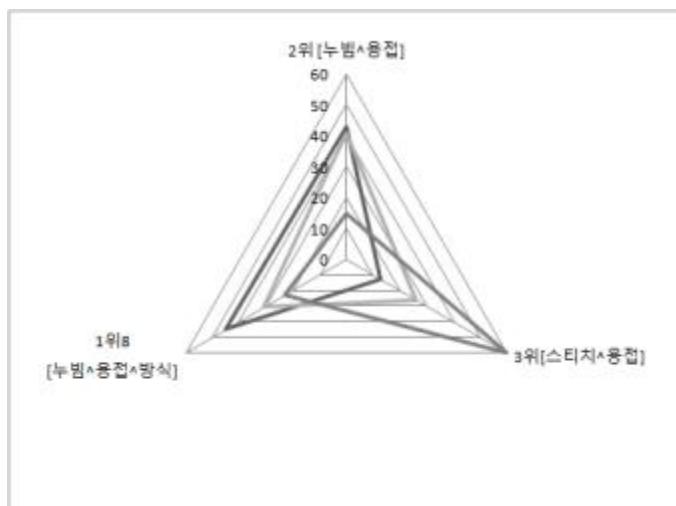
<그림 52> [뜬말똑^기초]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7)은 외래어 ‘플로팅’이 한자어 ‘부유’와 고유어 ‘뜬’으로 바꾸었다. (7)은 각각 36명이 ‘뜬말똑^기초’를 선택하였고 38명이 ‘부유^말똑^기초’를 선택하였다. 53명은 ‘플로팅^말똑^기초’를 선택하였다. <그림 55>와 같이 ‘뜬말똑^기초’와 ‘부유^말똑^기초’는 이해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8) 표제어: 누빔 ^ 용접

동의어1: 스티치 ^ 용접

동의어2: 누빔 ^ 용접 ^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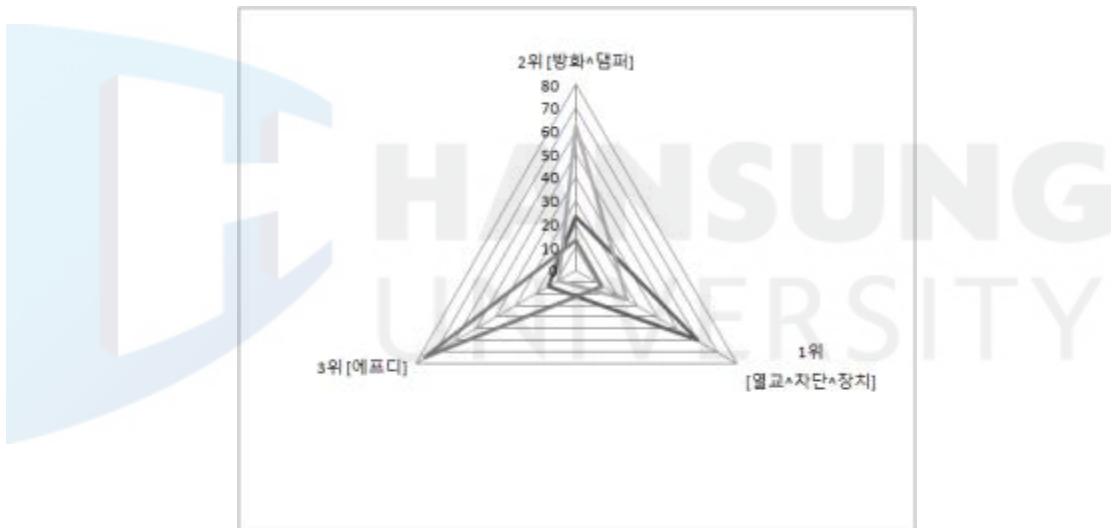
<그림 53> [누빔 ^ 용접]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8)은 외래어 ‘스티치’를 고유어 ‘누빔’으로 바꾸고 ‘방식’이라는 상위 개념을 추가하였다. (8)은 45명이 ‘누빔 ^ 용접 ^ 방식’을 1위로 선택하였고, 60명이 ‘스티치 ^ 용접’을 3위로 선택하였다.

(9) 표제어: 방화 ^ 땜퍼

동의어1: 열교 ^ 차단 ^ 장치

동의어2: 에프디



<그림 54> [방화 ^ 땜퍼]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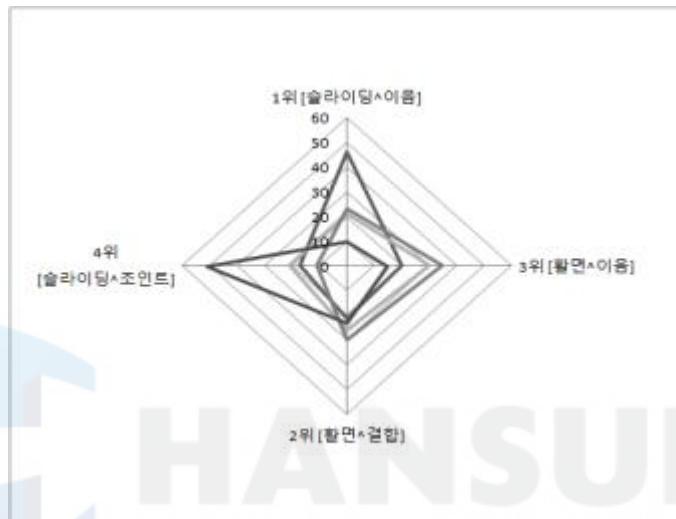
(9)는 외래어 줄임말 음역인 ‘에프디(FD)’의 ‘에프’의 원어 표기 ‘fire’ 직역인 ‘방화’와 ‘디’의 원어 표기 음역인 ‘땀퍼’가 있다. 이를 다시 의미를 추가하여 한자어 ‘열교 ^ 차단 ^ 장치’로 바꾸었다. (9)는 60명이 ‘열교 ^ 차단 ^ 장치’를 1위로 선택하였고, 70명이 ‘에프디’를 3위로 선택하였다.

(10) 표제어: 슬라이딩 ^ 이음

동의어1: 활면 ^ 이음

동의어2: 활면 ^ 결합

동의어3: 슬라이딩 ^ 조인트



<그림 55> [슬라이딩 ^ 이음]의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마지막으로 (10)은 외래어 ‘슬라이딩’을 한자어 ‘활면’으로, 외래어 ‘조인트’가 한자어 ‘결합’과 고유어 ‘이음’으로 바꾸었다. (10)은 46명이 ‘슬라이딩 ^ 이음’으로 한자어 ‘활면’보다는 더 익숙한 ‘슬라이딩’을 1위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51명이 외래어 ‘슬라이딩 ^ 조인트’를 선택하였다.

IV. 전문 용어 혼종어의 순화 방안

지금까지 전문 용어 혼종어의 유형별 분석에서 전문 분야별 어종의 비중과 분포를 통해 용어 동기화 정도를 분석해 보았고, 3장의 용어 이해도 조사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전문 용어 혼종어의 유형별 어휘 이해 정도와 선호 정도를 점검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문 조사하였던 어휘 이해도가 높은 유형들을 토대로 전문 분야별 용어적 특징과 함께 동기화적 요소를 종합하여 제언하고 조어 방식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4.1장에서는 조어 방식의 개발을 전문 분야별로 제언하고, 4.2장에서는 다양한 수용자 대상의 동의어 개발을 제언하였다. 또한 4.3장에서는 3장 이해도 조사 제시 어휘의 유통성 점검을 통해 전문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는 수용 정도의 점검이 필요함을 제언할 것이다.

4.1. 조어 방식의 제언

지금까지 어종 유형과 조어 유형별 어휘 이해도 설문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어떠한 유형의 용어를 보다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근본적으로 용어의 표기가 어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의식 안에 있는’ 표현으로 나타내야 한다. 자국민의 언어 의식 안에는 국어가 중심이며, 분별없는 고유어화는 견지하더라도 다양한 우리말의 조어 방식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동기화를 이루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용어학에서 논의하는 개념의 체계성이나 용어 구성 방식의 일관성을 이루면 보다 용어의 의미 유추가 쉬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용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언어가 어떠한 분야의 어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용어의 관련어와 동의어를 함께 보고 용어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사전의 뜻풀이를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 용어를 만들 때 동기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적절한 고유어 조어

방식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전문 용어의 이해를 돋는 요소는 알기 쉬운 표현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선호하는 표현은 해석 가능한 어종 유형과 한자어 중심의 명사적 표현보다는 부사나 어근, 용언 형태의 표현들이었음을 3장의 이해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용어의 이해 즉 용어의 동기화를 위해서는 용언을 활용한 조어 방식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3장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중에게 지식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때, 용어의 목록 수집을 위한 명사 합성 조어 방식보다는 용언과의 합성 조어 방식이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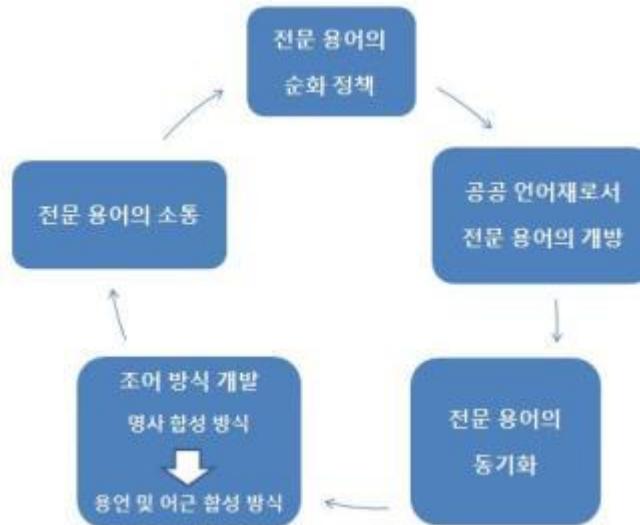
(1) 가. 겨드랑-선

- 나. 단단^뼈종
- 다. 거꿀-난시
- 라. 땀곳^빈맥

또한 이것은 (1)의 용어들과 같이 기존의 부사와 어근, 용언과 명사의 합성인 통사적 합성어 조어 방식과 비통사적 합성어 조어 방식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조어 방식을 연구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¹⁾

다음의 <그림 56>은 전문 용어 순화 정책에서 조어 방식 개발의 필요성을 정리해 본 것이다.

31) 김유범(2011)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비교하여 합성어의 통사성 (syntacticity)의 개념과 유형을 논의하면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통사적 합성어는 구와 문장에서와 같이 구의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과 같이 의태어 의성어에 나타나는 표현들과 어미가 생략된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합성어 등을 주로 일컫는다. 예를 들어 의학 전문 용어인 '곧은 창자'라는 통사적 합성어의 조어 방식이 '곧창자'로 만들어지는 비통사적 조어 과정을 연구하는 것도 전문 용어 조어 방식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6> 조어 방식 개발의 필요성

4.1.1. 의학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 제언

1900년대 이후 의학 기술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면서 의학 전문 용어는 주로 일본식 한자어를 중심으로 수용되고 표현되었다. 이후에는 서구식 외래어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서 주로 영어 용어의 음역된 용어가 만들어졌다. 의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용어의 난해함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의학 용어의 순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1977년부터는 『의학용어집』 1집을 기점으로 용어의 목록화와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의학 전문 용어는 인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체어나 병에 대한 명칭에서 고유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 전문 용어들은 외래어 음역 수준이던 기존의 용어들을 정비하면서 2010년 이후 표제어로 올라오는 용어들은 전반적으로 의역 중심의 ‘한자어+고유어’나 ‘고유어+한자어’의 어종 유형을 보이고 있다.

<표 46> 의학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전문 분야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포함 어종 유형	비율 (%)
의학	고유어+한자어	32.00	고유어	39.66	고유어	72.66
			외래어	10.66	외래어	29.65
			한자어	48.67	한자어	98.00

의학 전문 용어의 고유어 포함 비율을 보면, 72.66%로 가장 높다. 그러나 단순히 고유어가 포함된 어종 유형이라고 해서 용어 내에서 고유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명사 합성 비율의 경우, 표본 어휘 300개 어휘 가운데 141개 어휘로 47.1%의 비중을 갖는다. 선행 어휘로 고유어가 오는 비중은 39.66%이다. 이는 명사 합성 형태에서는 선행 어휘에 고유어가 대부분 오도록 의학 용어의 순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학 전문 용어는 (1-가)와 같이 대부분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1) 가. 가락^굽음^증

(대상+모양+증세)

나. 가로^배곧은근^근육^피부^피판^유방^재건술

(수술 부위+수술 방법 유형)

(1-나)는 ‘수술의 성격’을 드러내는 용어인데 용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용어라기보다는 뜻풀이의 형태이다. (1-나)의 어휘로 실제 구글 검색의 인용 여부를 살펴보면, 유방 재건술에 대한 설명에만 ‘가로 배곧은근’이나 ‘피부 피판’이라는 용어가 검색된다. 실제로 이러한 전문 용어가 쓰이기보다는 ‘유방 재건술’의 설명을 위한 용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어가 동기화를 위해 지나치게 설명 위주의 용어로 길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용어로써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된다.

(2) 가. 가성^암죽뇨(假性암죽뇨)

나. 가성^점액^낭샘종(假性粘液囊腫)

- 다. 거대 ^ 알균(巨大 알균)
- 라. 결절밀-병(結節密病)

위의 (2)를 살펴보면, 전부 혼종어로 구분되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2)와 같아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어종 유형일 경우 고유어를 살려서 만들어졌지만 한자어의 비중이 높고 고유어와의 합성 형태가 용어의 이해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의학 전문 용어는 기존의 한자어를 고유어 어휘로 바꾸는 노력을 했지만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유형이 300개 어휘 가운데 51개 어휘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고유어로 바꾸는 노력이 곧 동기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2-가)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암’의 고유어 의미를 용어 전체에서 살리지 못했다.

다음의 <표 50>과 <표 51>은 3장에서 설문 조사하였던 의학 전문 용어의 순위들을 다시 종합한 것이다.³²⁾

<표 47>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어종 유형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6	고유어+외래어	거짓 ^ 포르피린증	의학	4위
14	고유어+한자어	가위 ^ 더듬자	의학	1~2위
15	고유어+한자어	겨드랑-선	의학	1위
30	한자어+고유어	각 ^ 파임	의학	1~3위
31	한자어+고유어	경련 ^ 창자막힘	의학	1~3위
36	한자어+외래어	간성 ^ 포르피리아	의학	6위
37	한자어+외래어	고정 ^ 바이러스	의학	1~3위
48	외래어+고유어	골드블라트 ^ 짐게	의학	5~6위
59	외래어+한자어	게르하르트 ^ 시험법	의학	6위
60	외래어+한자어	가워스-속	의학	6위

<표 48> 조어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조어 형태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1	명사+명사	뒤통수 ^ 결합 ^ 쌍둥이	의학	1위

32) 표 원쪽의 번호는 예시 고유 번호이다.

2	명사+명사	뒤부아^고름집	의학	5위
3	명사+명사	눈알^뒷극	의학	2, 4위
4	명사+명사	부신^곁질^자극^호르몬^방출^인자	의학	5위
5	명사+명사	딴곳^빈맥	의학	4~5위
6	명사+명사	손등^방향	의학	1위
7	명사+명사	복장뼈^몸통^자루^연골^결합	의학	4~5위
8	명사+명사	껍질^상피^세포	의학	2~4위
9	명사+명사	발꿈치^보행	의학	2~3위
11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현기증	의학	2위
12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눈구멍^돌출증	의학	1~2위
13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땀^감소증	의학	2위
16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고정^눈멸림	의학	2위
17	용언의 명사형 어미	간^원인대^파임	의학	4위
18	용언의 명사형 어미	비기등^맞물림	의학	3~4위
19	용언의 명사형 어미	산소^머리^덮개	의학	1~2위
20	용언의 명사형 어미	미세^눈멸림	의학	1위
21	용언의 명사형 어미	공막^뚫음	의학	2~3위
27	용언의 관형형 어미	느린^근	의학	3~5위
28	용언의 관형형 어미	닫힌^사고	의학	1위
29	용언의 관형형 어미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제	의학	3~5위
30	용언의 관형형 어미	높은^곳^현기증	의학	1위
31	용언의 관형형 어미	두통^없는^편두통	의학	1위
32	용언의 관형형 어미	깊은^부분	의학	1위
37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단단^뼈종	의학	2~3위
38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거꿀-단시	의학	2~5위
39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사마귀^모양^결핵	의학	2~3위
40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샘^모양^낭암종	의학	2~4위
41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나비형 발진	의학	3~5위
42	부사 및 비유적 표현	고리^췌장	의학	2~4위
47	조사	간의 폐쇄성^바늘^생검	의학	3~5위
48	조사	기능의 국재화	의학	4~5위

<표 50>과 <표 51>의 어종 유형과 조어 유형을 함께 적용해서 잘 살펴보면 설문 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되는 유형은 선행하는 어종은 고유어이고 용언의 명사형이 후행할 때와 용언의 관형형이 선행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동기화를 위해서는 통사적 합성어인 ‘꼰-창자’의 ‘꼰’과 같이 어근과 결합하는 조어 방식 개발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의학 전문 용어의 순화는 의학적 설명을 들어야 하는 환자나 해당 전공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논문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설명을 위한 용

어, 교육용 용어의 쓰임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조건없이 쉬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해당 용어가 뜻하는 바가 용어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문 용어의 순화는 처음 접하더라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의미의 유추가 가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4.1.2. 환경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 제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수집된 환경 전문 용어는 자연물과 관계된 구성 요소들과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 전문 용어의 경우 의학 전문 분야와는 달리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목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고유어 번역과 상용 한자어 번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환경 전문 용어의 의미 구성은 좀 더 포괄적이어서 의학 전문 용어처럼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자주 등장하는 상위 개념 어휘 가운데 몇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가.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核事故의早期通報에관한協約)
- 나. 공급^사슬(供給사슬)
- 다. 시안산^분해^활성^슬러지(<영>cyan酸分解活性<영>sludge)

(3-가)의 경우처럼 협약이나 제도, 정책에 관한 용어들이 있고, (3-나)의 경우처럼 자연 현상이나 생태계적인 용어, (3-다)처럼 오염물의 분해 방식 등의 용어들이 있다.

<표 49> 환경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전문 분야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포함 어종 유형	비율 (%)
환경	외래어+한자어	30.00	고유어	14.95	고유어	35.60
			외래어	35.59	외래어	71.19
			한자어	49.48	한자어	95.40

환경 전문 용어는 2장의 표본 조사 분석 내용을 종합한 <표 52>를 통해 외

래어 비중, 즉 음역 용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3>은 환경 전문 용어 가운데 30% 비중에 해당하는 ‘외래어+한자어’ 유형의 예시이다.

<표 50> 환경 전문 용어의 ‘외래어+한자어’ 유형 예시

표제어(혼종어)	원어 표기	어종 유형	동의어	영어 용어
버넷-법	<영>Burnet法	외+한	장뇨막^접종	
에콜로지컬^안전^보장	<영>ecological 安全保障	외+한	환경^안전^보장	「영어」 ecological security
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	<영>precast concrete鋪裝	외+한	조립용 콘크리트^포장	「영어」 precast concrete pavement
프리보링-법	<영>preboring 法	외+한	선굴착^처리	「영어」 preboring process
프리코트^머캐덤^공법	<영>precoat macadam工法	외+한	언더코트^머캐덤^공법	「영어」 precoat macadam method
크로싱^교점	<영>crossing 交點	외+한	이론^교차점	
캔틸레버식 가설	<영>cantilever 式架設	외+한	캔틸레버^가설	
부르돈^압력계	<영>Bourdon 壓力計	외+한	부르동^압력계	「영어」 Bourdon pressure gauge

환경 전문 용어에서는 외래어 ‘-ical’이나 ‘-ing’ 등의 외래어 접사를 그대로 음역으로 나타내는 빈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한자어와의 혼종어들의 경우 한자어의 음이 다른 어종의 음 사이에서 본래의 뜻으로 읽히지 못하고 동음이의어로 혼동되는 소지가 많았다.

<표 51>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어종 유형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5	고유어+외래어	물다짐^머캐덤	환경	5위
20	한자어+고유어	면상^흐름	환경	2~3위

설문 조사에서 환경 전문 용어의 어휘를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 전문 용어의 음역 비율이 높고 ‘외래어+한자어’ 등의 특정 유형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외래어 중심의 유형은 후행하는 상위 개념 표현이 있어도 선행하는 외래어 음역의 의미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4.1.3. 건축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 제언

건축 전문 용어는 전문 분야의 특성상 전통적인 재래 건축 지식과 외래에서 온 전문 지식으로 인하여 건축 개념 및 도구나 방법적인 차원에서 번역 상의 대칭되는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 전문 용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유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4) 가. 굴착심 ^ 우물(掘鑿深우물)

- 나. 고정 ^ 장쇠(固定장쇠)
- 다. 마감 ^ 치수(마감치數)
- 라. 프리캐스트 ^ 보(<영>precast 보)

(4)의 건축 전문 용어 혼종어를 살펴보면, ‘우물’이나 ‘장쇠’ 등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휘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 작업에서 ‘마감’과 같은 개념 용어가 여러 어휘들과 합성되어 많은 어휘가 재생산되어 나타난다. 특히 ‘보’와 같은 기둥의 세부 용어들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beam’과 같은 외래적인 요소들을 번역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

<표 52> 건축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전문 분야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포함 어종 유형	비율 (%)
건축	한자어+외래어	27.67	고유어	23.34	고유어	48.33
			외래어	25.33	외래어	62.67
			한자어	51.33	한자어	92.67

건축 전문 용어의 외래어 비중은 4분야 가운데 환경 전문 용어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자어 포함 비중은 4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고유어를 사용한 재래 용어와 외래 용어의 사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3> 조어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조어 형태	흔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10	명사+명사	지붕^배수	건축	2위
14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기중기^운반식 거더^가설법	건축	5위
15	일음절 한자어	우물-통	건축	1위
22	용언의 명사형 어미	순간^처짐	건축	1위
23	용언의 명사형 어미	안장^맞춤	건축	1~2위
24	용언의 명사형 어미	다짐^모래^말뚝^공법	건축	2~5위
33	용언의 관형형 어미	무른^목재	건축	1위
34	용언의 관형형 어미	접는^의자	건축	1위
35	용언의 관형형 어미	솟는^상태	건축	1~3위
43	부사 및 비유적 표현	접시머리^리벳	건축	5위
44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꽃^플레이너	건축	3~5위
45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불룩^원두정	건축	4~5위

건축 전문 용어의 순위 결과에서도 역시 용언의 관형형이 순위에서 우세하다. 용어의 길이도 어휘 이해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유어 간의 합성 형태도 높은 순위를 얻지 못했다. 또한 부사 및 비유적 표현들은 용어의 길이를 줄여주면서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표 56>의 43, 44, 45와 같이 외래어 음역과 결합이 되면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

<표 54>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어종 유형	흔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1	고유어+외래어	가로^빔	건축	1~4위
2	고유어+외래어	기둥^데릭	건축	5위
3	고유어+외래어	한끝^렌치	건축	3위
4	고유어+외래어	한끝^스패너	건축	1위
7	고유어+외래어	팟종^아치	건축	6위
16	고유어+한자어	비늘^누름대	건축	1위
17	고유어+한자어	흐름^저항	건축	1~2위
18	고유어+한자어	위^보기^용접	건축	2~3위
19	고유어+한자어+고유어	띠철근^기둥	건축	2위

24	한자어+고유어	줄^기초^파기	건축	3위
25	한자어+고유어	중간^펠대	건축	4위
27	한자어+고유어	판자^붙임	건축	1위
28	한자어+고유어	시공^이음	건축	1위
29	한자어+고유어	복근^장방형보	건축	2~5위
32	한자어+외래어	중합체^시멘트^콘크리트	건축	3~4위
35	한자어+외래어	승강기^홀	건축	1위
38	한자어+외래어	핵심^모멘트	건축	1~5위
39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병렬^단속^필렛^용접	건축	4~5위
40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외래어	비사이펀식 트랩	건축	6위
41	한자어+외래어+한자어	고로^슬래그^잔^골재	건축	4위
44	외래어+고유어	콘크리트^다지기	건축	1위
45	외래어+고유어	슬롯^구멍	건축	2위
46	외래어+고유어	플레미시^쌓기	건축	5~6위
47	외래어+고유어	어스^드릴^말뚝	건축	3위
49	외래어+한자어	포스트^텐션^방식	건축	6위
50	외래어+한자어	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	건축	5위
51	외래어+한자어	케이슨^기초	건축	5~6위
52	외래어+한자어	캔틸레버식 가설	건축	6위
53	외래어+한자어	튜더-식	건축	4위
54	외래어+한자어+고유어	슬리브^신축^이음	건축	3위

건축 전문 용어에서도 혼종의 어종 유형 가운데 고유어가 선행하는 유형이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의 제1장 2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술을³³⁾ 보면, 선행 어휘와 후행 어휘의 공공 번역상의 의미 구성을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한정적 표현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역으로 표현되면 어휘의 이해도는 떨어지고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33) [시행 2015.12.29.]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79호, 2015.12.29.,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쓰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로마자 표기’는 해당 용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과 그 용어를 뜻한다.
- ‘의미역(意味譯)’은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살려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그 용어를 뜻한다.
- ‘전부(前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
- ‘후부(後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4.1.4. 문학 전문 용어의 조어 방식 제언

개방형 지식 대사전에 수집된 문학 전문 용어는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전문 분야 가운데 어휘 목록이 가장 작은 규모이다. 또한 수집된 목록에는 국어학 관련 전문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어국문학 분야가 아울러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문학 전문 용어의 특징은 용어의 절반 이상이 설화나 작품의 제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 비중이 다른 전문 분야보다 높다.

(5) 가. 병어리 시집살이(병어리腮집살이)

나.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강아지로虎狼이 잡기)

다. 점 잘치는 두꺼비(占잘치는두꺼비)

(5)를 살펴보면, 옛날이야기의 제목들인데 동물 이름과 서술형 제목이 고유어의 비중을 높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문학 전문 용어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

전문 분야	선호 어종 유형	비율 (%)	선행 어종 유형	비율 (%)	포함 어종 유형	비율 (%)
문학	한자어+고유어 +한자어	37.00	고유어	32.33	고유어	88.32
			외래어	6.33	외래어	11.99
			한자어	60.66	한자어	98.99

문학 전문 용어가 고유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용어의 동기화가 잘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외래어 비중도 낮지만 전반적으로 용어의 길이가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길다.

<표 56> 어종 유형별 순위 결과

예	어종 유형	혼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8	고유어+외래어	가짜 ^ 히어로	문학	1~4위
9	고유어+외래어	쓸 수 있는 텍스트	문학	1위
10	고유어+외래어+한자어	거울 ^ 이미지 ^ 규칙	문학	1~4위

11	고유어+한자어	끝자리 ^ 동사 ^ 언어	문학	2~4위
12	고유어+한자어	버릇-상	문학	3~4위
13	고유어+한자어	사이시옷 ^ 현상	문학	1위
21	한자어+고유어	음의 길이	문학	1위
22	한자어+고유어	상대적 틀	문학	2위
23	한자어+고유어	음운 ^ 덧나기	문학	2~4위
33	한자어+외래어	협역 ^ 스펙트로그램	문학	6위
34	한자어+외래어	상징 ^ 코드	문학	2~3위
42	외래어+고유어	메타 ^ 이야기	문학	3위
43	외래어+고유어	오컴의 지우개	문학	5위
55	외래어+한자어	히아투스 ^ 현상	문학	6위
56	외래어+한자어	초서 ^ 연	문학	5위
57	외래어+한자어	오컴의 수정 면도날	문학	5위
58	외래어+한자어+외래어	포스트 ^ 식민주의 ^ 폐미니즘	문학	3위

<표 57> 형태별 순위 결과

예	조어 형태	흔종어 어휘 항목	전문 분야	순위
25	용언의 명사형 어미	부분 ^ 닮음	문학	1위
26	용언의 명사형 어미	음운 ^ 덧나기	문학	3~4위
36	용언의 관형형 어미	온전한 문맥 ^ 주의	문학	3~5위
46	부사 및 비유적 표현	머리-어	문학	1~4위
49	조사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문학	4위
50	조사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문학	5위

문학 전문 용어의 순위 결과를 보면, 용어의 길이가 동기화를 방해하고 있고, 한자어와 합성된 용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용어의 이해도가 낮다. 또한 외래어가 선행하는 어종 유형도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어휘 이해도가 낮다.

지금까지 4.1장에서 분야별로 종합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조어 방식은 환언적 번역 방식 또는 부사, 의태어 및 그 밖의 비유적 표현을 통한 용어의 재생산에 있다. 현재 전문 용어 흔종어의 70% 이상이 명사 합성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순화적 차원의 흔종어인 용언의 명사형 및 관형형, 비유적 표현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순화의 방향은 단순한 고유어화가 아닌 사용량을 고려한 용언을 중심으로 하는 합성법 사용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명사 형태의 고유어를 통해 고유어화를 하면 결국 자주 쓰지 않거나 어색한

고유어를 찾아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용언을 활용한 조어 방식과 의태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적극 활용하면 용어의 길이도 간소화 할 수 있고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휘 이해도, 수용력이 함께 좋아질 수 있다. 조어 방식에는 명사형 어미 ‘-음’과, 관형형 어미 ‘-ㄴ’이 주로 쓰인다는 것을 앞서 확인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번역 방식에서는 한자어를 양산하는 직역을 줄이고 의역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6)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동기화 조어 방식 개발을 위한 제언을 종합한 것이다.

(6) 동기화를 위한 요건

- 가. 어휘 빈도수를 고려한 어휘 사용
- 나. 동음이의어 확인을 통한 의미 간접 점검
- 다. 음역 사용의 기준 마련을 통한 용어의 난이도 조율
- 라. ‘용언의 관형형+명사’의 합성 방식의 점검 및 활성화
- 마. 용어 길이 간소화
- 바. 영어 용어의 의역 번역 방식 개발
- 사. 용언 및 어근을 활용한 조어 방식의 개발

결국 언어 정책은 방향을 잡고, 만들어서 알리는 것과 그 수용에 대한 점검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기본법의 목적은 국어사용의 촉진에 있다. 순화는 언중이 그 어휘를 쉽게 수용·인식하고 유통될 때 완성된다. 해당 전문 용어가 가지는 의미의 수용과 유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호되는 의미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순화어를 만들어내고 널리 알리는 순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해당 용어가 실제 언중에게 수용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문 용어 관련 연구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전문 용어의 분포 환경을 제시하는 종합된 자료의 통계 결과를 보여주지만 대중의 설문 조사를 통한 수용력의 점검은 오히려 부족하다. 자료의 분류 합이 순화 방안의 방법적 결론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용어 생산의 흐름이 곧 순화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말에 대한 언어 정책이 결과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순화 방안이 보다 객관적으로 용어의 순화적 생산에 영향을 주려면 결과적인 해석이 아닌 실제 선호도와 보완책이 함께 순화 방안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순화어 관련 연구들은 이해도, 인지도, 사용빈도 등의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어휘들이 얼마나 유통되고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³⁴⁾ 사용 실태 조사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그 대안까지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기화와 같이 뚜렷한 목표 개념에 부합하는 용어 조어 방식의 실제적 검증이 필요하다.

4.2. 동의어의 형태별 다양화

3장의 설문 조사에서 동의어 비교는 특정 용어에 선호도가 치우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같은 의미의 용어라도 어종과 조어 유형의 조율을 통해 어휘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 용어의 동의어군을 살펴보면 동기화에 지나치게 힘들되어 오히려 전문성이 퇴색된 용어들도 있었다. 따라서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층위를 고려하여 전문가, 학자, 전문 지식의 초기 진입자(학생), 일반인 등의 용어 사용자에 따른 동의어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정 혼종어가 가지고 있는 어종 유형의 다양성은 해당 혼종어와 동의어 관계를 가진 어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용어의 동의어들은 단순한 동의어 관계라기보다는 전문 용어 조어 과정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번역어들과 동의어 관계가 만들어진다. 특히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여과없이 그대로 음역된 외래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순화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전문 용어 동의어 관계의 분석을 통해 동기화를 높일 수 있는 순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4) 국립국어원(2007)에서 발간한 ‘외래어의 인지도, 이해도, 사용도 및 태도 조사’에서 외래어 목록을 제시하고 질문을 제시하였다. 인지도는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도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도는 ‘직접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태도는 ‘국어 생활에서 이 말을 써도 좋습니까?’에 대한 응답률로 외래어의 수용 정도를 점검하였다.

4.2.1. 외래어와 한자어 관계

<표 58>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한자어 어종 비교

예	영어 용어	표제어	동의어	전문 분야
1	gastraea theory	가스트레아 ^ 기원설 <영>gastraea起源說	장조동물 ^ 기원설	의학
2	Garré's osteomyelitis	가레 ^ 골수염 <프>Garré骨髓炎	경화 ^ 비화농 ^ 골수염	의학
3	Wilson's disease	간 ^ 렌즈핵 ^ 퇴화 肝<영>lens核退化	윌슨-병	의학
4	recessed luminaire	리세스드 ^ 조명 ^ 기구 <영>recessed照明器具	매립형 조명 ^ 기구	건축

위의 예를 보면, (2)와 (3)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 영어의 음역을 한자어로 번역하였다. (1)은 ‘가스트레아’의 음역을 ‘장조동물’의 한자어로 바꾸었다. 음역에서 한자어로 비교적 의미 파악이 가능한 어종으로 번역되었지만 (2)와 (3)의 경우처럼 ‘장조동물’이나 ‘경화 비화농’과 같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외래어가 한 장어로 어종이 바뀌면서 번역 될 때는 대부분 직역이 많이 사용되었다.

4.2.2. 외래어와 고유어 관계

<표 59>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고유어 어종 비교

예	영어 용어	표제어	동의어	전문 분야
1	mantle radiotherapy	가림^방사선^치료 가림放射線治療	맨틀^방사선^치료	의학
2	hepatophalocele	간제^헤르니아 肝臍<영>hernia	간^배꼽^탈출증	의학
3	winding stairs	와인딩^계단 <영>winding階段	돌음^계단	건축
4	sand compaction pile method	다짐^모래^말뚝^공법 다짐모래말뚝工法	샌드^콤팩션^파일^공법	건축
5	caisson foundation	케이슨^기초 <영>caisson基礎	우물통^기초	건축
6	hip roof	히프^지붕 <영>hip지붕	모임-지붕	건축
7	stitch rivet	누빔^리벳 누빔<영>rivet	스티치^리벳	건축

외래어의 용어가 고유어로 어종이 바뀌면서 대부분 직역에서 비유적·환언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1)은 ‘맨틀’에 대한 직역이 아닌 방사선 치료 방식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가림’으로 나타냈고, (2)는 ‘헤르니아’라는 중세에 대한 설명을 ‘배꼽 탈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3)은 ‘와인딩’에 대한 직역이지만 ‘-음’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고유어로 표현하였고 (4)는 ‘샌드 콤팩션’은 ‘다짐 모래’로 직역하고 ‘파일(더미)’ 부분은 ‘말뚝’으로 보충적인 의미를 더했다. (5)는 공법의 일종인 ‘케이슨’의 원래 의미가 아닌 결과적인 모양새인 ‘우물통’으로 환언적 번역을 하였다. (6)은 ‘히프’ 모양을 의미하지만 방식의 의미를 강조한 ‘모임’의 고유어 동의어가 있다. (7)은 ‘스티치’를 ‘누빔’으로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직역한 경우이다.

4.2.3. 외래어와 외래어 줄임말 관계

<표 60> 표제어와 동의어의 외래어-외래어 출임말 어종 비교

예	영어 용어	표제어	동의어	전문 분야
1	FCU system (FCU: fan coil unit)	에프시유 ^ 방식 <영>FCU方式	팬 ^ 코일 ^ 유닛 ^ 방식	건축
2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ost	퍼트 ^ 비용 <영>PERT費用	퍼트코스트	건축
3	creep ratio	크리프-율 <영>creep率	시아르	건축
4	proportional control action(P-action)	피 ^ 동작 <영>P動作	비례 ^ 동작	환경

외래어의 음역은 동기화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용인인데 외래어의 애크로님이나 두문자약어 등의 음역은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 정보가 거의 없다. 동의어들을 살펴보면, (1)의 경우 외래어의 음역과 그 음역 용어의 두문자약어의 음역이고, (2)는 애크로님의 음역 전체를 일부 한자어로 번역한 뒤에 일부 애크로님의 음역을 결합한 경우이다. (3)은 ‘크리프’와 ‘비율’의 두음어를 다시 음역한 동의어 ‘시아르’인데 음역만 보면 두음어의 약어인지도 알기 어렵다. (4)는 ‘비례(proportional)’의 두음어인 ‘P’를 다시 ’피‘로 음역한 것이다.

4.2.4. 한자어와 고유어 관계

<표 61> 표제어와 동의어의 고유어-한자어 어종 비교

예	영어 용어	표제어	동의어	전문 분야
1	phrenicoabdominal branches	가로막^배^가지 가로膜 배가지	횡격복-지	의학
2	pseudoconia	가성^원뿔눈 假性圓錐 눈	가성^원추안	의학
3	stolon	가는-균사 가는菌絲	주-균사	의학
4	empyema tube	가슴^고름집관 가슴고름집管	농흉-관	의학
5	indirect ophthalmoscope	거꿀눈보개^검사 거꿀눈보개検査	도상^검안경^검사	의학
6	soft wood	무른^목재 무른木材	연질^목재 연재	의학

(1)은 ‘횡격복-지(橫隔腹枝)’를 순화한 용어가 ‘가로막^배^가지(가로膜 배가지)’이다. 의학 전문 용어의 동의어들 대부분 난해한 한자어를 순화하여 주로 고유어 용어로써 존재한다. (2)는 음절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일부 ‘추안(圓錐)’을 ‘뿔눈’으로 어종을 바꾸었다. (3)은 ‘주(株; 그루, 뿌리)’의 모양새를 의미하는 ‘가는’으로 의미를 보충하여 어종을 바꾸었다. (4)는 ‘농흉’을 그대로 고유어로 직역하여 ‘가슴 고름’으로 어종을 바꾸었다. (5)는 북한어에서 사용되는 ‘거꿀’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만들었는데 ‘도상 검안경’이라는 검사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표현되었다. (6)은 ‘연질’의 한자어를 관형형 어미를 사용하여 ‘무른’으로 의미 파악이 쉽도록 표현하였다.

동의어의 다양성 확보는 동기화를 방해하는 음역과 비사용 고유어·한자어들을 대체하여 가장 빠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전문 용어에는 해당 용어가 활성화되어 동의어가 많은 용어들도 있고 동의어가 전혀 없는 용어들도 있다. 동의어가 많을수록 해당 용어의 쓰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일수록 명확한 표현으로 다듬기 위해서 동의어가 많이 생산된다.

용어의 순화 즉 동기화를 돋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목적의 동의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학 전문 용어는 지난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용어의 난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것의 부산물로 다양한 어종 구성의 동의어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른 동의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현장용 용어와 일반인들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선호 어종 구성의 용어들이 함께 동의어로 존재하면 해당 용어 사용자들에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될 것이다.

4.3. 유통성의 점검

전문 용어의 순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유통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화된 용어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3.1장의 어휘 이해도 조사에 제시된 어휘들을 구글의 빈도수 검색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유통성은 해당 전문 용어가 실제 그 형태로 여러 문서에서 사용될 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전문 용어들의 텍스트 출현 빈도를 종합하여 출현 빈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의 용어 어종과 조어 형태를 점검할 것이다. 실제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출현 빈도에 따라 해당 용어의 정착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어휘 이해도 조사에 사용된 어휘 수는 어종 유형별 조사에서 60개 어휘, 조어 유형별 조사에서 50개 어휘, 동의어 비교 조사에서 10개 어휘로 총 120개 어휘를 점검해 보았다.

4.3.1. 어종 유형별 유통성 점검

구글 빈도수 검색은 어종 유형별 제시어의 해당 영어 용어와 함께 실시하였다. 구글 검색 방식은 김유미·강현화(2008:15)에서 참조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문 어휘 선정을 위해서 전문 어휘 선정의 기준을 구글 검색 빈도수로 삼고 있다. 아래의 <표 62>는 <표 35>의 혼종어의 어종 유형 제시어를 빈도수로 점검한 것이다.

<표 62> 어종 유형별 전문 용어 구글 검색 빈도수

순번	한국어 용어	빈도수	영어 용어	빈도수	전문 분야
1	가로 ^ 뼈	3,310	cross beam	413,000	건축
2	기둥 ^ 데릭	63	pole derrick	4,130	건축
3	한끝 ^ 렌치	6	single - ended wrench	28,400	건축
4	한끝 ^ 스파너	3	single - ended spanner	8,890	건축
5	물다짐 ^ 머캐덤	669	water bound macadam	36,400	환경
6	거짓 ^ 포르파린증	38	pseudoporphyrinia	52,700	의학
7	팟종 ^ 아치	0	ogee arch	27,400	건축
8	가짜 ^ 히어로	1,040	false hero	42,400	문학
9	쓸 수 있는 텍스트	25,900	writerly text	12,000	문학
10	거울 ^ 이미지 ^ 규칙	1	mirror image rule	27,600	문학
11	끌자리 ^ 동사 ^ 언어	5	verb final language	9,490	문학
12	버릇 - 상	0	habitual aspect	16,700	문학
13	사이시옷 ^ 현상	5,910	sai-siot insertion	1	문학
14	가위 ^ 더듬자	0	scissors probe	11,800	의학
15	겨드랑 - 선	1,730	axillary line	138,000	의학
16	비늘 ^ 누름대	0	louvre presser	2	건축
17	흐름 ^ 저항	6,040	flow resistance	486,000	건축
18	위 ^ 보기 ^ 용접	9,060	overhead position welding	4,660	건축
19	띠철근 ^ 기둥	5,050	hooped reinforcing column	52,100	건축
20	면상 ^ 흐름	800	sheet flow	255,000	환경
21	음의 길이	87,600	length	206	문학
22	상대적 틀	82	relative frame	38,500	문학
23	음운 ^ 덧나기	0	addition ³⁵⁾	257	문학
24	줄 ^ 기초 ^ 파기	2,150	trench excavation	143,000	건축
25	중간 ^ 펠대	2	Intermediate batten rail	306,000	건축
27	판자 ^ 불임	311	boarding	106,000,000	건축
28	시공 ^ 이음	10,300	construction joint	361,000	건축
29	복근 ^ 장방형보	253	d o u b l e reinforcement rectangular beam	7	건축

30	각^파임	4	angular notch	15,900	의학
31	경련^창자막힘	0	spastic ileus	8,780	의학
32	중합체^시멘트^콘크리트	1	polymer cement concrete	14,800	건축
33	협역^스펙트로그램	6	n a r r o w - b a n d spectrogram	5,500	문학
34	상징^코드	16,300	symbolic code	47,900	문학
35	승강기^홀	10,700	elevator lobby	380,000	건축
36	간성^포르피리아	614	hepatic porphyria	43,000	의학
37	고정^바이러스	2,620	fixed virus	12,000	의학
38	핵점^모멘트	5	core moment	6,590	건축
39	병렬^단속^필렛^용접	647	chain intermittent fillet welds	1,180	건축
40	비사이펀식 트랩	200	nonsyphonage trap	2	건축
41	고로^슬래그^잔^골재	47	blast furnace slag fine aggregate	9,930	건축
42	메타^이야기	6,720	metanarrative	178,000	문학
43	오컴의 지우개	0	Ockham's eraser	90	문학
44	콘크리트^다지기	2,210	concrete placing	212,000	건축
45	슬롯^구멍	6,070	slot hole	107,000	건축
46	플레미시^쌓기	97	Flemish bond	133,000	건축
47	어스^드릴^말뚝	55	earth drill pile	1,490	건축
48	골드블라트^집게	0	Goldblatt's clamp	1,200	의학
49	포스트^텐션^방식	4,530	post-tensioning system	23,800	건축
50	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	4,460	precast concrete pavement	97,700	건축
51	케이슨^기초	14,600	caisson foundation	23,500	건축
52	캔틸레버식 가설	556	cantilever span	40,600	건축
53	튜더-식	1,630	Tudor style	562,000	건축
54	슬리브^신축^이음	41	slip expansion joint	4,830	건축
55	히아투스^현상	23	hiatus	7,210,000	문학
56	초서^연	1	Chaucer stanza	918	문학
57	오컴의 수정^면도날	0	modified Occam's razer	2	문학
58	포스트^식민주의^페미니즘	2,790	postcolonial feminism	35,200	문학
59	게르하르트^시험법	0	Gerhardt's reactions	6	의학

<표 62>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국어 용어의 빈도수와 영어 용어의 빈도수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써 하나는 한국어 용어가 검색이 안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 용어의 빈도수가 한자리수로 검색된 경우이다. 용어의 검색식은 <“>로써 해당 문자열이 온전히 들어있는 경우의 수만 빈도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은 텍스트 출현 빈도가 10 이하로 나타난 한국어 용어들이다.

<표 63> 빈도수 10 이하로 나타난 한국어 용어

순번	한국어 용어	빈도수	영어 용어	빈도수	전문분야
1	팻종^아치	0	ogee arch	27,400	건축
2	버릇-상	0	habitual aspect	16,700	문학
3	가위^더듬자	0	scissors probe	11,800	의학
4	비늘^누름대	0	louvre presser	2	건축
5	음운^덧나기	0	addition	257	문학
6	중간^웰대	2	Intermediate batten rail	306,000	건축
7	각^파임	4	angular notch	15,900	의학
8	경련^창자막힘	0	spastic ileus	8,780	의학
9	중합체^시멘트^콘크리트	1	polymer cement concrete	14,800	건축
10	협역^스펙트로그램	6	n a r r o w - b a n d spectrogram	5,500	문학
11	핵점^모멘트	5	core moment	6,590	건축
12	오컴의 지우개	0	Ockham's eraser	90	문학
13	골드블라트^집게	0	Goldblatt's clamp	1,200	의학
14	초서^연	1	Chaucer stanza	918	문학
15	오컴의 수정^면도날	0	modified Occam's razer	2	문학
16	게르하르트^시험법	0	Gerhardt's reactions	6	의학
17	가워스-속	0	Gowers's tract	263	의학

<표 63>을 보면 60개 조사 어휘 가운데 17개 어휘가 10 이하의 빈도수로

35) 전문 분야를 제한하여 보았지만 ‘addition’의 경우는 ‘in addition to’와 함께 빈도수가 측정되었다. 용어의 ‘일의성’에서는 영어 용어가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다.

조사되었다. 도착어인 한국어 용어 텍스트 출현 빈도가 없음에도 출발어인 영어 용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또한 고유어로 순화한 용어보다 외래어 음역이나 한자어 용어가 더 높은 텍스트 출현 빈도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7의 ‘팟종^아치’의 경우는 동의어가 영어 용어의 음역인 동의어 ‘오지^아치’가 753회의 출현 빈도를, 14의 ‘버릇-상’의 경우도 동의어인 ‘반복-상’이 총 1,750회의 텍스트 출현 빈도가 나온다. 빈도수 10 이하로 나타난 해당 용어들을 앞선 순위 설문 조사와 대조해 보면,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이 하위 5~6위권의 용어들이다. 분야별로 문학 전문 용어들이 대부분 텍스트 출현 빈도가 저조하다.

4.3.2. 조어 형태별 유통성 점검

<표 64> 조어 유형별 전문 용어 구글 검색 빈도수

예	한국어 용어	빈도수	영어 용어	빈도수	전문 분야
1	뒤통수^결합^쌍둥이	40	miodynamus	12,300	의학
2	뒤부아^고름집	10	Dubois abscess	2,370	의학
3	눈알^뒷극	0	posterior pole of eyeball	1,910	의학
4	부신^겉질^자극^호르몬^방출^인자	268	CRF(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	365,000	의학
5	딴곳^빈맥	0	ectopic tachycardia	27,000	의학
6	손등^방향	14,300	palmodorsal direction	3	의학
7	복장뼈^몸통^자루^연골^결합	153	manubriosternal articulation	1,080	의학
8	껍질^상피^세포	7	cuticle epithelial cell	10	의학
9	발꿈치^보행	6	calcaneus gait	2,120	의학
10	지붕^배수	5,300	roof drain	357,000	건축
11	눈^현기증	1,710	ocular vertigo	6,720	의학
12	눈구멍^돌출증	0	exophthalmos	396,000	의학
13	땀^감소증	199	hypohidrosis	104,000	의학
14	기종기^운반식 거더^가설법	0	girder erection by crane	2	건축
15	우물-통	755	well	2,830,000,000	건축

16	고정 ^ 눈떨림	10	fixation nystagmus	13,900	의학
17	간 ^ 원인대 ^ 파임	0	notch for ligamentum teres	1,340	의학
18	비기능 ^ 맷풀림	0	nonfunctional occlusion	101	의학
19	산소 ^ 머리 ^ 덮개	10	oxygen hood	27,500	의학
20	미세 ^ 눈떨림	1	minimal amplitude nystagmus	447	의학
21	공막 ^ 뚫음	7	scleronyxis	6,040	의학
22	순간 ^ 처짐	1,480	instantaneous deflection	7,500	건축
23	안장 ^ 맞춤	12,500	tie beam	142,000	건축
24	다짐 ^ 모래 ^ 말뚝 ^ 공법	847	sand compaction pile method	5,030	건축
25	부분 ^ 닮음	399	incomplete assimilation	4,170	문학
26	음운 ^ 덧나기	0	addition	1,040,00,000	문학
27	느린 ^ 근	457	slow muscle	131,000	의학
28	닫힌 ^ 사고	24,100	concrete thinking	87,200	의학
29	신경 ^ 근육 ^ 탈분극 없는 이완제	0	neuromuscular nondepolarizing agents	6,500	의학
30	높은 ^ 곳 ^ 현기증	6	height vertigo	17,000	의학
31	두통 ^ 없는 ^ 편두통	8	acephalic migraine	27,600	의학
32	깊은 ^ 부분	55,400	deep part of orbicularis oculi muscle	5	의학
33	무른 ^ 목재	1,130	soft wood	509,000	건축
34	접는 ^ 의자	133,000	folding chair	432,000	건축
35	솟는 ^ 상태	471	artesian condition	5,020	건축
36	온건한 문맥 ^ 주의	0	moderate contextualism	1,760	문학
37	단단 ^ 뼈종	0	osteoma durum	3,180	의학
38	거꿀 - 난시	279	astigmatism against the rule	7,610	의학
39	사마귀 ^ 모양 ^ 결핵	1	warty tuberculosis	3,800	의학
40	샘 ^ 모양 ^ 낭암종	10	adenoid cystic carcinoma	388,000	의학

41	나비형 발진	325	butterfly rash	173,000	의학
42	고리^췌장	296	annular pancreas	82,200	의학
43	접시머리^리벳	10,500	ounter sunk rivet	25,700	건축
44	불꽃^플레이너	0	flame planer	1,610	건축
45	불룩^원두정	4	round head nail	27,800	건축
46	머리-어	22,200	head	13,000,000	문학
47	간의 폐쇄성^바늘^생검	4,950	c l o s e d (percutaneous) (needle) biopsy of liver	1,160	의학
48	기능의 국재화	567	localization of function	331,000	의학
49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68	morpholpgically c o n d i t i o n e d alternation	637	문학
50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 통적 원리	3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5,750	문학

<표 64>를 보면 마찬가지로 영어 용어와 대조적인 빈도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용언의 관형형이 나타난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65> 빈도수 10 이하로 나타난 한국어 용어

예	한국어 용어	빈도수	영어 용어	빈도수	전문 분야
1	뒤부아^고름집	10	Dubois abscess	2,370	의학
2	눈알^뒷극	0	posterior pole of eyeball	1,910	의학
3	딴곳^빈맥	0	ectopic tachycardia	27,000	의학
4	껍질^상피^세포	7	cuticle epithelial cell	10	의학
5	발꿈치^보행	6	calcaneus gait	2,120	의학
6	눈구멍^돌출증	0	exophthalmos	396,000	의학
7	기중기^운반식 거 더^가설법	0	girder erection by crane	2	건축
8	고정^눈떨림	10	fixation nystagmus	13,900	의학
9	간^원인대^파임	0	notch for	1,340	의학

			ligamentum teres		
10	비기능^맞물림	0	nonfunctional occlusion	101	의학
11	산소^머리^덮개	10	oxygen hood	27,500	의학
12	미세^눈떨림	1	minimal amplitude nystagmus	447	의학
13	공막^뚫음	7	scleronyxis	6,040	의학
14	음운^덧나기	0	addition	1,040,000,000	문학
15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제	0	neuromuscular nondepolarizing agents	6,500	의학
16	높은^곳^현기증	6	height vertigo	17,000	의학
17	두통^없는^편두통	8	acephalic migraine	27,600	의학
18	온건한 문맥^주의	0	m o d e r a t e contextualism	1,760	문학
19	단단^뼈종	0	osteoma durum	3,180	의학
20	사마귀^모양^결핵	1	warty tuberculosis	3,800	의학
21	샘^모양^낭암종	10	adenoid cystic carcinoma	388,000	의학
22	불꽃^플레이너	0	flame planer	1,610	건축
23	불룩^원두정	4	round head nail	27,800	건축
24	적합성에 관한 의사 소통적 원리	3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	5,750	문학

<표 65>를 보면 50개 어휘 가운데 총 24개 어휘가 텍스트 출현 빈도 10 이하로 나타났다. 10 이하의 텍스트 출현 빈도는 의학 전문 용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3.3. 동의어의 상대적 유통성 점검

동의어들 간의 구글 검색 빈도수는 용어의 어종에 따라 비교가 뚜렷하다.

예	한국어 용어(동의 관계)	빈도 수	영어 용어	빈도 수	전문 분야
1	가슴막^복막^션트	0	pleuro-perit	5,010	의학

36) 관련어는 6개 어휘가 검색되었다.

	가슴막 ^ 복막 ^ 지름길 흉복막 ^ 단락 가슴막 ^ 복막 ^ 단락	0 0 4	oneal shunt		
2	머리뼈 ^ 유리 ^ 연골 ^ 결합 머리 ^ 연골 ^ 결합 머리뼈 ^ 연골 ^ 결합 두개 ^ 연골 ^ 결합	203 6 8 136	cranial synchondrosis	1,280	의학
	고름 ^ 공기 ^ 심장막증 심장막 ^ 고름 ^ 공기증 농심낭 ^ 기종 농기심장-막	93 0 37 6	pyopneumopericardium	61,400	의학
	가워스-속 전척수 ^ 소뇌로 앞 ^ 척수 ^ 소뇌로	0 591 496	Gowers's tract	266	의학
	간 ^ 쓸개관 ^ 빈창자 ^ 연결술 간 ^ 담관 ^ 공장 ^ 문합술 ³⁶⁾ 간 ^ 담관 ^ 공장 ^ 연결술 ³⁷⁾	0 0 0	hepaticochoolangiojejunostomy	2,520	의학
6	거짓 ^ 동맥 ^ 자루 거짓 ^ 동맥류 가성 ^ 동맥류 가동맥-류	282 1,730 8,130 0	pseudoaneurysm	398,000	의학
	뜬말뚝 ^ 기초 부유 ^ 말뚝 ^ 기초 플로팅 ^ 말뚝 ^ 기초	263 0 6	floating pile foundation	6,110	건축
	누빔 ^ 용접 스티치 ^ 용접 누빔 ^ 용접 ^ 방식	216 2,030 0	stitch welding	35,400	건축
	방화 ^ 댐퍼 열교 ^ 차단 ^ 장치 에프디 ³⁸⁾	9,700 925 128,000	fire damper	235,000	건축
10	슬라이딩 ^ 이음 활면 ^ 이음 활면 ^ 결합 슬라이딩 ^ 조인트	1,120 9 0 838	sliding joint	83,700	건축

<표 66> 동의 관계 구글 검색 빈도수 비교 결과

37) 관련어는 1개 어휘가 검색되었다.

38) 줄임말의 경우 동음이의어와 함께 검색되어 변별력이 떨어진다.

<표 66>을 보면 ①처럼 특정 어휘만이 검색되거나 ⑤처럼 일부 관련어 검색을 제외하고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같은 동의어군 안에서는 더욱 뚜렷한 수용력 높은 용어가 확인될 수 있었다.



V. 결 론

우리말의 순수성을 주장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말에 다양한 어종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혼종어를 만드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혼종어의 순화는 단순히 순수한 우리말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유입되는 많은 외국어들을 우리말의 언어 공공재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 언중들에게 동기화되어 이해하기 쉽게 유통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전문 용어 혼종어에는 순화 방안에서 논의해야 할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혼종어 분석에서 드러난 가장 큰 사실은 우리말의 차용어 비중이 우리의 인식 범위보다 크다는 것이다.

전문 용어 혼종어 내의 외국어의 음역과 잘 쓰지 않는 고유어·한자어가 동기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혼종어가 늘어가는 추세에 음역,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한자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도가 높은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순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혼종어들을 그 형태의 구성 방식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떤 혼종어 유형이 동기화가 더 투명하고, 언중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화 정책에 제언하기 위하여 혼종어의 어종 유형과 조어 유형 분석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보았다.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전문 용어의 사용 성격의 변화와 순화 개념의 변화, 전문 용어 어종 유형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혼종어 동기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전문 용어는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자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언어가 아닌 전문 지식의 체계 안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언어이다. 따라서 전문 용어의 표준화 논의의 중심에는 용어의 체계성과 정확성이 항상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순화’의 목적은 ‘통일성’에서 언중의 언어적 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용성’으로 진화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전문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열린 ‘소통’을 이루려면 용어를 통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 용어의 첫 번째 형성 원칙인 ‘동

기화(투명성)'는 전반적인 언어 정책의 흐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2장에서는 혼종어의 개념 및 혼종어가 나타나는 환경과 유형을 생성 유형, 어종 유형, 조어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생성 유형에서는 부분적으로 음역되거나 한역되고 고유어화 되는 과정을 거쳐 혼종어가 만들어지는 유형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빛어지는 동기화의 방해 요소를 점검하였다. 어종 유형에서는 어종 구성의 특징을 논의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 수집된 전문 용어 목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어종 구성 유형을 밝히고, 어떠한 어종 유형이 선행 어휘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혼종어의 어종 유형별 분석 결과 외래어의 일방적인 음역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유어·한자어들의 혼용으로 동기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한데 섞여있는 양상을 보였다. 조어 유형에서는 전문 용어 혼종어에 나타난 어종의 조어 형태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언어학적인 세부적 조어 방식 분석이 기보다 2장 분석에 기반하여 이해도 조사에 유의미한 유형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동기화 요소 및 방해 요소로 보이는 용어 유형들을 제시하고 용어 어휘 이해도 조사를 설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해도 조사를 통하여 언중 선호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의 이해도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전문 용어 혼종어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일반인들의 수용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어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어 방식을 찾아내고 그 동기화적 요소를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4장에서는 2, 3장의 결과를 중심으로 순화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언은 용언 및 어근을 활용한 조어 방식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동의어의 비교를 통해 동의어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표제어인 혼종어와 동의 관계 용어들의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전문 용어에는 다양한 형태의 동의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순화적 번역 방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외래어의 음역에서 고유어화 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다시 고유어화 하는 순서를 보였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언어 정책을 위해 순화적 번역 과정의 '흔적'인 동의어들의 비교 점검과 아울

러 용어의 형태가 주는 어휘 이해도를 점검하려는 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언으로 전문 용어 순화를 위해서 유통성 점검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용어의 수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3장 설문 조사의 제시어를 중심으로 구글 빈도수 검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도 조사와 통한 조어 방식의 개발과 수용 계층을 고려한 동의어의 다양화, 순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용어의 유통성 점검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순화어가 언중에 수용되는 실제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공공 번역 사업은 ‘한류’와 함께 외국어로써 한국어를 알리고 관광객과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성격의 번역 사업이다. 따라서 번역의 동기화 점검은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개방 및 정보 간 통섭의 시대는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용어를 모르고 해당 지식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제 순화의 목적은 ‘소통’에 있고 전문 용어의 동기화는 이러한 전문적 지식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장소영. (2012). 「이중언어 사용자의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 분석」. 『한어문교육』. 26집.
- 장신항. (1983). 외래어의 실태와 그 수용책.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강현화. (2011). 「전문 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제21권. 제2호. 국립국어원.
- 고석주 외 (2006).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연구 보고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고창수. (2012). 「인터넷에서의 언어 규범」. 『정보과학회지』. 30. 한국정보과학회. 29–33쪽.
- 권정현. (2015). 「전문 용어 동의어의 특성 연구」. 『한성어문학』. 제 34집. 97–118쪽.
- 김동환. (1997). 「언어의 도상성 탐구」. 『현대영미어문학』. 15–1. 현대영미어문학회. 231–260쪽.
- 김민수. (2007). 『현대어문 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유미, 강현화. (2008).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 : 한국어. 문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9권. 3호. 1–24쪽.
- 김유범. (2011). 「통사성과 합성어의 유형 변화」. 『한국어학』. 한국어문학회. 53. 119–143쪽.
- 김윤주. (2016). 「『한국어 교육과정』 어휘 목록 분석 :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4권. 우리어문학회. 459–490쪽.
- 김의수. (2015). 「언어의 필연성과 자의성」. 『언어과학연구』. 74. 언어과학회. 47–64쪽.
- 김일환. (2000). 「어근적 단어의 형태·통사론」.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213–226쪽.
- 김일환, 양경용. (2015). 「세종 현대국어 코퍼스의 재발견: SJ-RIKS 코퍼스」.

- 스 확장판]. 『언어와 정보 사회』. 제 24호. 73–93쪽.
- 김정우,김성원. (2012). 「전문용어 조어법 분석의 한 사례: 곤충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9–125쪽
- 김종택. (1993).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김형철. (1996).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 김해연. (2006). 「콩글리시(Konglish)단어의 유형과 언어적 동기」.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31–49쪽.
- 김희숙. (2011). 『21세기 한국어정책과 국가경쟁력』. 소통.
- 민현식. (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권. 한국어 의미학회. 91~132
- 민현식. (2013). 「세대간 소통을 위한 언어정책의 방향」. 『국어국문학』. 164. 29–66쪽.
- 배선미,시정곤. (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한국어학』. 제 25권. 한국어학회. 191–219쪽.
- 손혜옥,이수미. (2011). 「영어+하다 류 외래어 형용사의 국어 내 정착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35. 145–187쪽.
- 송영빈. (2011). 「전문 용어의 난해함에 대해」. 『日本學報』. 89. 75–86쪽.
- 송영빈. (2012). 「의학 논문을 통해 본 전문 용어 사용 양상」. 『한국사전학』. 제20호. 한국사전학회. 212–234쪽.
- 송철의. (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 송현주. (2010). 「한국어 합성어에 나타난 동기화 양상」. 『한글』. 289. 한글학회. 125–150쪽.
- 양명희. (2014). 「국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우리말글』. 60. 27–51쪽.
- 유재원. (2004).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원.

- 은희철. (2013). 「의학 전문용어 순화. 제작과 관련된 갈등 및 해결 방안」. 한국사전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 15-23쪽.
- 이상규. (2013). 「한국 국어 정책의 미래」.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95-153쪽.
- 이상혁. (2002).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15집. 101-123쪽.
- 이상혁. (2014). 「근대 한국(조선)의 서양 외래어 유입과 그 역사적 맥락」. 『언어와 정보사회』. 2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59-187쪽.
- 이석주, 이주행. (1994). 『국어학 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성범. (2008). 「혼종반복어의 화용적 분석」. 『담화와인지』. 제15권. 제2호. 101-120쪽.
- 이현주 외. (2007). 『외래 전문 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장진영. (2012). 「회계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제60집. 191-212쪽.
- 장홍권. (2014). 「우리 말 외래어연구에서 외래어와 혼종어를 갈라볼 데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7-24쪽.
- 전명미, 최동주. (2007).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문학회. 37-70쪽.
- 정호정 외. (2013).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지제근. (2011). 「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최경봉. (2016). 「국어사전에서 종교 용어의 처리 방안」.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541-588쪽.
- 최유숙. (2014). 『현대국어 혼종어에 관한 연구 : 한자어계 혼종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형용. (2010). 「전문 용어의 형태론 : 지침으로서의 전문 용어 형성 원

- 칙을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 제31집. 한중인문학회. 293-323쪽.
- 최형용. (2012). 「순화어의 형태, 의미론적 고찰」. 『한중인문학 연구』. 36. 127-159쪽.
- 한재영. (2003). 「국어 순화 왜 필요한가? : 다시 생각해 보는 국어 순화. 국어 순화 실천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한국방송 한국어 연구회.

2. 국외문헌

- Morton Benson Autumn. (1959). *English Loanwords in Russia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3. pp.248-267.
- Radden. G. & K. Panther. (2004). *Motivation in Grammar: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Introduction: Reflections on motivation』. pp. 1-46.
- Wallace Chafe.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담화와 의식과 시간』. 김병원, 성기철 역. 한국문화사.
- Weinreich. Uriel. (1968).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Mouton.
- Y. Grabowski Spring. (1971). *Recent English Loanwords in the Polish Language*. 『Canadian Slavonic Papers』. Revue Canadienne des Slavistes 13. pp.65-71.
- Zuckermann. Ghil'ad. (2009). *Hybridity versus Revivability: Multiple Causation*. Forms and Patterns. In *Journal of Language Contact. Varia 2*: pp.40-67.
- Dalby. Andrew. (2003). *Language in Danger: The Loss of Linguistic Diversity and the Threat to Our Fu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언어의 종말』. 오영나 역. 작가정신.

3.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말터(<http://www.malteo.net>)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GLM)(<http://www.languagemonitor.com>)

위키피디아 백과 사전(<https://ko.wikipedia.org>)

4. 참고자료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 용어 데이터 『의학』, 『건축』, 『환경』, 『문화』
전문 용어 8만8천 어휘.

부 록

혼종어 인식도 설문 조사

이 설문은 우리말에 섞여 들어온 차용어들과 우리말 합성어인 혼종어의 인식도와 난이도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들이 섞여 만들어진 합성어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세 가지 질문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어종 유형 고르기 2. 어종 형태 고르기 3. 동의어 비교하기입니다. 1과 2는 각각의 전문 용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순서대로 고르는 질문이고 3은 하나의 전문 용어의 동의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순서대로 고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은 값진 연구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필수항목

다음은 전문 용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용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섞인 유형들입니다.

*****주의사항*****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화면이 잘될 수 있으니 휴대폰 화면 회전을 가로로 하여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종 유형 고르기 1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하아투스*현상	<input type="radio"/>				
꼴차리^동사^언어	<input type="radio"/>				
음의 길이	<input type="radio"/>				
상징^코드	<input type="radio"/>				
가짜^하어로	<input type="radio"/>				
오컴의 지우개	<input type="radio"/>				

2. 어종 유형 고르기 2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어종 유형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	<input type="radio"/>				
위^보기^용접	<input type="radio"/>				
병렬^단속^필렛^용접	<input type="radio"/>				
면상^흐름	<input type="radio"/>				
콘크리트^다지기	<input type="radio"/>				
낫종^마치	<input type="radio"/>				

3. 어휘 유형 고르기3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태운행한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조서*연	<input type="radio"/>					
비롯*상	<input type="radio"/>					
한국*스펙트로그램	<input type="radio"/>					
상대적 틀	<input type="radio"/>					
쓸 수 있는 텍스트	<input type="radio"/>					
메타*이야기	<input type="radio"/>					

4. 어휘 유형 고르기4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태운행한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거울*이미지*글자	<input type="radio"/>					
사이시옷*현상	<input type="radio"/>					
오컴의 수정*면도날	<input type="radio"/>					
음운*맞나기	<input type="radio"/>					
모스트*식민주의*페미니즘	<input type="radio"/>					

5. 어휘 유형 고르기5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태운행한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플라미사*방기	<input type="radio"/>					
흐름*저항	<input type="radio"/>					
종합체*시멘트*콘크리트	<input type="radio"/>					
먼저*불임	<input type="radio"/>					
케이슨*기초	<input type="radio"/>					
가로*방	<input type="radio"/>					

6. 어휘 유형 고르기6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태운행한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모스트*텐션*방식	<input type="radio"/>					
기둥*대리	<input type="radio"/>					
중간*별대	<input type="radio"/>					
줄*기초*파기	<input type="radio"/>					
슬롯*구멍	<input type="radio"/>					
승강기*홀	<input type="radio"/>					

7. 어종 유형 고르기7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 | | | | | |
|-------------|-----------------------|-----------------------|-----------------------|-----------------------|-----------------------|
| 캔틸레버식 가설 | <input type="radio"/> |
| 풀다짐^마개덤 | <input type="radio"/> |
| 시공^이음 | <input type="radio"/> |
| 띠철근^기둥 | <input type="radio"/> |
| 고로^슬래그 전 골재 | <input type="radio"/> |
| 슬리브^신축^이음 | <input type="radio"/> |

8. 어종 유형 고르기8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 | | | | | |
|----------|-----------------------|-----------------------|-----------------------|-----------------------|-----------------------|
| 가워스^속 | <input type="radio"/> |
| 가위^더듬자 | <input type="radio"/> |
| 각^파임 | <input type="radio"/> |
| 간생^포르파리아 | <input type="radio"/> |
| 한꿀^렌치 | <input type="radio"/> |
| 튜더^식 | <input type="radio"/> |

9. 어종 유형 고르기9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 | | | | | |
|-----------|-----------------------|-----------------------|-----------------------|-----------------------|-----------------------|
| 게르하르트^시험법 | <input type="radio"/> |
| 거드랑.선 | <input type="radio"/> |
| 경련^창자딱힘 | <input type="radio"/> |
| 고장^바이러스 | <input type="radio"/> |
| 거짓^포르파린증 | <input type="radio"/> |
| 골드블라트^짐계 | <input type="radio"/> |

10. 어종 유형 고르기10 *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 | | | | | | |
|----------|-----------------------|-----------------------|-----------------------|-----------------------|-----------------------|
| 비사미편식 트랩 | <input type="radio"/> |
| 비늘^누름대 | <input type="radio"/> |
| 복근^장방형보 | <input type="radio"/> |
| 어스^드릴^말뚝 | <input type="radio"/> |
| 한꿀^스페너 | <input type="radio"/> |
| 핵전^모멘트 | <input type="radio"/> |

다음은 전문 용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식의 유형들입니다.

*****주의사항*****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회면이 잘될 수 있으니 휴대폰 화면 회전을 가로로 하여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용어 형태 고르기1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접두^의자	<input type="radio"/>				
불록^원두정	<input type="radio"/>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input type="radio"/>				
고정^눈侈림	<input type="radio"/>				
눈^현기증	<input type="radio"/>				

12. 용어 형태 고르기2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느린^근	<input type="radio"/>				
단단^뼈증	<input type="radio"/>				
뒤통수^결합^쌍동 이	<input type="radio"/>				
뒤부마^고름집	<input type="radio"/>				
눈알^뒷국	<input type="radio"/>				

13. 용어 형태 고르기3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무른^목재	<input type="radio"/>				
접시머리^리벳	<input type="radio"/>				
순간^처진	<input type="radio"/>				
치봉^배수	<input type="radio"/>				
기증기^운반식 거더^가설빔	<input type="radio"/>				

14. 용어 형태 고르기4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온전한 문맥^주의	<input type="radio"/>				
머리^어	<input type="radio"/>				
부분^달을	<input type="radio"/>				
음운^덧나기	<input type="radio"/>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input type="radio"/>				

15. 음어 형태 고르기5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음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 | | | | | |
|--------------|-----------------------|-----------------------|-----------------------|-----------------------|
| 두통^없는^편두통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거울^난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간^증연대^파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눈구멍^돌출증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간의 폐쇄성^바늘^생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6. 음어 형태 고르기6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음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 | | | | | |
|--------------------|-----------------------|-----------------------|-----------------------|-----------------------|
| 문현^사고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사마귀^모양^결핵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비기능^잇몸病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당^감소증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부신^질질^자극^호르몬^방출^연자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7. 음어 형태 고르기7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음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 | | | | | |
|------------------|-----------------------|-----------------------|-----------------------|-----------------------|
| 한국^번역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생^모양^상암증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신소^머리^될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손등^방향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8. 음어 형태 고르기8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음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 | | | | | |
|-----------------|-----------------------|-----------------------|-----------------------|-----------------------|
| 높은^곳^현기증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나비형 발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미세^눈물링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발광지^보행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복장폐^음통^자루^연금^결합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9. 용어 형태 고르기9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솟는^상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불꽃^플레이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연장^맞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우물^통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짐^모래^말뚝^공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용어 형태 고르기10

다음의 보기 가운데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깊은^부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리^해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공막^뚫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캡질^상피^세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능의 국제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음은 하나의 전문 용어에서 나온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21. 동의어 비교하기1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가슴막^복막^선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슴막^복막^지름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용복막^단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슴막^복막^단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동의어 비교하기2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머리뼈^유리^연골^결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머리^연골^결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머리뼈^연골^결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두개^연골^결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동의어 비교하기3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고흡*공기*심장막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심장막*고흡*공기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농심낭*기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농기심증*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동의어 비교하기4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가워스*속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적수*소뇌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알*적수*소뇌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동의어 비교하기5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간*개관*빈창자*연결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간*당관*공장*운합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간*당관*공장*연결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동의어 비교하기6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거짓*동역*자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거짓*동역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성*동역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동역*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7. 동의어 비교하기7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큰왕족*기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부음*말뚝*기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풀로등*말뚝*기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8. 동의어 비교하기8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누방*용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스티치*용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누방*용접*방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9. 동의어 비교하기9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방화*방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열교*차단*장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에프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동의어 비교하기10

다음의 예시는 전문용어 동의어군입니다. 뜻풀이를 유추하기 가장 쉬운 용어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위 2위 3위 4위

슬라이딩*이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활면*이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활면*결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슬라이딩*조연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설문이 끝났습니다. 혼종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으로 이 설문을 마칩니다. 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31. 혼종어라는 표현을 들어 본 적 있는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없다	<input type="radio"/>	매우 있다				
-------	-----------------------	-----------------------	-----------------------	-----------------------	-----------------------	-------

32. 서로 다른 언어들이 섞이는 현상에 대해 관심가져 본 적이 있는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전혀 없다	<input type="radio"/>	매우 있다				
-------	-----------------------	-----------------------	-----------------------	-----------------------	-----------------------	-------

어종 유형 고르기 순위 결과

어종 유형 고르기1 순위	[히아투스^ 현상]	[끝자리^동 사^언어]	[음의 길이]	[상징^코드]	[가짜^허어 로]	[오컴의 지우개]
1위	4	8	60	5	20	6
2위	8	27	14	31	20	4
3위	8	23	12	38	21	6
4위	7	28	12	14	22	11
5위	22	9	2	11	8	44
6위	51	5	0	1	9	29

어종 유형 고르기2 순위	[프리캐스 트^콘크리 트^포장]	[위^보기^ 용접]	[병렬^단속 ^필렛^용 접]	[면상^흐름]	[콘크리트^ 다지기]	[팻종^아치]
1위	8	11	4	16	63	1
2위	22	30	12	25	14	6
3위	17	30	21	26	6	7
4위	20	16	28	20	2	8
5위	25	12	25	8	14	11
6위	8	1	10	5	1	67

어종 유형 고르기3 순위	[초서^연]	[벼룩-상]	[협역^스펙 트로그램]	[상대적 틀]	[쓸 수 있는 텍스트]	[메타^이야 기]
1위	6	6	2	21	64	6
2위	4	14	6	54	20	8
3위	8	31	10	13	6	37
4위	12	28	18	10	2	27
5위	32	17	27	1	8	10
6위	38	4	37	1	0	12

어종 유형 고르기4 순위	[거울^이미지 ^규칙]	[사이시옷^현 상]	[오컴의 수정^면도날]	[음운^덧나기]	[포스트^식민 주의^페미니 즘]
1위	22	67	4	4	9
2위	20	20	6	31	25
3위	27	8	19	16	31
4위	24	1	17	41	16
5위	7	4	54	8	19

어종 유형 고르기5 순위	[플래미시^ 쌓기]	[흐름^저항]	[중합체^시 멘트^콘크 리트]	[판자^붙임]	[케이슨^기 초]	[가로^빔]
1위	10	33	2	33	4	25
2위	4	32	22	21	10	15
3위	8	17	28	25	9	15
4위	11	11	27	14	17	21
5위	29	6	12	4	32	12
6위	38	1	9	3	28	12

어종 유형 고르기6 순위	[포스트^텐 션^방식]	[기둥^테렉]	[중간^펠대]	[줄^기초^ 파기]	[슬롯^구멍]	[승강기^홀]
1위	6	3	2	17	20	56
2위	10	4	13	20	33	23
3위	8	21	18	36	18	7
4위	17	16	32	15	14	3
5위	14	40	22	6	11	3
6위	45	16	13	6	4	8

어종 유형 고르기7 순위	[캔틸레버 식 가설]	[물다짐^머 캐덤]	[시공^이음]	[띠철근^기 둥]	[고로^슬래 그 잔 골재]	[슬리브^신 축^이음]
1위	8	3	50	24	4	17
2위	5	9	24	48	10	7
3위	11	13	21	14	10	32

4위	9	21	3	8	35	19
5위	27	34	1	3	24	13
6위	40	20	1	3	17	12

어종 유형 고르기8 순위	[가위스- 속]	[가위^더듬 자]	[각^파임]	[간성^포르 피리아]	[한끌^렌치]	[튜더-식]
1위	7	36	35	2	10	13
2위	6	31	27	7	19	16
3위	12	14	24	9	30	15
4위	15	9	6	20	17	29
5위	29	9	5	27	18	9
6위	31	1	3	35	6	18

어종 유형 고르기9 순위	[제르하르 트^시험법]	[겨드랑- 선]	[경련^창자 막힘]	[고정^바이 러스]	[거짓^포르 피린증]	[골드블라 트^집계]
1위	5	37	23	29	4	6
2위	8	29	26	31	7	2
3위	9	21	24	26	15	11
4위	16	7	17	7	36	13
5위	20	4	9	6	26	34
6위	42	2	1	1	12	34

어종 유형 고르기10 순위	[비사이펀 식 트랩]	[비늘^누름 대]	[복근^장방 형보]	[어스^드릴 ^말뚝]	[한끌^스페 너]	[핵점^모멘 트]
1위	9	30	8	6	33	13
2위	10	19	19	21	23	16
3위	7	21	16	30	15	15
4위	8	16	24	22	14	16
5위	16	11	20	16	12	18
6위	50	3	13	5	3	22

용어 형태 고르기 순위 결과

용어 형태 고르기1 순위	[접는^의자]	[불룩^원두정]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고정^눈떨림]	[눈^현기증]
1위	83	0	3	7	10
2위	5	10	12	37	40
3위	6	7	18	41	28
4위	5	15	55	12	10
5위	1	68	12	3	12

용어 형태 고르기2 순위	[느린^근]	[단단^뼈종]	[뒤통수^결합 ^쌍동이]	[뒤부아^고름 집]	[눈알^뒷극]
1위	17	15	56	2	12
2위	10	33	18	13	28
3위	23	28	15	20	12
4위	23	15	8	24	29
5위	27	8	3	41	19

용어 형태 고르기3 순위	[무른^목재]	[접시머리^리 벳]	[순간^처짐]	[지붕^배수]	[기증기^운반 식 거더^가설법]
1위	31	6	35	25	6
2위	19	7	28	33	16
3위	26	13	21	25	15
4위	16	31	13	16	24
5위	8	42	3	1	39

용어 형태 고르기4 순위	[온건한 문맥^주의]	[머리-어]	[부분^닮음]	[음운^덧나기]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1위	17	17	40	14	14
2위	20	22	29	18	13
3위	23	19	20	25	11
4위	22	25	10	30	16
5위	18	17	1	13	46

용어 형태 고르기5 순위	[두통 ^ 없는 ^ 편두통]	[거꿀-난시]	[간 ^ 원인대 ^ 파임]	[눈구멍 ^ 돌출 증]	[간의 폐쇄성 ^ 바늘 ^ 생검]
1위	46	7	3	36	5
2위	26	15	11	44	11
3위	18	18	26	6	31
4위	2	23	39	12	21
5위	8	37	20	2	32

용어 형태 고르기6 순위	[닫힌 ^ 사고]	[사마귀 ^ 모양 ^ 결핵]	[비]기능 ^ 맞물 림]	[땀 ^ 감소증]	[부신 ^ 곁질 ^ 자극 ^ 호르몬 ^ 방출 ^ 인자]
1위	56	18	4	23	6
2위	12	30	6	48	3
3위	16	31	20	19	13
4위	9	16	52	7	13
5위	7	4	18	2	65

용어 형태 고르기7 순위	[딴곳 ^ 빈맥]	[샘 ^ 모양 ^ 낭 암종]	[산소 ^ 머리 ^ 덮개]	[손등 ^ 방향]	[신경 ^ 근육 ^ 탈분극 없는 이완제]
1위	9	5	21	57	11
2위	9	17	34	22	18
3위	13	26	25	7	26
4위	26	39	11	13	13
5위	43	11	8	1	32

용어 형태 고르기8 순위	[높은 ^ 곳 ^ 현 기증]	[나비형 발진]	[미세 ^ 눈떨림]	[발끔치 ^ 보행]	[복장뼈 ^ 몸통 ^ 자루 ^ 연골 ^ 결합]
1위	39	5	44	12	6
2위	22	11	30	34	4
3위	21	18	20	35	6
4위	14	29	4	16	34
5위	3	37	2	3	50

용어 형태 고르기9 순위	[솟는 ^ 상태]	[불꽃 ^ 플레이 너]	[안장 ^ 맞춤]	[우물-통]	[다짐 ^ 모래 ^ 말뚝 ^ 공법]
1위	26	5	21	42	8
2위	20	14	33	20	12
3위	23	17	22	18	17
4위	20	29	17	12	23
5위	9	33	4	5	38

용어 형태 고르기10 순위	[깊은 ^ 부분]	[고리 ^ 채장]	[공막 ^ 뚫음]	[겹질 ^ 상피 ^ 세포]	[기능의 국재화]
1위	65	8	5	21	3
2위	15	22	21	29	14
3위	9	26	31	21	14
4위	6	27	26	18	22
5위	5	17	17	11	47

동의어 순위 비교 결과

동의어 비교하기1 순위	[가슴막^복막^션 트]	[가슴막^복막^지 름길]	[흉복막^단락]	[가슴막^복막^단 락]
1위	12	42	27	19
2위	11	30	27	34
3위	20	24	33	20
4위	57	4	13	27

동의어 비교하기2 순위	[머리뼈^유리^연 골^결합]	[머리^연골^결합]	[머리뼈^연골^결 합]	[두개^연골^결합]
1위	6	35	46	16
2위	13	39	31	21
3위	23	20	17	34
4위	57	6	6	28

동의어 비교하기3 순위	[고름^공기^심장 막증]	[심장막^고름^공 기증]	[농심낭^기종]	[농기심장-막]
1위	29	50	10	9
2위	45	33	18	5
3위	18	10	37	35
4위	8	7	34	51

동의어 비교하기4 순위	[가위스-속]	[전척수^소뇌로]	[앞^척수^소뇌로]
1위	10	21	69
2위	10	65	22
3위	80	14	9

동의어 비교하기5 순위	[간^쓸개관^빈창자^연결 술]	[간^담관^공장^문합술]	[간^담관^공장^연결술]
1위	71	7	20
2위	19	24	58

3위	9	69	22
----	---	----	----

동의어 비교하기6 순위	[거짓^동맥^자루]	[거짓^동맥류]	[가성^동맥류]	[가동맥-류]
1위	13	50	8	28
2위	31	21	30	17
3위	18	24	42	16
4위	38	5	19	37

동의어 비교하기7 순위	[뜬말뚝^기초]	[부유^말뚝^기초]	[플로팅^말뚝^기초]
1위	36	38	22
2위	32	41	24
3위	31	20	53

동의어 비교하기8 순위	[누빔^용접]	[스티치^용접]	[누빔^용접^방식]
1위	43	13	45
2위	41	26	31
3위	15	60	23

동의어 비교하기9 순위	[방화^댐퍼]	[열교^차단^장치]	[에프디]
1위	23	60	14
2위	62	25	9
3위	13	13	75

동의어 비교하기10 순위	[슬라이딩^이음]	[활면^이음]	[활면^결합]	[슬라이딩^조인트]
1위	46	20	21	17
2위	21	30	26	21
3위	23	35	30	11
4위	10	15	23	51

설문 조사의 신뢰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어종 유형 고르기1 [히아투스^현상]	4.88	1.506	0.614
어종 유형 고르기1 [끝자리^동사^언어]	3.18	1.290	0.615
어종 유형 고르기1 [음의 길이]	1.82	1.167	0.635
어종 유형 고르기1 [상징^코드]	2.98	1.092	0.616
어종 유형 고르기1 [가짜^히어로]	3.05	1.540	0.624
어종 유형 고르기1 [오컴의 지우개]	4.70	1.374	0.605
어종 유형 고르기2 [프리캐스트^콘크리트^포장]	3.56	1.472	0.611
어종 유형 고르기2 [^보기^용접]	2.91	1.215	0.623
어종 유형 고르기2 [병렬^단속^필렛^용접]	3.88	1.305	0.610
어종 유형 고르기2 [면상^흐름]	2.94	1.369	0.624
어종 유형 고르기2 [콘크리트^다지기]	1.93	1.486	0.625
어종 유형 고르기2 [팟종^아치]	5.23	1.302	0.603
어종 유형 고르기3 [초서^연]	4.74	1.447	0.600
어종 유형 고르기3 [벼룻-상]	3.48	1.218	0.618
어종 유형 고르기3 [협역^스펙트로그램]	4.73	1.325	0.602
어종 유형 고르기3 [상대적 틀]	2.19	0.982	0.628
어종 유형 고르기3 [쓸 수 있는 텍스트]	1.70	1.193	0.631
어종 유형 고르기3 [메타^이야기]	3.63	1.300	0.609
어종 유형 고르기4 [거울^이미지^규칙]	2.74	1.244	0.613
어종 유형 고르기4 [사이시옷^현상]	1.55	0.978	0.632
어종 유형 고르기4 [오컴의 수정^면도날]	4.11	1.154	0.606
어종 유형 고르기4 [음운^덧나기]	3.18	1.086	0.615
어종 유형 고르기4 [포스트^식민주의^페미니즘]	3.11	1.238	0.619
어종 유형 고르기5 [플레미시^쌓기]	4.59	1.621	0.609
어종 유형 고르기5 [흐름^저항]	2.28	1.256	0.625
어종 유형 고르기5 [중합체^시멘트^콘크리트]	3.52	1.267	0.620
어종 유형 고르기5 [판자^붙임]	2.44	1.343	0.627
어종 유형 고르기5 [케이슨^기초]	4.47	1.446	0.603
어종 유형 고르기5 [가로^빔]	3.16	1.710	0.631
어종 유형 고르기6 [포스트^텐션^방식]	4.58	1.628	0.599
어종 유형 고르기7 [캔틸레버식 가설]	4.62	1.594	0.614
어종 유형 고르기6 [기둥^데릭]	4.34	1.257	0.613
어종 유형 고르기6 [중간^웰대]	3.98	1.279	0.616
어종 유형 고르기6 [줄^기초^파기]	2.91	1.349	0.625
어종 유형 고르기6 [슬롯^구멍]	2.75	1.424	0.623
어종 유형 고르기6 [승강기^홀]	1.98	1.524	0.631
어종 유형 고르기7 [물다짐^머캐덤]	4.34	1.343	0.614
어종 유형 고르기7 [시공^이음]	1.84	1.032	0.632
어종 유형 고르기7 [띠철근^기둥]	2.27	1.179	0.621

어종 유형 고르기7 [고로 ^ 슬래그 잔 골재]	4.16	1.331	0.607
어종 유형 고르기7 [슬리브 ^ 신축 ^ 이음]	3.40	1.550	0.616
어종 유형 고르기8 [가워스-속]	4.46	1.527	0.615
어종 유형 고르기8 [가 ^ 더듬자]	2.27	1.332	0.636
어종 유형 고르기8 [각 ^ 파임]	2.28	1.303	0.626
어종 유형 고르기8 [간성 ^ 포르피리아]	4.68	1.332	0.607
어종 유형 고르기8 [한끝 ^ 렌치]	3.32	1.392	0.614
어종 유형 고르기8 [튜더-식]	3.59	1.621	0.617
어종 유형 고르기9 [게르하르트 ^ 시험법]	4.64	1.534	0.608
어종 유형 고르기9 [겨드랑-선]	2.18	1.234	0.632
어종 유형 고르기9 [경련 ^ 창자막힘]	2.66	1.304	0.621
어종 유형 고르기9 [고정 ^ 바이러스]	2.33	1.198	0.624
어종 유형 고르기9 [거짓 ^ 포르피린증]	4.09	1.240	0.616
어종 유형 고르기9 [골드블라트 ^ 집게]	4.69	1.405	0.603
어종 유형 고르기10 [비사이펀식 트랩]	4.62	1.757	0.618
어종 유형 고르기10 [비늘 ^ 누름대]	2.68	1.476	0.634
어종 유형 고르기10 [복근 ^ 장방형보]	3.68	1.510	0.617
어종 유형 고르기10 [어스 ^ 드릴 ^ 말뚝]	3.36	1.283	0.618
어종 유형 고르기10 [한끝 ^ 스패너]	2.58	1.512	0.627
어종 유형 고르기10 [핵점 ^ 모멘트]	3.76	1.730	0.617
전체 신뢰도		0.622	

어종 유형 고르기 문항은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크론 바흐알파 값(Cronbach's alpha) 0.622로 나타났다. 이는 크론 바흐알파 값이 0.6을 기준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이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조어 형태 고르기1 [접는 ^ 의자]	1.35	0.867	0.538
조어 형태 고르기1 [불룩 ^ 원두정]	4.47	0.930	0.528
조어 형태 고르기1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3.63	0.934	0.523
조어 형태 고르기1 [고정 ^ 눈멀림]	2.66	0.878	0.525
조어 형태 고르기1 [눈 ^ 혈기증]	2.65	1.109	0.532
조어 형태 고르기2 [느린 ^ 근]	3.37	1.385	0.524
조어 형태 고르기2 [단단 ^ 뼈종]	2.64	1.151	0.544
조어 형태 고르기2 [뒤통수 ^ 결합 ^ 쌍둥이]	1.74	1.082	0.526
조어 형태 고르기2 [뒤부아 ^ 고름집]	3.91	1.145	0.536
조어 형태 고르기2 [눈알 ^ 뒷극]	3.19	1.305	0.545
조어 형태 고르기3 [무른 ^ 목재]	2.53	1.306	0.535

조어 형태	고르기3 [접시머리 ^ 리벳]	4.04	1.157	0.534
조어 형태	고르기3 [순간 ^ 처짐]	2.18	1.144	0.538
조어 형태	고르기3 [지붕 ^ 배수]	2.35	1.056	0.538
조어 형태	고르기3 [기중기 ^ 운반식 거더 ^ 가설법]	3.66	1.288	0.530
조어 형태	고르기4 [온건한 문맥 ^ 주의]	3.00	1.373	0.532
조어 형태	고르기4 [머리-어]	3.04	1.373	0.545
조어 형태	고르기4 [부분 ^ 닮음]	2.02	1.066	0.545
조어 형태	고르기4 [음운 ^ 덧나기]	3.16	1.196	0.539
조어 형태	고르기4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3.63	1.518	0.546
조어 형태	고르기5 [두통 ^ 없는 ^ 편두통]	1.96	1.177	0.538
조어 형태	고르기5 [거꿀-난시]	3.69	1.319	0.543
조어 형태	고르기5 [간 ^ 원인대 ^ 파임]	3.66	0.988	0.527
조어 형태	고르기5 [눈구멍 ^ 돌출증]	1.97	1.027	0.542
조어 형태	고르기5 [간의 폐쇄성 ^ 바늘 ^ 생검]	3.64	1.160	0.524
조어 형태	고르기6 [닫힌 ^ 사고]	2.06	1.360	0.541
조어 형태	고르기6 [사마귀 ^ 모양 ^ 결핵]	2.57	1.096	0.533
조어 형태	고르기6 [비기능 ^ 맞물림]	3.76	0.954	0.515
조어 형태	고르기6 [땀 ^ 감소증]	2.10	0.880	0.531
조어 형태	고르기6 [부신 ^ 겹질 ^ 자극 ^ 호르몬 ^ 방출 ^ 인자]	4.22	1.213	0.511
조어 형태	고르기7 [딴곳 ^ 빈맥]	3.85	1.284	0.538
조어 형태	고르기7 [샘 ^ 모양 ^ 낭암종]	3.31	1.062	0.541
조어 형태	고르기7 [산소 ^ 머리 ^ 덮개]	2.48	1.207	0.522
조어 형태	고르기7 [손등 ^ 방향]	1.79	1.123	0.538
조어 형태	고르기7 [신경 ^ 근육 ^ 탈분극 없는 이완제]	3.42	1.355	0.543
조어 형태	고르기8 [높은 ^ 곳 ^ 현기증]	2.20	1.208	0.539
조어 형태	고르기8 [나비형 발진]	3.85	1.202	0.524
조어 형태	고르기8 [미세 ^ 눈멀림]	1.84	0.940	0.543
조어 형태	고르기8 [발꿈치 ^ 보행]	2.64	0.991	0.520
조어 형태	고르기8 [복장뼈 ^ 몸통 ^ 자루 ^ 연골 ^ 결합]	4.19	1.054	0.510
조어 형태	고르기9 [솟는 ^ 상태]	2.75	1.308	0.526
조어 형태	고르기9 [불꽃 ^ 플레이너]	3.75	1.227	0.537
조어 형태	고르기9 [안장 ^ 맞춤]	2.44	1.138	0.542
조어 형태	고르기9 [우물-통]	2.10	1.244	0.552
조어 형태	고르기9 [다짐 ^ 모래 ^ 말뚝 ^ 공법]	3.71	1.281	0.531
조어 형태	고르기10 [깊은 ^ 부분]	1.74	1.163	0.546
조어 형태	고르기10 [고리 ^ 쭈장]	3.24	1.197	0.521
조어 형태	고르기10 [공막 ^ 뚫음]	3.30	1.162	0.551
조어 형태	고르기10 [겹질 ^ 상피 ^ 세포]	2.63	1.300	0.537
조어 형태	고르기10 [기능의 국재화]	3.96	1.196	0.536
전체 신뢰도		0.539		

조어 형태 고르기 문항은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크론 바흐

알파값이 0.539로 나타났다. 이는 크론 바흐알파 값이 0.6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조어 형태 고르기1 [접는^의자]	1.34	0.863	0.605
조어 형태 고르기1 [불룩^원두정]	4.48	0.927	0.594
조어 형태 고르기1 [형태적 조건에 의한 교체]	3.63	0.930	0.591
조어 형태 고르기1 [고정^눈멸림]	2.66	0.876	0.591
조어 형태 고르기1 [눈^현기증]	2.66	1.103	0.594
조어 형태 고르기2 [느린^근]	3.38	1.379	0.596
조어 형태 고르기2 [단단^뼈종]	2.62	1.157	0.606
조어 형태 고르기2 [뒤통수^결합^쌍등이]	1.74	1.076	0.580
조어 형태 고르기2 [뒤부아^고름집]	3.92	1.144	0.599
조어 형태 고르기3 [무른^목재]	2.52	1.300	0.605
조어 형태 고르기3 [접시머리^리벳]	4.06	1.155	0.603
조어 형태 고르기3 [순간^처점]	2.19	1.141	0.606
조어 형태 고르기3 [지붕^배수]	2.33	1.060	0.598
조어 형태 고르기3 [기중기^운반식 거더^가설법]	3.67	1.281	0.591
조어 형태 고르기4 [온전한 문맥^주의]	3.02	1.382	0.591
조어 형태 고르기4 [부분^닮음]	2.01	1.065	0.605
조어 형태 고르기4 [음운^덧나기]	3.14	1.195	0.595
조어 형태 고르기5 [두통^없는^편두통]	1.96	1.170	0.603
조어 형태 고르기5 [간^원인대^파임]	3.67	0.983	0.587
조어 형태 고르기5 [눈구멍^돌출증]	1.96	1.027	0.603
조어 형태 고르기5 [간의 폐쇄성^바늘^생검]	3.63	1.156	0.587
조어 형태 고르기6 [닫힌^사고]	2.06	1.352	0.607
조어 형태 고르기6 [사마귀^모양^결핵]	2.58	1.091	0.589
조어 형태 고르기6 [비기능^맞물림]	3.77	0.949	0.586
조어 형태 고르기6 [땀^감소증]	2.09	0.882	0.593
조어 형태 고르기6 [부신^겉질^자극^호르몬^방출^인자]	4.23	1.209	0.585
조어 형태 고르기7 [딴곳^빈맥]	3.87	1.283	0.610
조어 형태 고르기7 [샘^모양^낭암종]	3.32	1.058	0.603
조어 형태 고르기7 [산소^머리^덮개]	2.48	1.201	0.595
조어 형태 고르기7 [손등^방향]	1.78	1.120	0.604
조어 형태 고르기7 [신경^근육^탈분극 없는 이완제]	3.41	1.348	0.601
조어 형태 고르기8 [높은^곳^현기증]	2.19	1.208	0.604
조어 형태 고르기8 [나비형 발진]	3.87	1.201	0.598
조어 형태 고르기8 [미세^눈멸림]	1.84	0.935	0.606
조어 형태 고르기8 [발꿈치^보행]	2.64	0.987	0.584
조어 형태 고르기8 [복장뼈^몸통^자루^연골^결합]	4.19	1.048	0.574
조어 형태 고르기9 [솟는^상태]	2.73	1.314	0.587
조어 형태 고르기9 [불꽃^플레이너]	3.76	1.221	0.598

조어 형태 고르기9 [안장 ^ 맞춤]	2.43	1.132	0.604
조어 형태 고르기9 [다짐 ^ 모래 ^ 말뚝 ^ 공법]	3.72	1.281	0.594
조어 형태 고르기10 [고리 ^ 쇄장]	3.26	1.204	0.583
조어 형태 고르기10 [캡질 ^ 상피 ^ 세포]	2.62	1.295	0.589
조어 형태 고르기10 [기능의 국재화]	3.96	1.189	0.597
전체 신뢰도		0.602	

위 신뢰도를 보완하고자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몇몇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조어 형태 고르기 2에서는 [눈알 ^ 뒷극], 조어 형태 고르기 4에서는 [머리-어], [적합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 조어 형태 고르기 5에서는 [거꿀-난시], 조어 형태 고르기 9에서는 [우물-통], 조어 형태 고르기 10에서는 [깊은 ^ 부분], [공막 ^ 뚫음] 문항이었다. 보완된 조어 형태 문항은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크론 바흐알파 값 0.602로 나타났다. 이는 크론 바흐알파 값이 0.6보다 높아 신뢰도가 높았다.

ABSTRACT

Study on Hybrid word for the Conditioned Terminology Policy

Kwon, Jung-Hyun
Major in Korean Languag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synchronization with the target jargon hybrid word suggestions in order to conditioned the terminology policy. Coming to the knowledge of the concept of the open era has now been changed to sublimation the center of 'communication' from keeping the purity of the language. Terminology was able to access throughout the public as well as professionals in language the general public.

Terminology has a distinct purpose made artificially from certain groups or certain professionals. But only due to a combination of native language·Chinese character, not only its own vocabulary and range of frequently used foreign words difficult to interpret its mean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type of hybrid word that jumped from jargon, this study also through research look at the range of issues and processes of mintage native language of foreign words, Chinese character made in the translation process will check the mintage ways for synchronization.

To this end, Section 2 hybrid concept and create the type of expertise and the type species of fish, it analyzed the type of coinage. In chapter 3, it was also central to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literac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this analysis, understanding the most preferred type of fish in the survey were 'native language+Chinese character' type, type of coinage was 'a modifier[an adnominal] form of verb+noun' type. Chapter 4 summarized the type preferences and synchronize element according to survey results suggested in order to simplify policy looked to suggest mintage way. And with the proposal was negotiable and diversified ways of checking sublimation-language synonym for the acceptance of a hierarchical terminology.

Conditioned the terminology may soon see that the synchronization of the term. So will develop an approach coined terminology for synchronization, and check for the settlement of sunhwaeo be preceded by constantly.



【Key words】 terminology, hybrid word, sublimation, synchronization, language the general public, vocabulary comprehension, language capacity, circulation